

2012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연구보조원: 이진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2012년 6월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목차

제 1 장

연구방법 및 내용

- I. 연구목적 / 6
- II. 연구내용 / 6
- III. 자료조사 방법 / 7
 - 1. 설문조사 / 7
 - 2. OECD 자료 / 9
-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13

제 2 장

연구결과 요약

- I. 행복지수 분석: 한국과 OECD 비교 / 16
- II.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 18
- III. 2009년~2012년 한국 행복지수 변화 / 20

제 3 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

- I. 물질적 행복 / 24
 - 1. 상대적 빈곤 / 24
 - 2. 미취업 가정 / 25
 - 3. 빈곤 / 26
- II. 보건과 안전 / 28
 - 1. 영아건강 / 28
 - 2. 예방접종 / 30
 - 3. 사고사 / 33
- III. 교육 / 34
 - 1. 학업성취 / 34
 - 2. 교육참여 / 37
 - 3. 학업열망 / 39
- IV. 가족과 친구관계 / 40
 - 1. 가족구조 / 40
 - 2. 부모관계 / 42
 - 3. 친구관계 / 44
- V. 행동과 생활양식 / 45
 - 1. 건강행동 / 45
 - 2. 위험행동 / 49
- VI. 주관적 행복 / 57
 - 1. 건강 / 57
 - 2. 학교생활 / 58
 - 3. 개인행복 / 59
- VII. 행복지수 분석 / 63

제 4 장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 I. 학교폭력 피해경험 / 66
- II. 학교폭력 가해경험 / 76
- III.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주관적 행복 / 78
- IV.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가출 및 자살충동 / 89

제 5 장

2009년~2012년 한국 행복지수 변화

- 부록 I.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 97
- 부록 II. 지수도출 매뉴얼 / 105
- 부록 III. 설문지 / 109

제 1 장

연구방법 및 내용



I.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또한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도 보고서에는 학교폭력 연구를 새로이 추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4가지, 즉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에 따라 주관적 행복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가출 및 자살충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II. 주요 연구내용

영역	세부내용
한국과 OECD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비교	1. 물질적 행복 2. 보건과 안전 3. 교육 4. 가족과 친구관계 5. 행동과 생활양식 6. 주관적 행복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분석	1. 학교폭력 피해 경험 2. 학교폭력 가해 경험 3.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주관적 행복 4.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가출 및 자살충동

Ⅲ. 자료조사 방법

1. 설문조사

올해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9일~4월 20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통계청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삼아,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해 학생 수에 따라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했다. 학생 명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받은 2011년 자료를 사용했다. 학교 명단을 바탕으로 교감 선생님께 먼저 연락한 후, 조사에 협조해 주는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해 조사를 실시했다. 유효표본 수는 초등학생 1,741명, 중·고등학생이 5,050명이다. 올해 설문조사는 지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주었다.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응답대상	초등학생 1,741명 중·고등학생 5,050명
조사지역	전국 5대권역(제주도 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표본 수	6,791명
표본추출	통계청 교육통계 자료를 기초로 학생 수에 따라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해 비례할당 추출 방식으로 표본추출
조사방법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2년4월9일~2012년 4월20일
조사기관	현대리서치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응답자 특성

초등학생		사례수(명)	비율 (%)
		1,741	100
성별	남성	879	50.5
	여성	862	49.5
지역	수도권	720	41.4
	강원도	132	7.6
	충청권	218	12.5
	영남권	465	26.7
	호남권	206	11.8
지역크기	대도시	661	38.0
	중소도시	731	42.0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349	20.1
학년	4학년	543	31.2
	5학년	602	34.6
	6학년	596	34.2

중·고등학생		사례수(명)	비율 (%)
		5,050	100
성별	남성	2,566	50.8
	여성	2,484	49.2
지역	강원권	1,865	36.9
	수도권	366	7.3
	영남권	851	16.7
	충청권	1,232	24.4
	호남권	736	14.6
지역크기	대도시	2,066	40.9
	중소도시	1,950	38.6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1,034	20.5
학년	중학생	2,134	100
	1학년	697	32.7
	2학년	688	32.2
	3학년	749	35.1
	고등학생	2,916	100
	1학년	937	32.1
	2학년	999	34.3
	3학년	980	33.6

2. OECD 자료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 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집됐다.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 서베이(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이 이용됐다. 올해 연구에서는 특히 3개 영역 -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의 HBSC 서베이 자료를 최근 것으로 변경해 측정했다.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2012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 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9세이하	OECD 2008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 ¹⁾ 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OECD/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이하	OECD/PISA 2006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0 World Bank 2010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이하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예방접종 (12-23개월)	12-23개월	WDI 2009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개월)			
DPT3 예방접종 (12-23 개월)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십만명당)	19세 이하	WHO mortality database 2008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시험점수 수학시험점수 과학시험점수	15세	OECD/PISA 2009	
	교육 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0 교육지표	
	청소년	실업상태인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15-19세	OECD	교육개발원

	실업	청소년	15-19세		2010 교육 지표	2010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의붓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의붓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 비율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 비율	15세	PISA 2000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11, 13, 15세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행동과 생활 양식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 비율	11, 13, 15세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 (BMI) 25이상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 음주/마약세스	흡연/음주여부 비율 마약사용 비율	11, 13, 15세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섹스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08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의 상태가 '전혀 좋지않다', '별로 좋지않다', '보통이다' 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하는 비율	11, 13, 15세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전혀',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 주변상황에 '전혀', '별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 '다소' 및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	15세	PISA 2003	

1)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 교과서'로 총 8개의 항목이 조사된 결과를 보여 준다.

2009년~2012년 측정지표 변화

영역	구성 요소	지표	2009		2010		2011		2012	
			외국 자료	한국 자료	외국 자료	한국 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외국자료	한국자료
복합적 행동	상대적 빈곤	중위수인의 50% 이하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6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5	본연구실문지 (KCWI)	OECD 2005	본연구실문지 (KCWI)	OECD 2008	본연구실문지 (2011 KCWI)	OECD 2008	본연구실문지 (2012 KCWI)
	결핍	교육여건	PISA 2003	본연구실문지 (KCWI)	PISA 2003	본연구실문지 (KCWI)	OECD/PISA 2009	OECD/PISA 2009	OECD/PISA 2009	OECD/PISA 2009
			문화적결핍	OECD Health data 2002, 2003	UN 2010 OECD Health data 2009	교육개발원	OECD/PIISA 2003	OECD/PIISA 2003	OECD/PIISA 2003	OECD/PIISA 2003
보건과 안전	영양 건강	영아 사망률	OECD Health data 2002, 2003	사망원인통계 2007	UN 2010 OECD Health data 2009	교육개발원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저체중아 비율	OECD Health data 2002, 2003	사망원인통계 2007	교육개발원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OECD Health data 201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World Bank 2010
	예방 접종	질병예방접종여부	WDI 2003	사망원인통계 2007	UNICEF 2008 World Bank 2008	교육개발원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HNP 2002	사망원인통계 2007	UNICEF 2008 World Bank 2008	교육개발원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고사	아동사고사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2005	사망원인통계 2007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5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PISA 2003	PISA 2003	PISA 2006 (OECD 2009)	PISA 2006	OECD/PISA 2009	OECD/PISA 2009	OECD/PISA 2009	OECD/PISA 2009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5)	국제통계연간 2007 (교육 정도 및 취학률)	OECD 2009 교육 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OECD 2010 교육지표	OECD 2010 교육지표	OECD 2010 교육지표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조사하지 않음	조사하지 않음	OECD 2009 교육 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 지표	교육개발원 2010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연구실문지 (KCWI)	OECD 2009 교육 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지표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 지표	교육개발원 2010
고용의 질	미숙련 일자리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연구실문지 (KCWI)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연구실문지 (KCWI)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의붓가정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2011 KCWI)	HBSC 2010 PISA 2000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행동과 생활 양식		중진 행위	흡부모 가정 의붓가정 협력 식사하기 함께 대화하기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2011 KCWI)	HBSC 2010 PISA 2000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주관적 행복		위협 행위	친밀한 급우관계 아침식사 과일섭취 과체중 운동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0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2011 KCWI)	HBSC 2010 PISA 2000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행위	흡연/음주/ 마약/게스	HBSC 2001 WDI 2003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WDI 2008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6 WDI 2008	본연구설문지 (2011 KCWI)	HBSC 2010 WDI 2008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주관적 건강	임신과출산	WDI 2003	인구동태 조사보고서 2007 (통계청)	WDI 2008	인구동태 조사보고서 2007 (통계청)	WDI 2008	WDI 2008	WDI 2008	WDI 2008
		학교 생활	주관적 건강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6	본연구설문지 (2011 KCWI)	HBSC 2010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개인 행복	학교생활 만족 삶의 만족 부정적생각	HBSC 2001 PISA 2003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1 PISA 2003	본연구설문지 (KCWI)	HBSC 2006 PISA 2003	본연구설문지 (2011 KCWI)	HBSC 2010 PISA 2003	본연구설문지 (2012 KCWI)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지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SE를 활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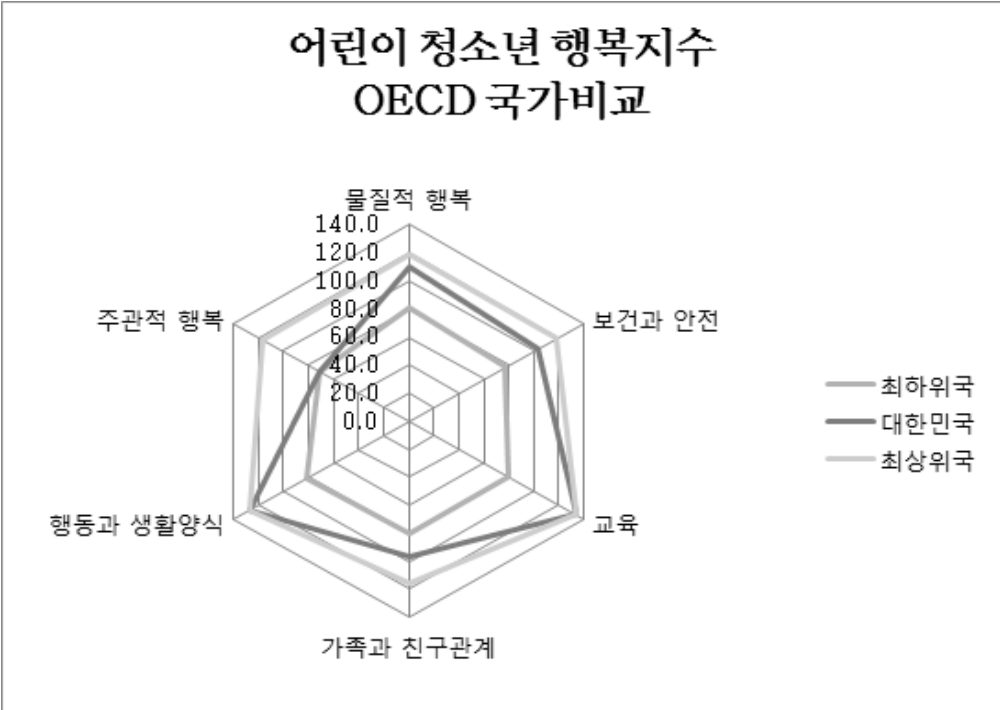
제 2 장

연구결과 요약



I. 행복지수 분석: 한국과 OECD 비교

▶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2012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한국은 교육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영역에서 133.9(OECD국가 평균=100)로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5개 영역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만 현저한 꼴찌를 기록했다. 유니세프 행복지수는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80.4	77.3	79.5	80.2	81.5	71.4
대한민국	110.1	102.6	133.9	96.7	126.6	71.4
최상위국	119.3	118.2	133.9	115.8	126.6	116.9

2012년 영역별 OECD 국가의 행복지수 (평균 = 100)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한국	110.1	102.6	133.9	96.7	126.6	71.4
포르투갈	93.0	88.6	104.8	114.9	104.2	100.5
그리스	95.7	105.3	103.6	93.4	93.7	110.9
오스트리아	113.6	85.6	79.5	91.9	98.9	105.6
체코	112.0	105.2	96.1	91.0	81.5	100.7
스페인	107.0	101.9	98.8	107.8	94.6	116.9
스위스		103.0	97.4	107.1	96.8	105.5
프랑스	104.5	104.2	100.6	97.3	97.1	101.5
이탈리아	100.7	102.8	104.2	120.2	92.8	107.2
독일	95.4	104.3	93.7	100.7	101.4	102.1
벨기에	98.3	96.6	108.6	103.1	99.3	86.1
캐나다		85.5	105.4	84.9	99.5	93.7
헝가리	92.0	94.4	94.1	99.4	88.8	89.1
핀란드	119.3	114.4	103.1	95.1	98.2	102.1
영국	93.2	95.1	91.6	86.1	97.1	97.4
아이슬란드		118.0		101.5		97.3
일본	99.9	106.1				
호주		98.5	105.0			
아일랜드		101.4	100.7	103.8	106.3855	104.0
덴마크		94.4	88.1	103.7	114.3	95.5
노르웨이		106.6	88.7	107.6	111.5	100.8
미국	80.4	77.3	101.4	80.2		106.4
뉴질랜드	94.8	85.5	101.9			
폴란드	85.9	97.2	99.2	93.1	89.5	86.5
네덜란드	104.1	107.4	106.8	115.8	107.8	114.1
스웨덴		118.2	92.9	104.7		104.9

* 행복수치가 비어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임

II.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분석

올해 보고서에서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새로이 추가해 분석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험 유형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과 주관적 행복, 가출 및 자살 충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경험 분석에서는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학생(12.5%)이며, 고등학생은 5.5%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한국 어린이·청소년은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학교폭력은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은 가장 낮았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시 초등학생은 62.1%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50%, 고등학생은 40.9% 수준이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을 압도적으로 선호한 한편, 중학생은 '부모님께 알린다'와 '학교에 알린다' 방법을 비슷하게 선호했다. 고등학생은 '학교에 알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 '부모님께 알린다'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경험도 교급이 낮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약 10명중 1명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은 7.3% 수준이었고, 고등학생은 3.3%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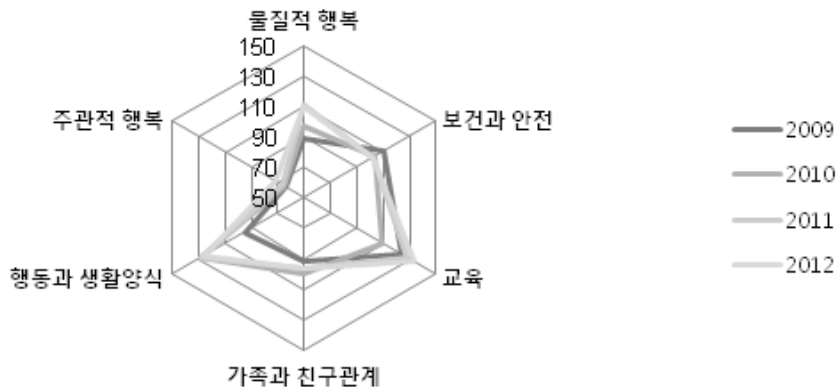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분석했다. 즉, 행복지수에서 주관적 행복영역 지표로 사용된 6개 항목 -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내가 생활하는 단체에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 에 대한 응답이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가출충동과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도 분석했다. 초등학생은 가출충동과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피해형, 양자형, 가해형, 무경험형 순으로 높았다. 중학생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양자형이 5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피해형, 가해형, 무경험형 순이었다. 한편, 고등학생은 피해형이 가출충동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 다음은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이었다. 또한, 고등학생은 가해형, 피해형, 양자형 순으로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무경험형도 27.1%나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Ⅲ. 2009년~2012년 한국 행복지수 변화

-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2009년~2012년 영역별로 상이한 변화추세를 나타냈다. 물질적 행복 영역은 2009년과 2010년에 OECD 국가 평균(100)을 밑돌았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 110.7과 110.1을 각각 기록했다.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 점수는 4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주관적 행복지수는 4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09년~2011년 64~65점대에서 2012년 71.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09-2012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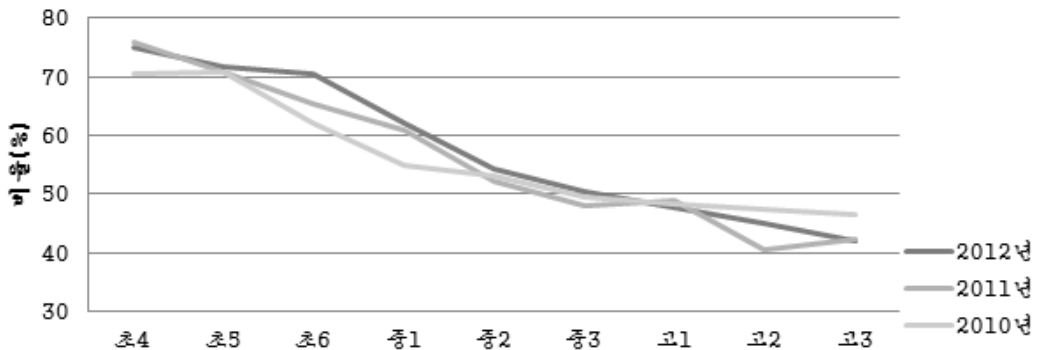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2012	110.1	102.6	133.9	96.7	126.6	71.4

한편, 2012년 설문조사에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학생 범주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2012년 아래 그림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이 비율이 201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에 비해 행복한 정도 2010-2012



친구들에 비해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 라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의 2010~2012년 간의 변화

제 3 장

한국과 OECD 행복지수 구축²

² 그래프에서 수치가 '0' 인 경우는 해당 수치가 조사 되지 않은 국가임.
기술 통계치에서는 '0' 을 결측값으로 처리 한 후 계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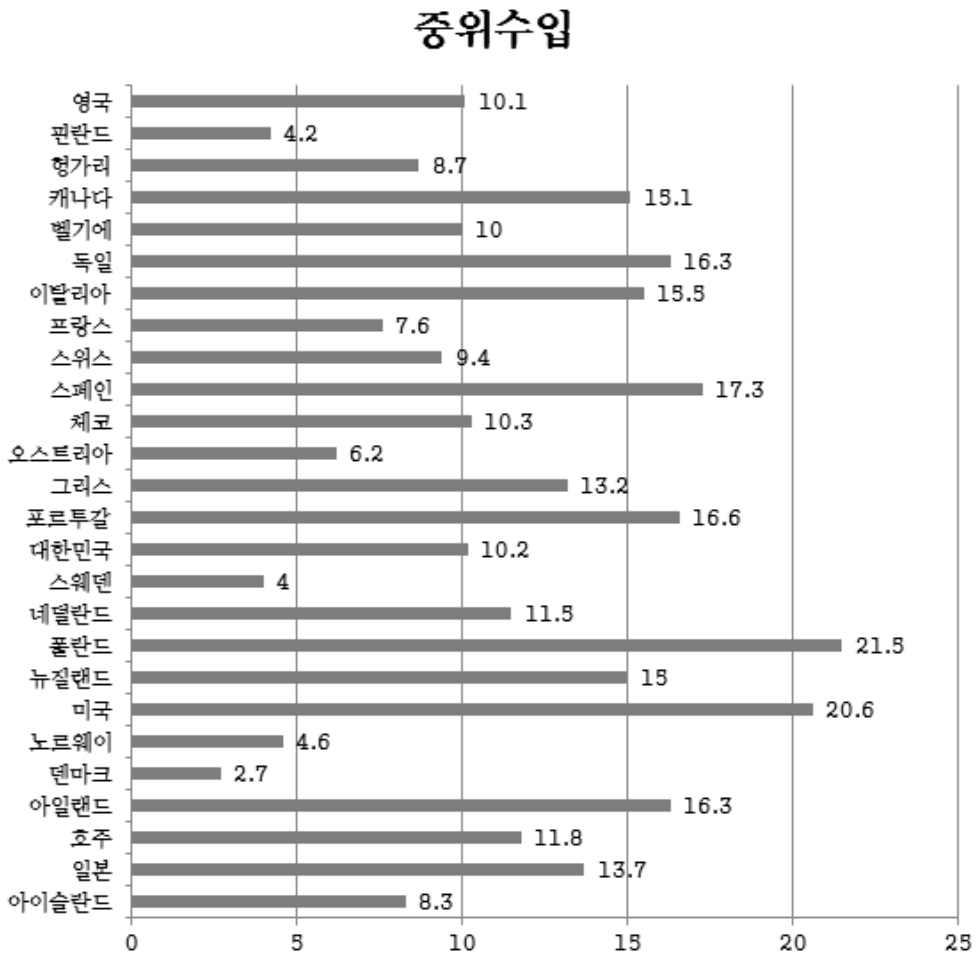
I. 물질적 행복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 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0.2%로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상대적 빈곤] 단위:%



[상대적 빈곤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상대적 빈곤	11.57	5.080074	2.7	21.5

2. 미취업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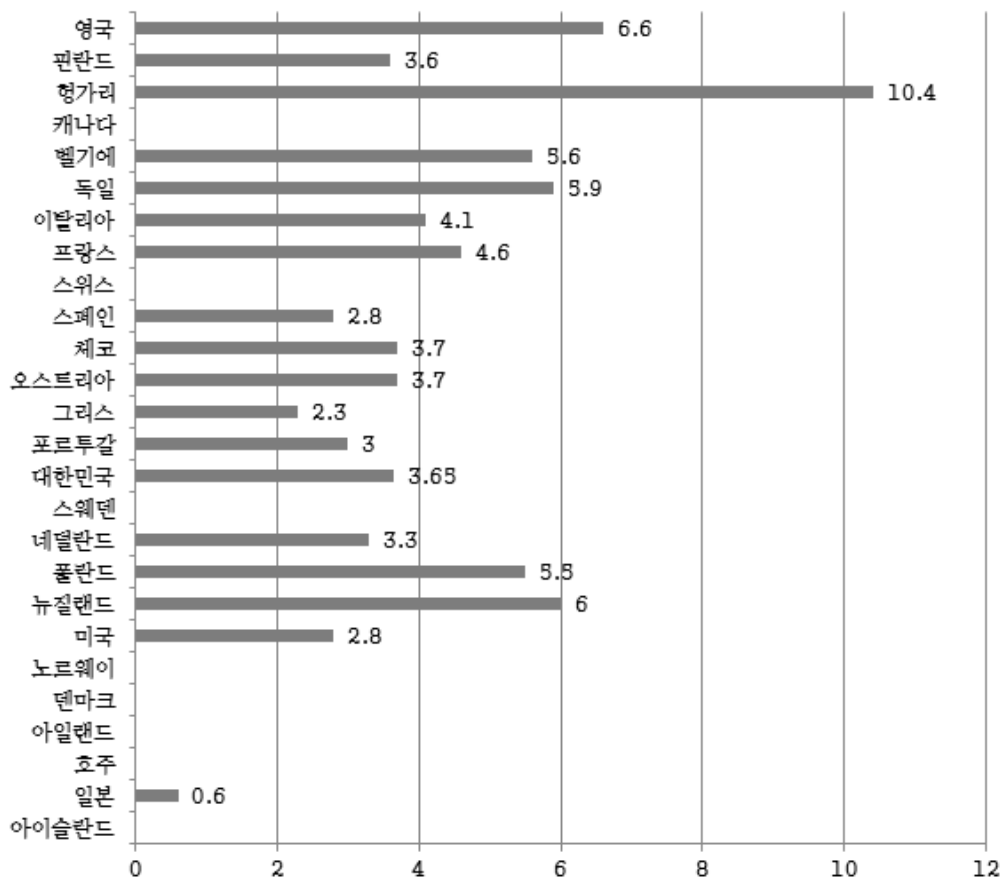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3.65%로 OECD 국가 평균인 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가정] 단위: %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미취업 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미취업 가정	4.33	2.14334	0.6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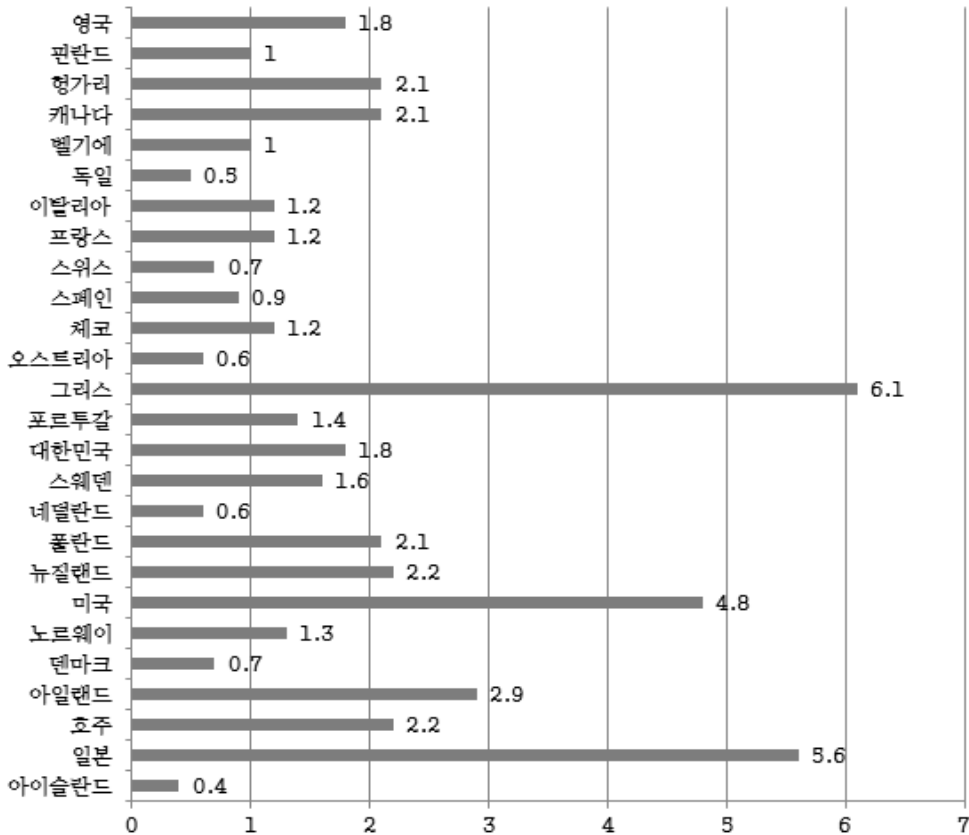
3. 빈곤

교육여건 : 교육자재- 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를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1.8%로 OECD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교육여건] 단위: %

교육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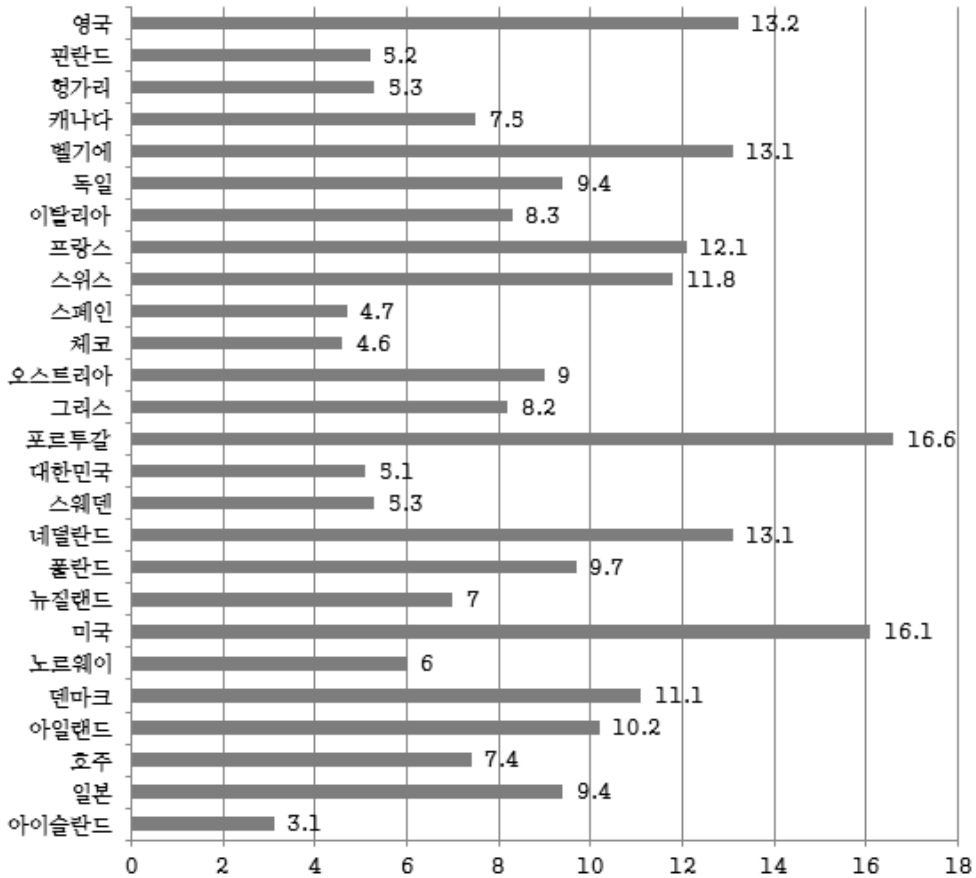
[교육여건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교육여건	1.85	1.49993	0.4	6.1

- 한국의 문화적 결핍 수치는 5.1%로 OECD 국가 평균(8.9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결핍] 단위: %

문화적 결핍



[문화적 결핍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문화적 결핍	8.94	3.64463	3.1	16.6

Ⅱ.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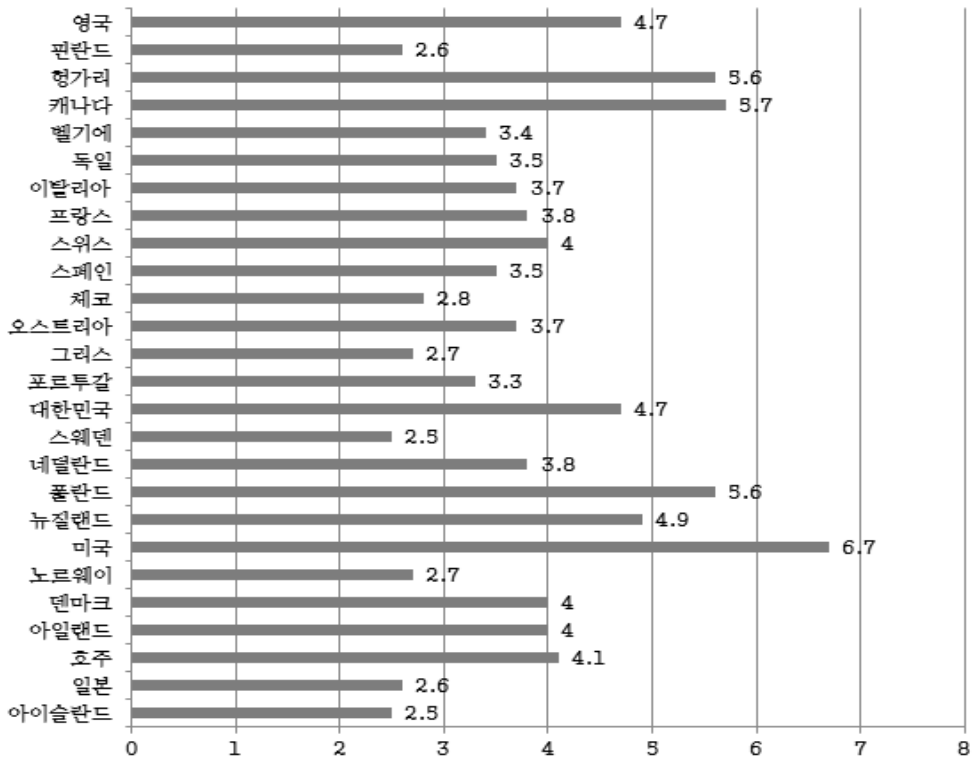
1. 영아건강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세의 비율 (출산 1,000명당)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4.7%로 OECD 국가 평균(3.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사망률] 단위: %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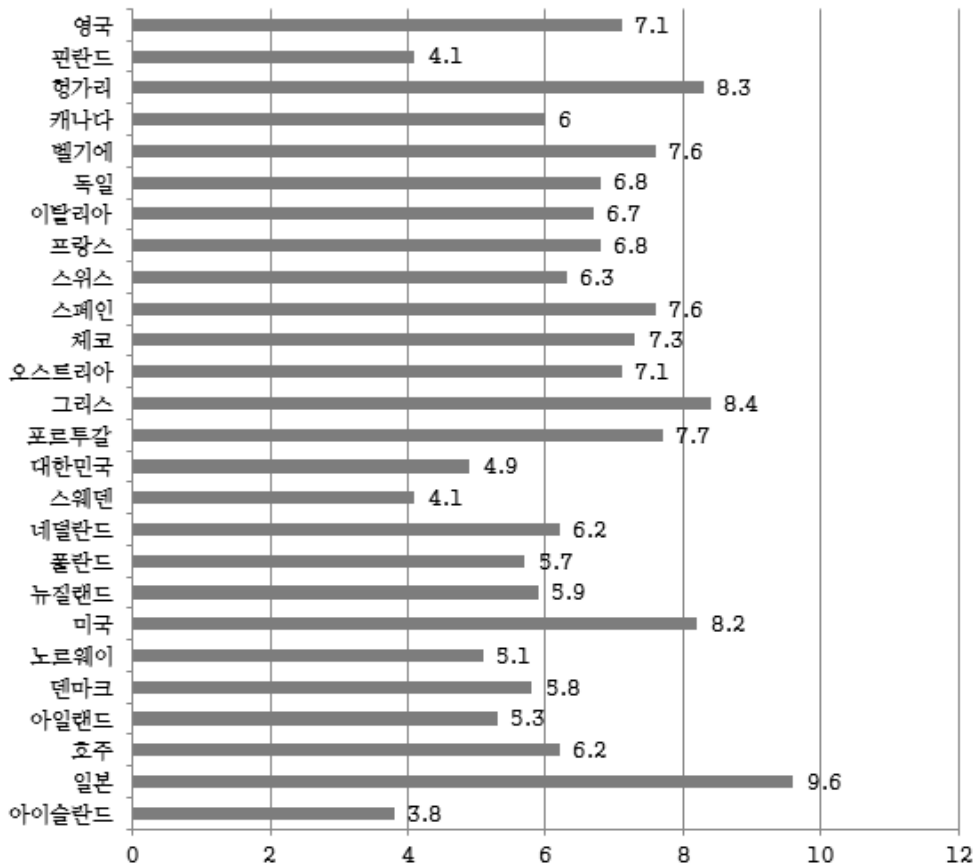
[영아사망률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영아사망률	3.89	1.12475	2.5	6.7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4.9%로 OECD 국가 평균(6.4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아] 단위: %

저체중아



[저체중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저체중아	6.48	1.43546	3.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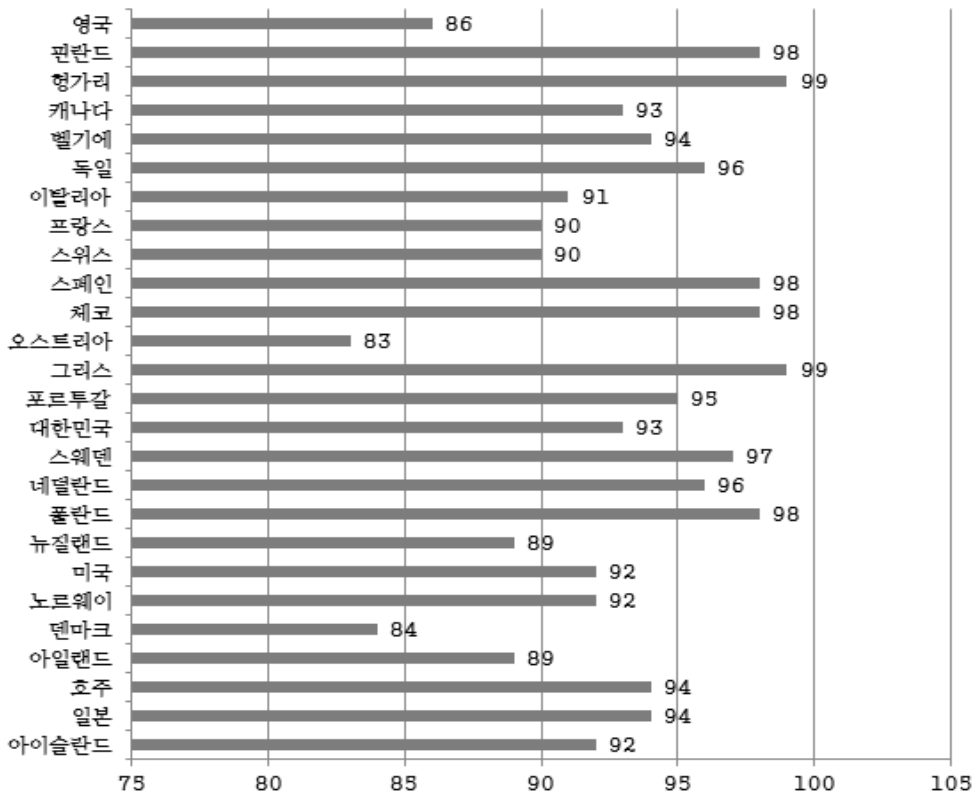
2. 예방접종

질병의 예방접종 여부
: 홍역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 소아마비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12-23개월)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 접종 비율은 93%로 OECD 국가 평균(93.08 %)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홍역예방] 단위: %

홍역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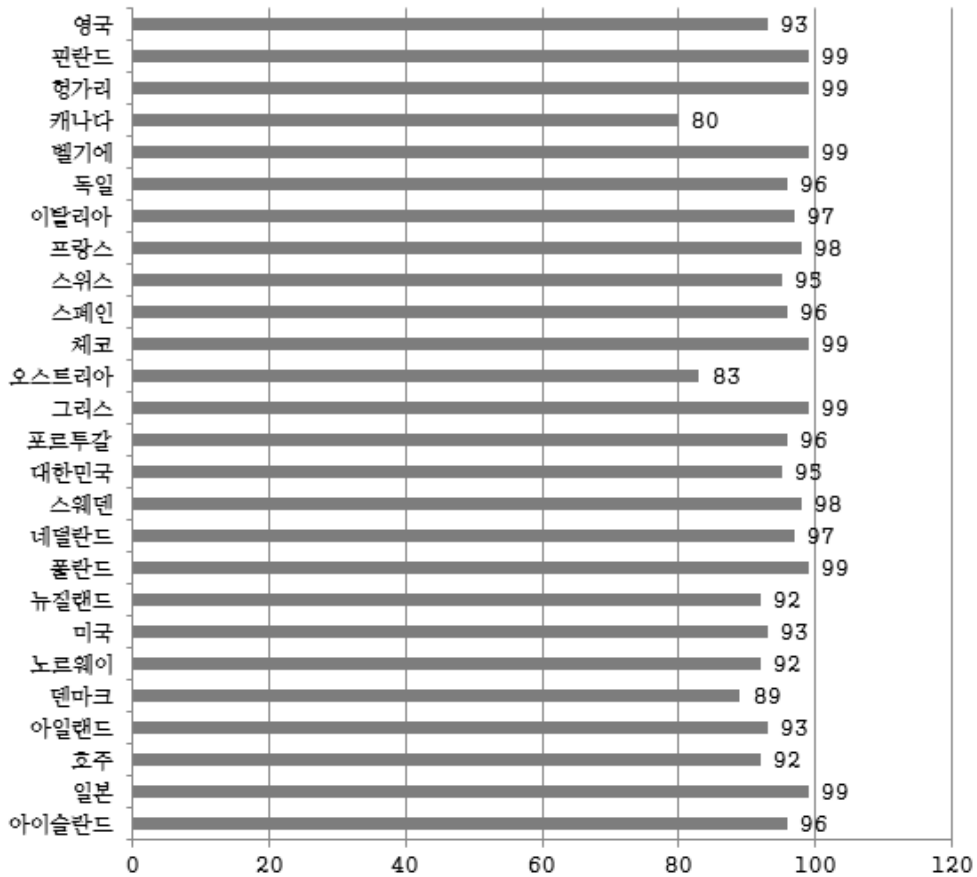
[홍역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홍역 예방접종여부	93.08	4.47145	83	99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도 95%로 OECD 국가 평균(94.77%)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소아마비] 단위: %

소아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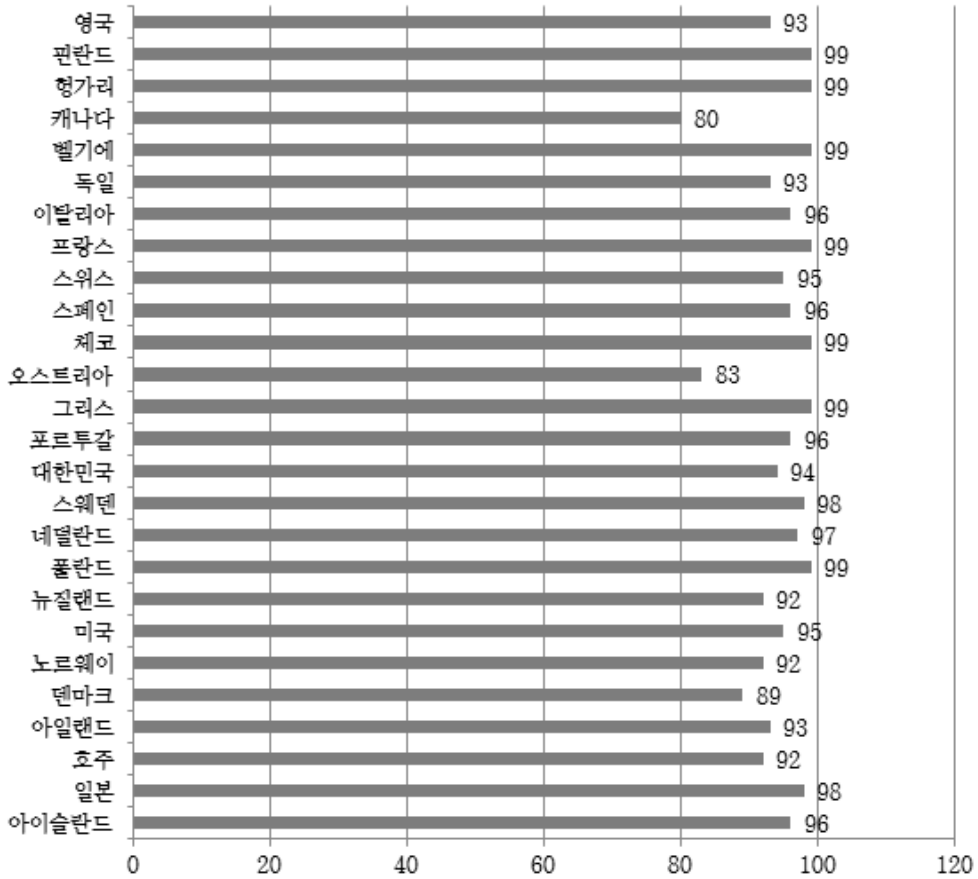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94.77	4.83576	80	99

- DP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 역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94.65%)과 유사한 94%를 나타냈다.

[DPT3] 단위: %

DPT3



[DPT3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DPT3 예방접종 여부	94.65	4.81616	80	99

3. 사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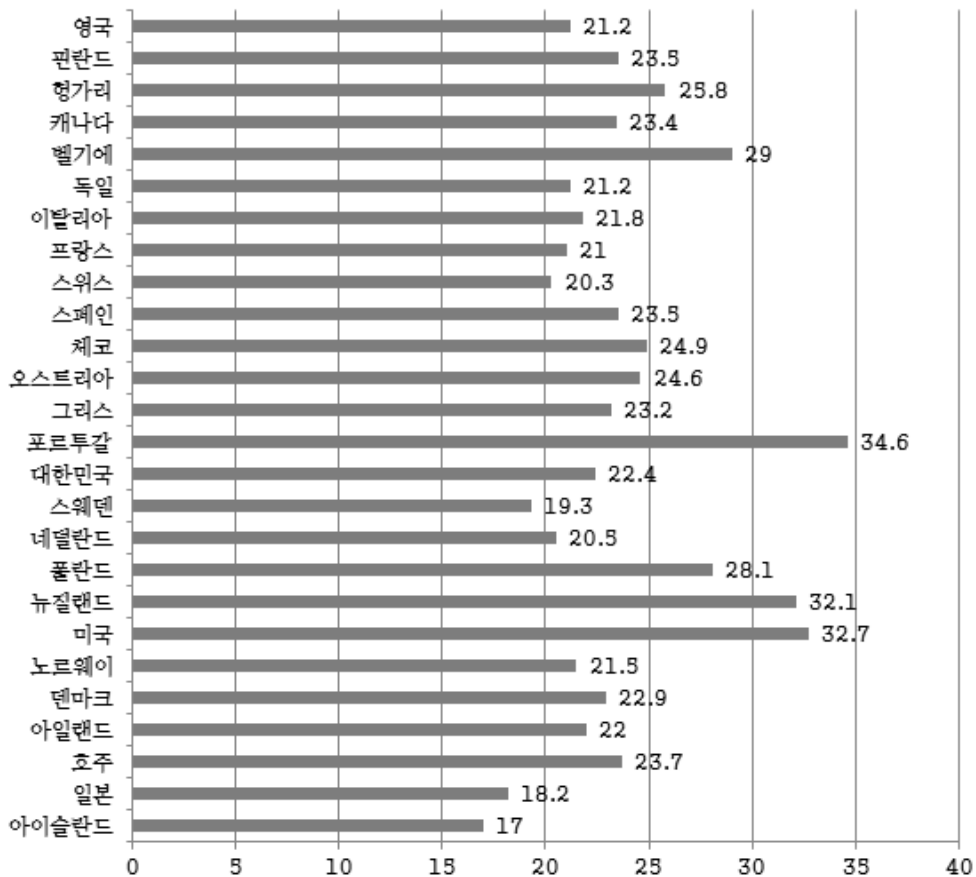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 (19세 이하)의 십만명당 비율

- 한국의 아동사고사 연평균 비율은 십만 명당 22.4로 OECD 국가 평균(23.7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아동사고사]

아동사고사



[아동사고사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동사고사	23.78	4.35648	17	34.6

Ⅲ. 교육

1. 학업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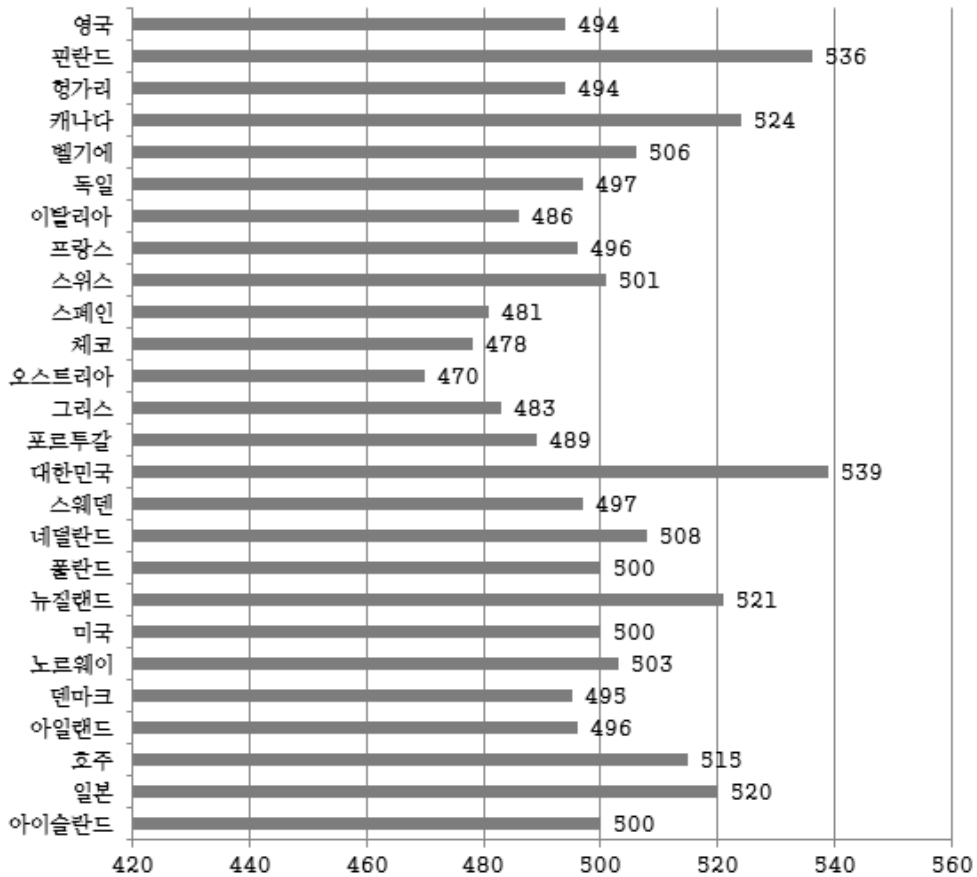
15세 학업성적

: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세 영역, 즉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로 측정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39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읽기시험 점수]

읽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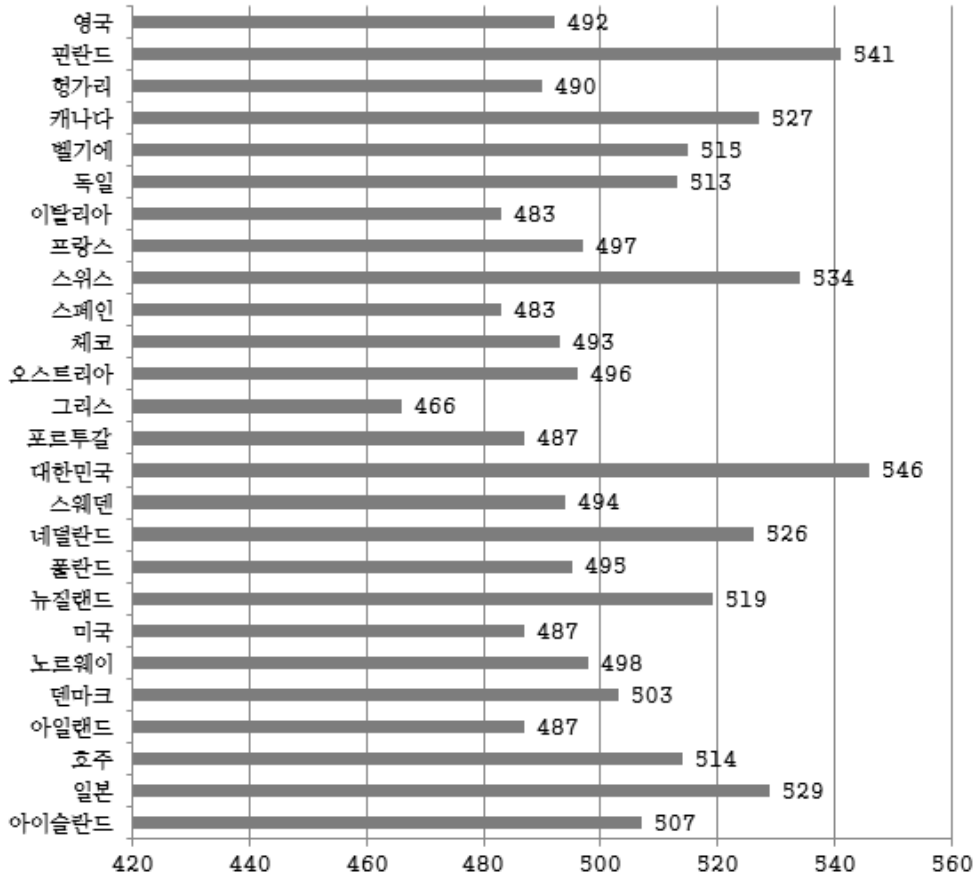
[읽기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읽기점수	501.12	16.7746	470	539

- 한국의 수학점수는 OECD국가 평균(504.69)을 크게 상회하는 546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수학시험 점수]

수학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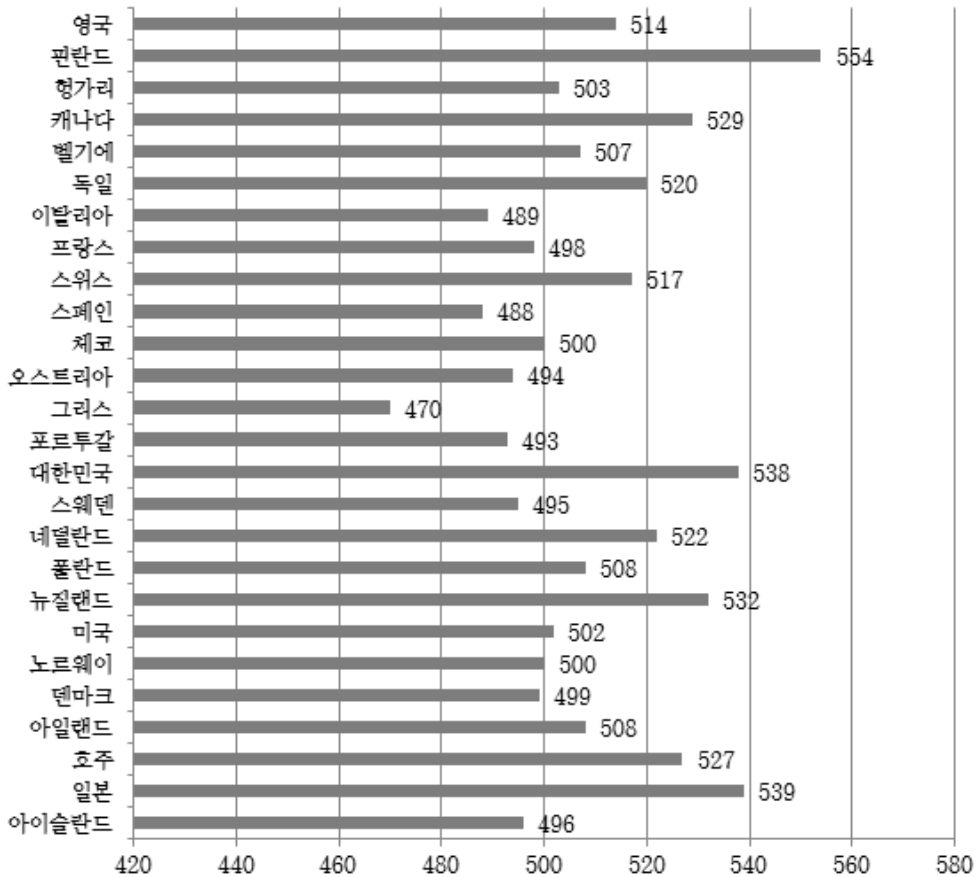
[수학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수학점수	504.69	20.1787	466	546

- 한국의 과학점수는 538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9.31)보다 크게 높아,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과학시험 점수]

과학점수



[과학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학점수	509.31	19.0552	470	554

2. 교육참여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 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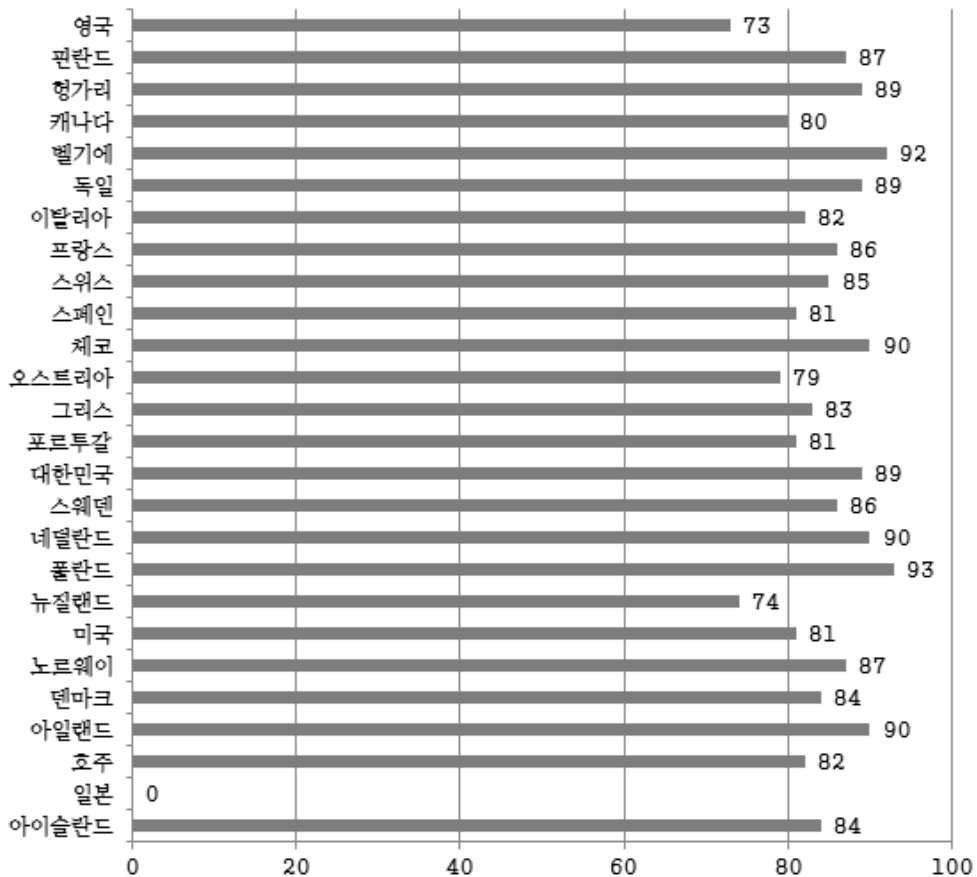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9%로 OECD 국가 평균 84.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유지] 단위: %

학업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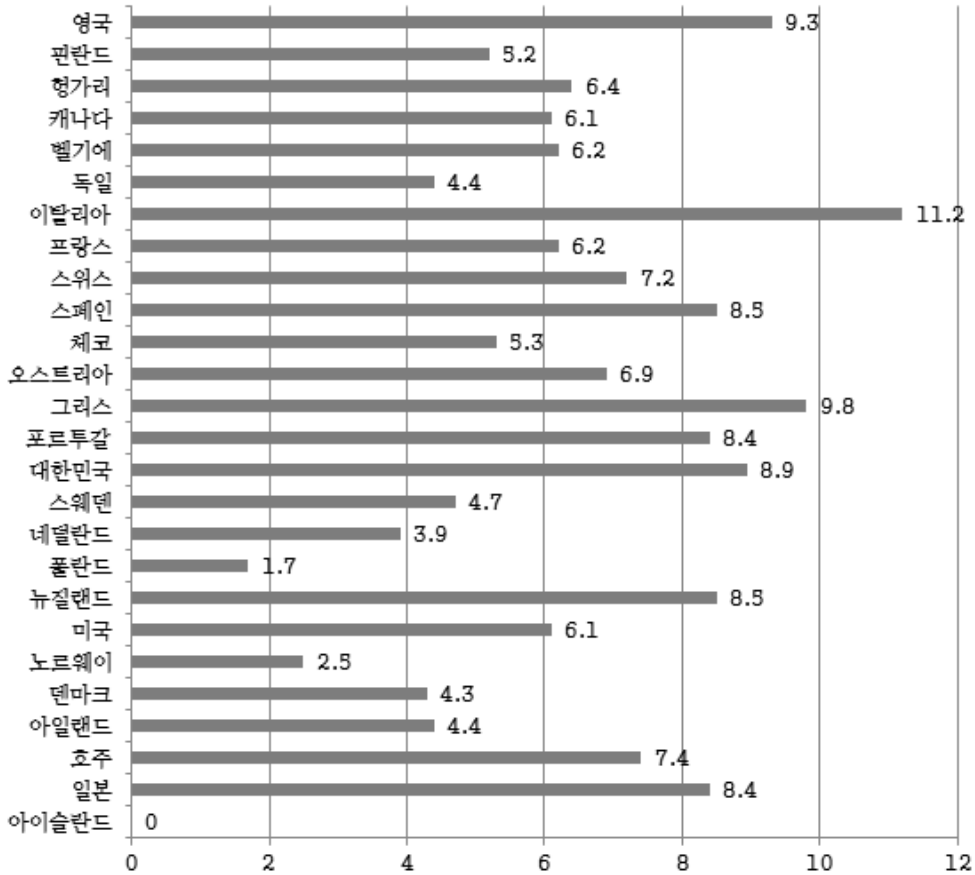
[학업유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유지	84.68	5.16978	73	93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은 한국이 8.95%로 OECD 평균(6.38%)보다 높았다

[실업상태] 단위: %

실업상태



[실업상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실업상태	6.48	2.326	1.7	11.2

3. 학업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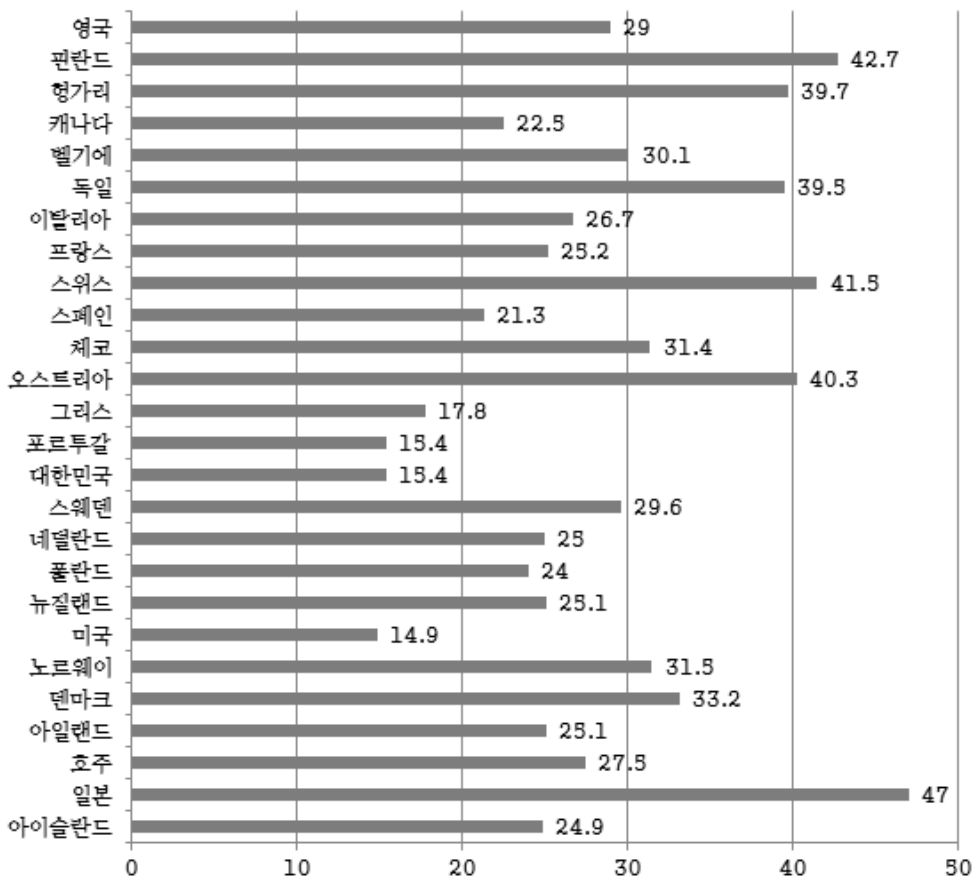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인 28.7%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업열망] 단위: %

미숙련 일자리



[학업열망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열망	28.70	8.8436	14.9	47

IV. 가족과 친구관계

1. 가족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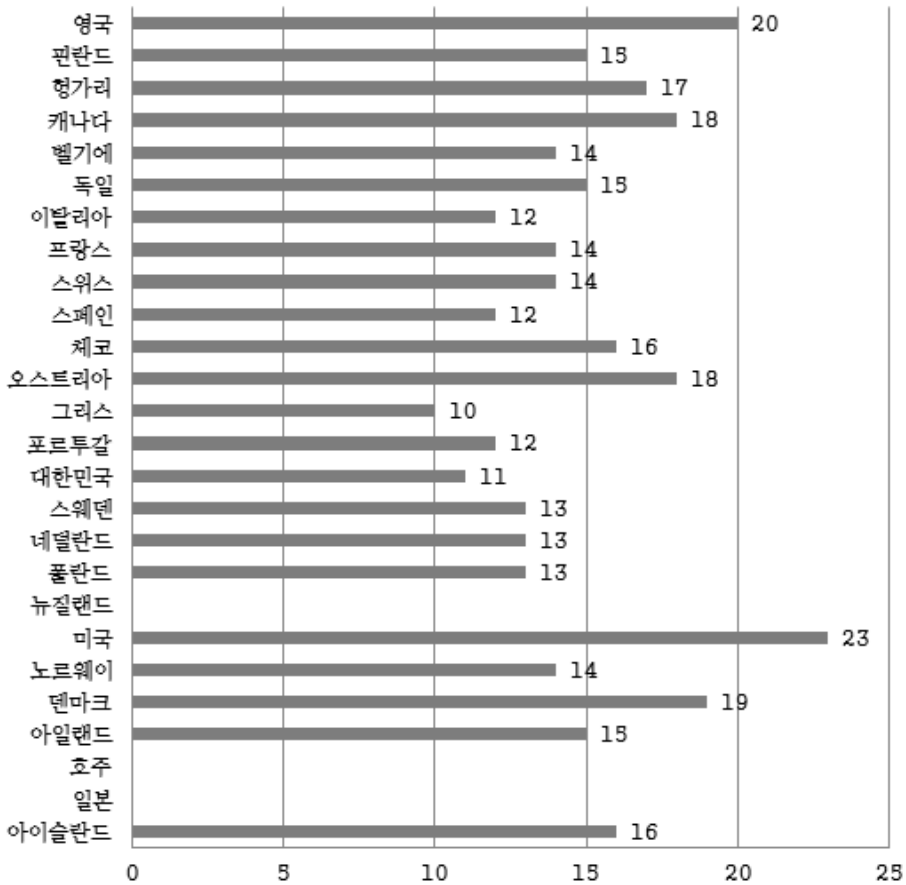
홀부모 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 가정 비율은 11%로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홀부모 가정] 단위: %

홀부모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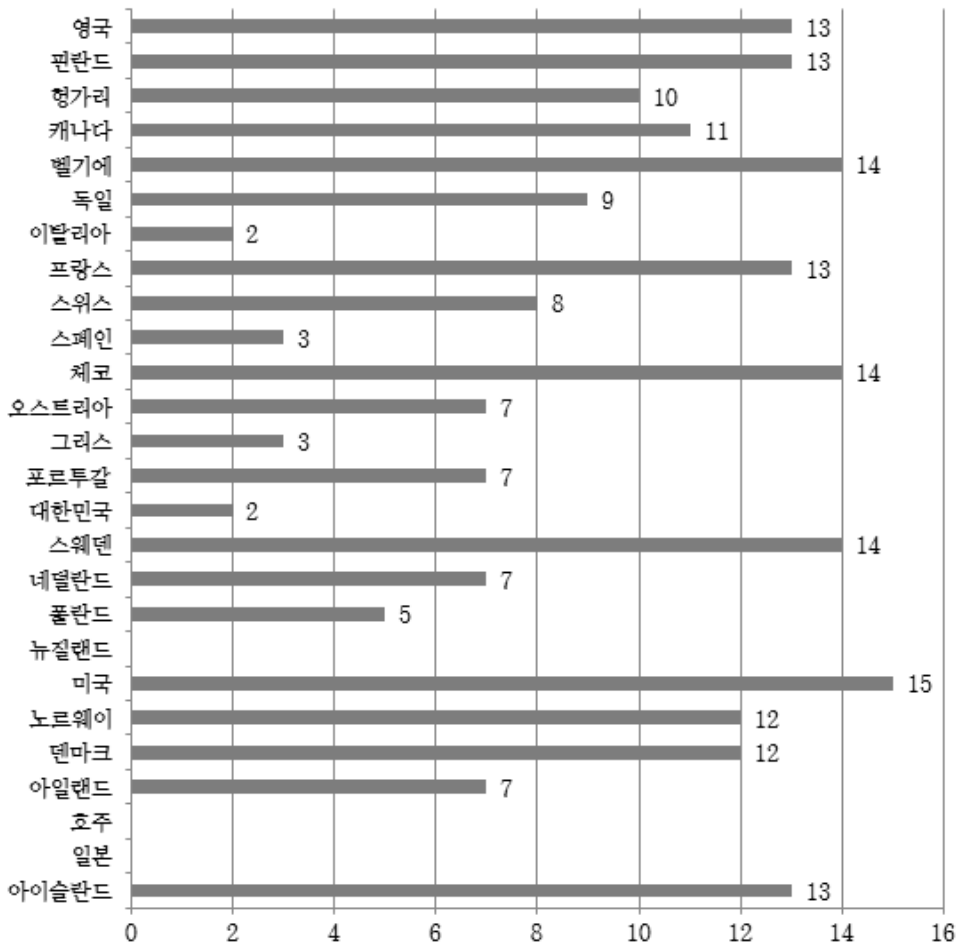
[홀부모 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홀부모가정	14.96	3.11124	10	23

-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2% 수준인 한편, OECD 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30%로 나타났다.

[의붓가정] 단위: %

의붓가정



[의붓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의붓가정	9.30	4.25799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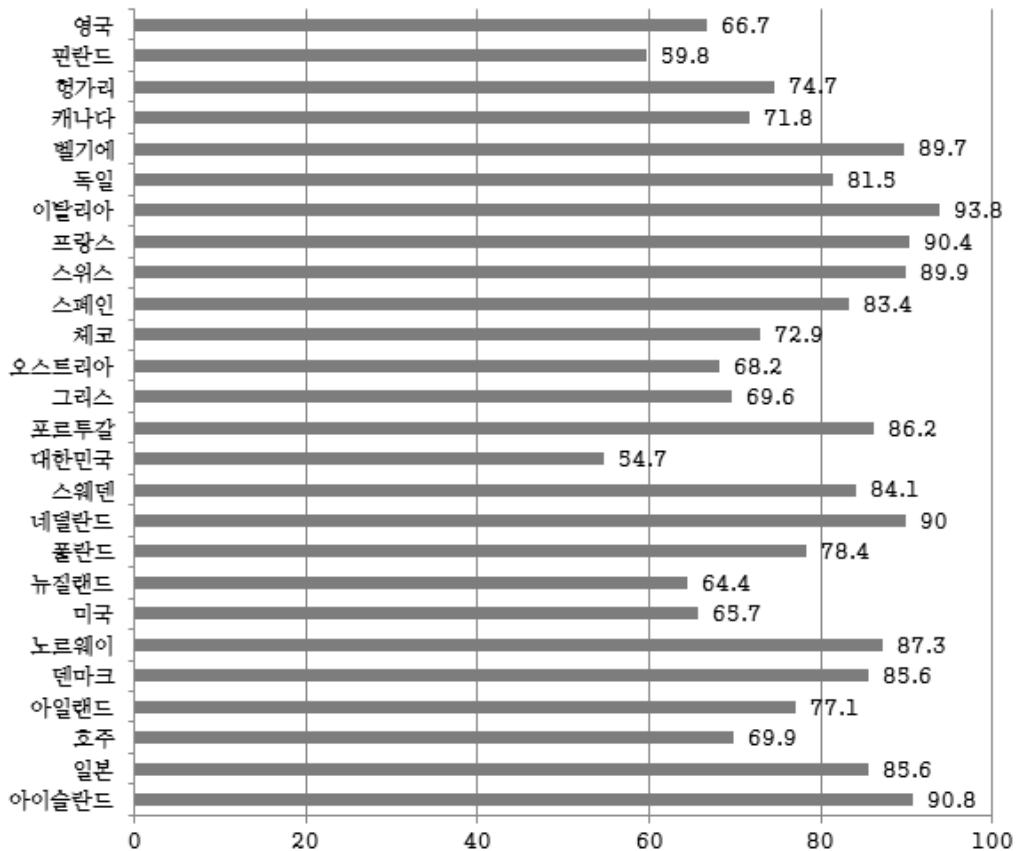
2.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54.7%로, OECD 국가평균 78.16%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함께 식사하기] 단위: %

함께 식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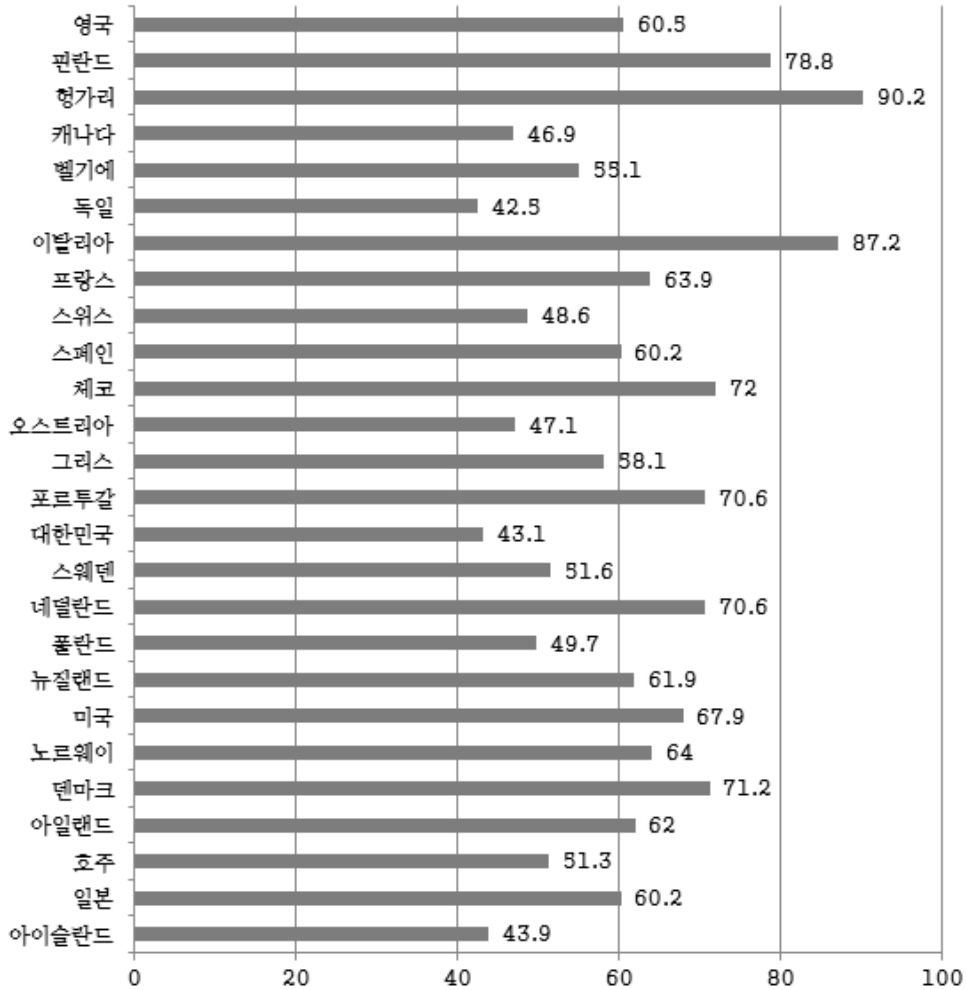
[함께 식사하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식사하기	78.16	10.92432	54.7	93.8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43.1%로, OECD 국가 평균(60.73%)보다 매우 낮았다.

[함께 대화하기] 단위: %

함께 대화하기



[함께 대화하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대화하기	60.73	12.93989	42.5	90.2

3.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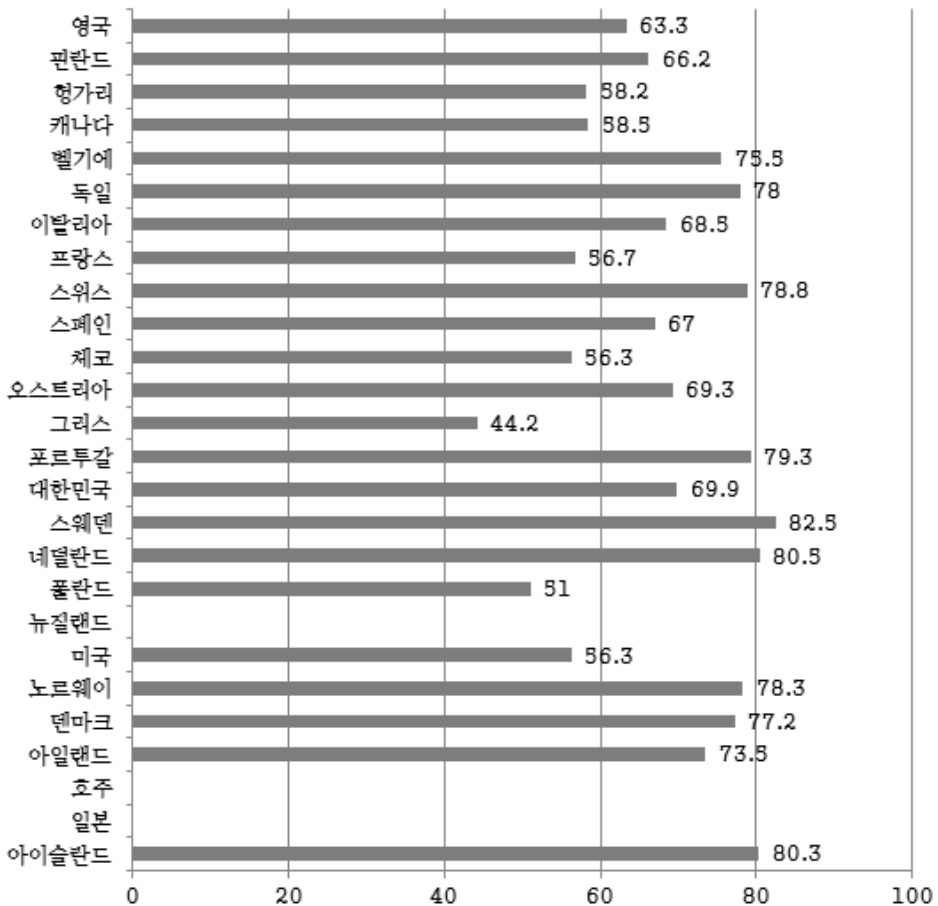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69.9%로 OECD 국가 평균 68.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친절한 급우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친절한 급우관계	68.23	10.89873	44.2	82.5

V.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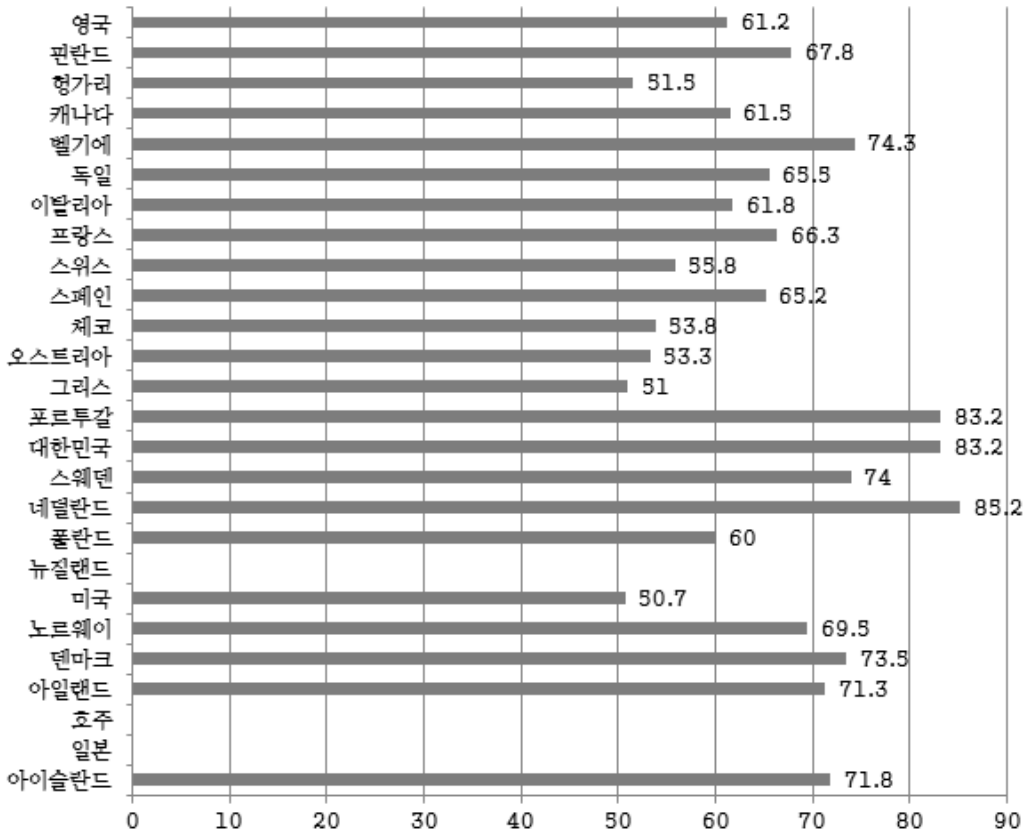
1. 건강행동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 아침식사를 하는 어린이 비율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과체중: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비율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

-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의 경우 한국은 83.2%로, OECD 국가 평균(65.71%)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단위: %

아침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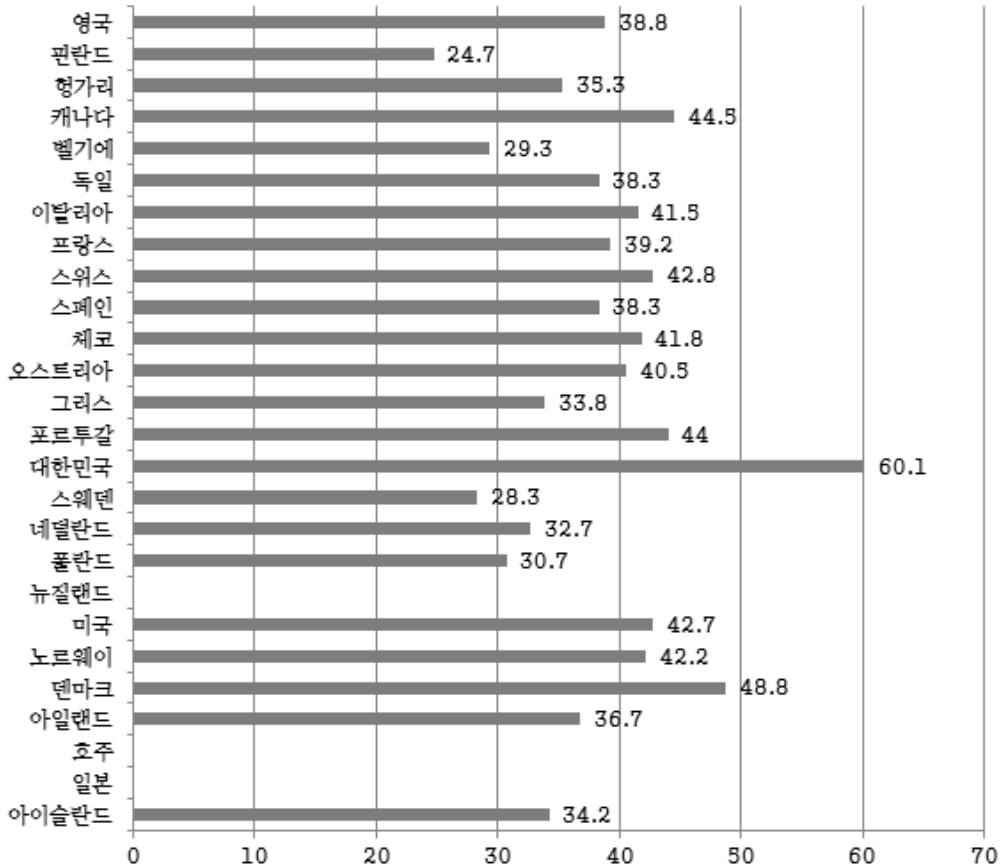
[아침식사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침식사	65.71	10.45815	50.7	85.2

- 과일섭취 비율도 한국이 60.1%로 OECD 국가 평균(38.6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섭취] 단위: %

과일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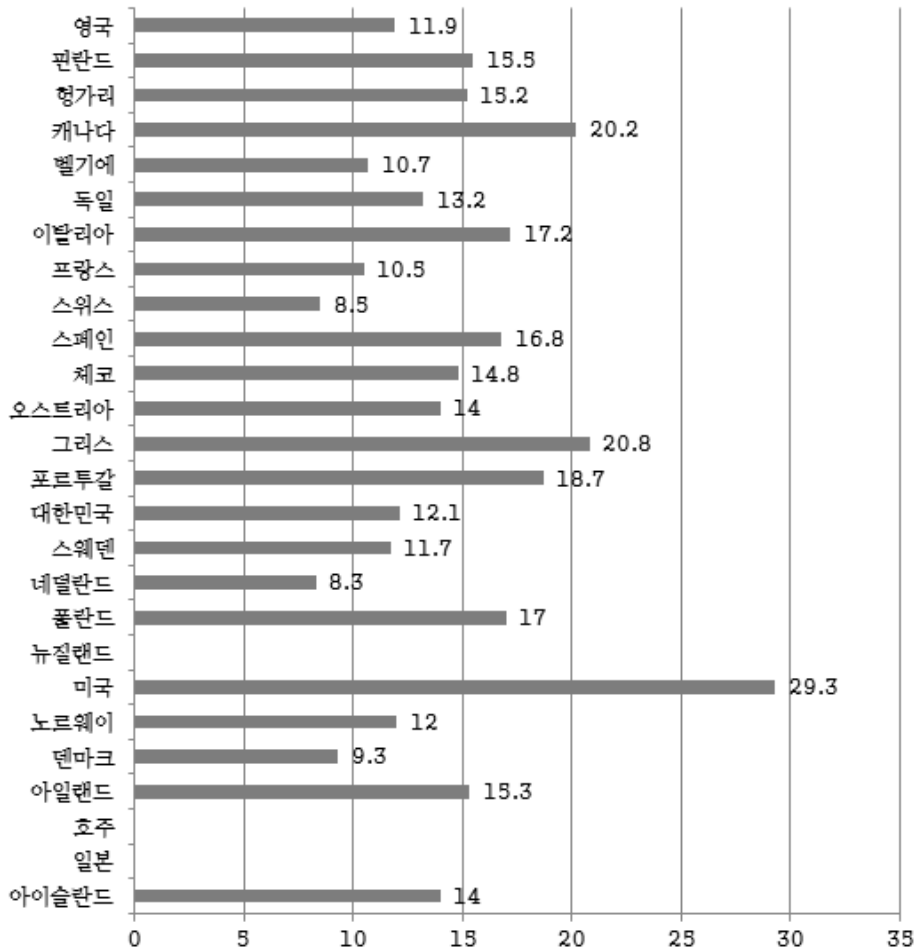
[과일섭취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일섭취	38.66	7.50859	24.7	60.1

-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 비율은 한국의 경우 12.1%로 OECD국가 평균(14.65%)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체중] 단위: %

과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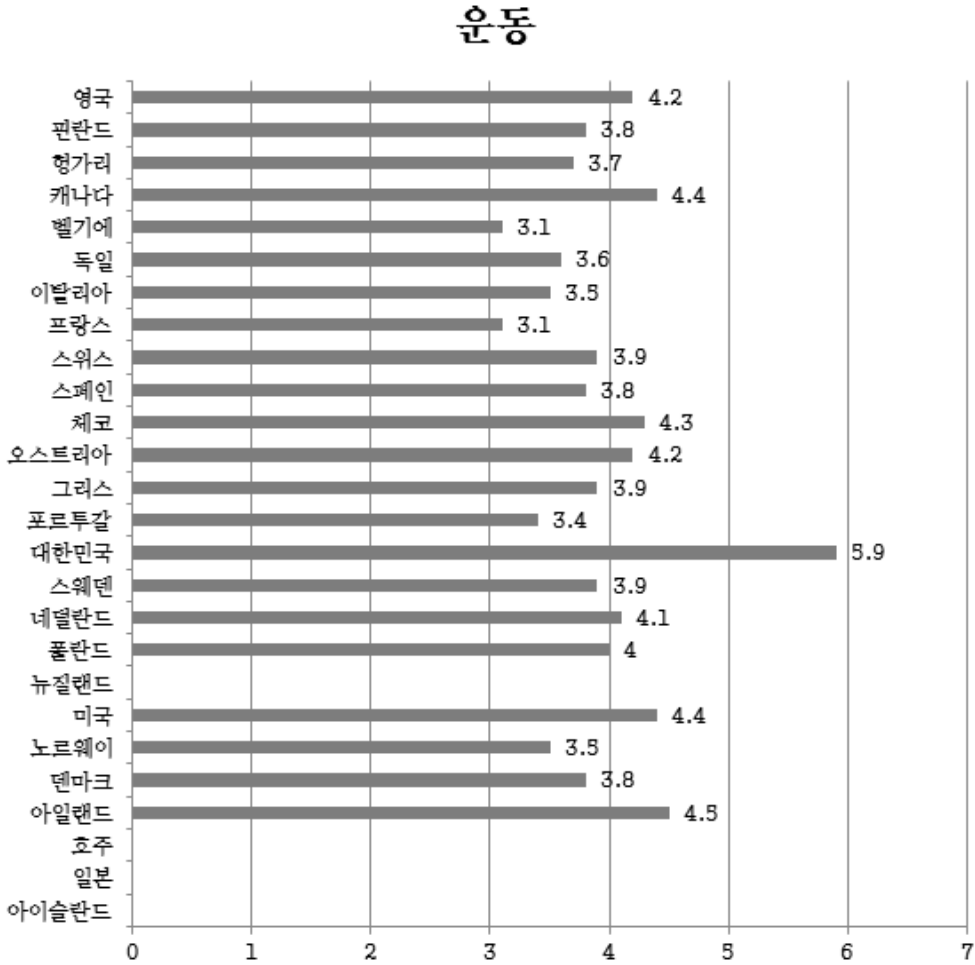


[과체중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체중	14.65	4.71987	8.3	29.3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의 경우 한국은 5.9일로 OECD국가 평균인 3.95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동] 단위: 일



[운동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운동	3.95	0.58532	3.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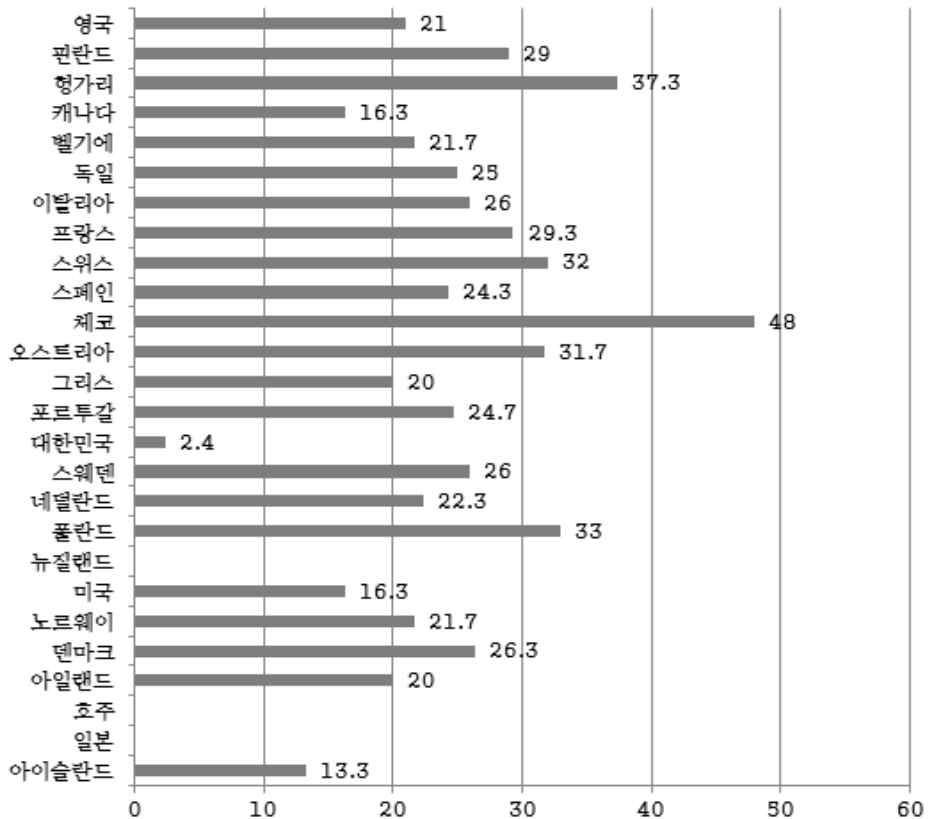
2. 위험행동

흡연: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음주: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마약: 11, 13, 15세의 마약사용 비율
 성관계: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콘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세 아동 비율
 임신과 출산: 십대 출산율
 싸움: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왕따: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학생에 의해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 아동·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2.4%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흡연] 단위: %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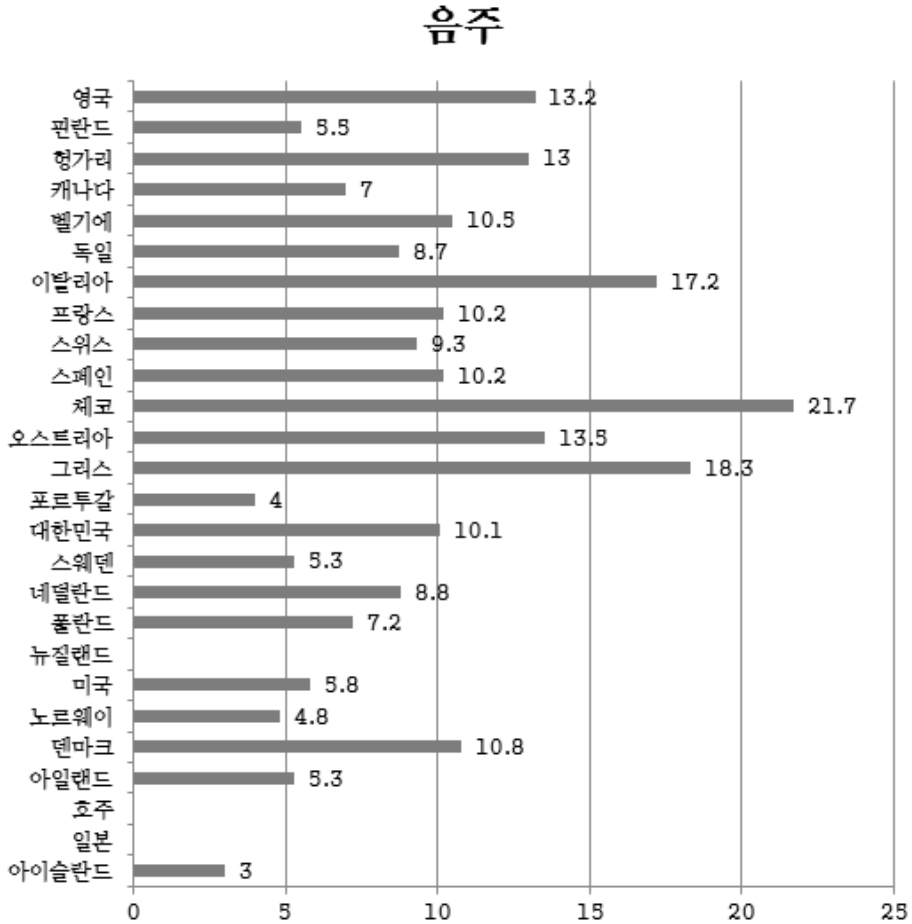


[흡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흡연	24.68	8.96625	2.4	48

- 한국 아동·청소년의 음주경험 비율은 10.1%로 OECD 국가 평균(9.7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음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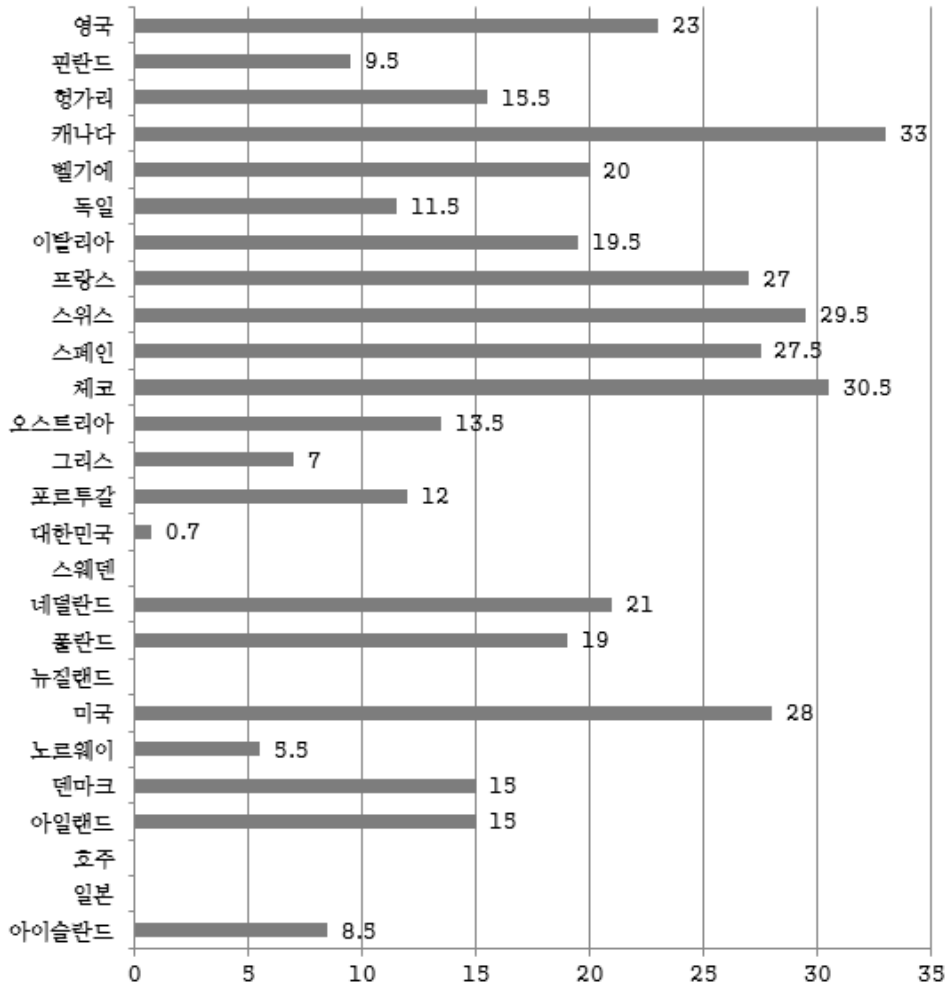
[음주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음주	9.71	4.78048	3	21.7

- 한국 아동·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0.69%로 OECD 국가 평균(17.8%)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약] 단위: %

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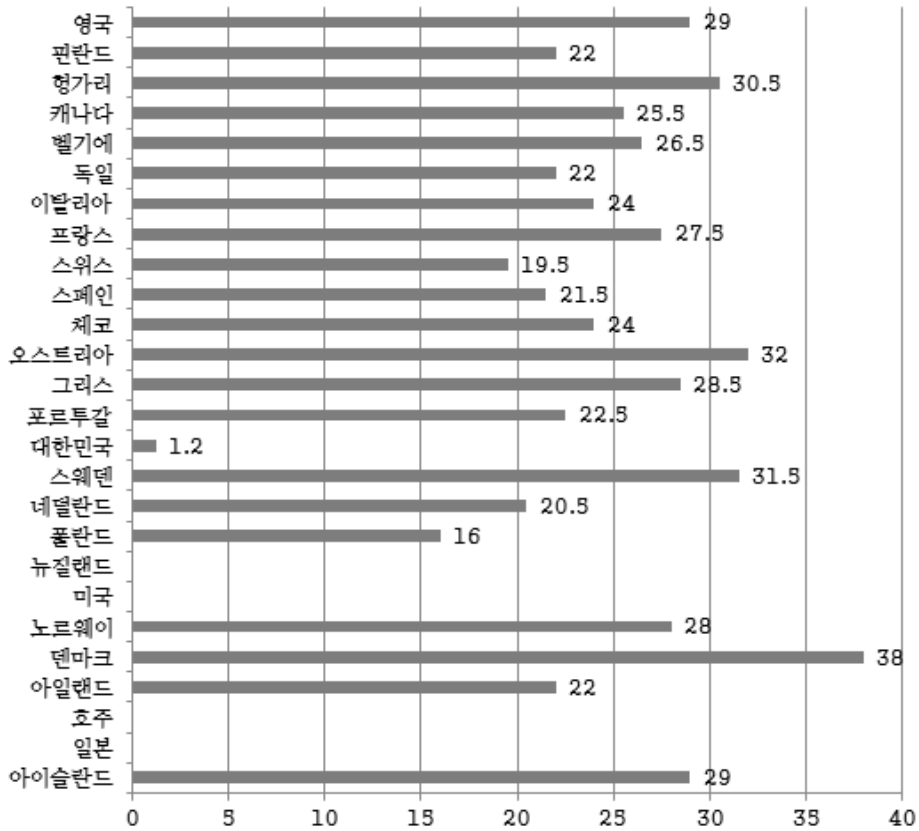
[마약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마약	17.80	8.96275	0.7	33

- 한국 십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1.2%로, OECD 국가 평균(24.60%)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단위: %

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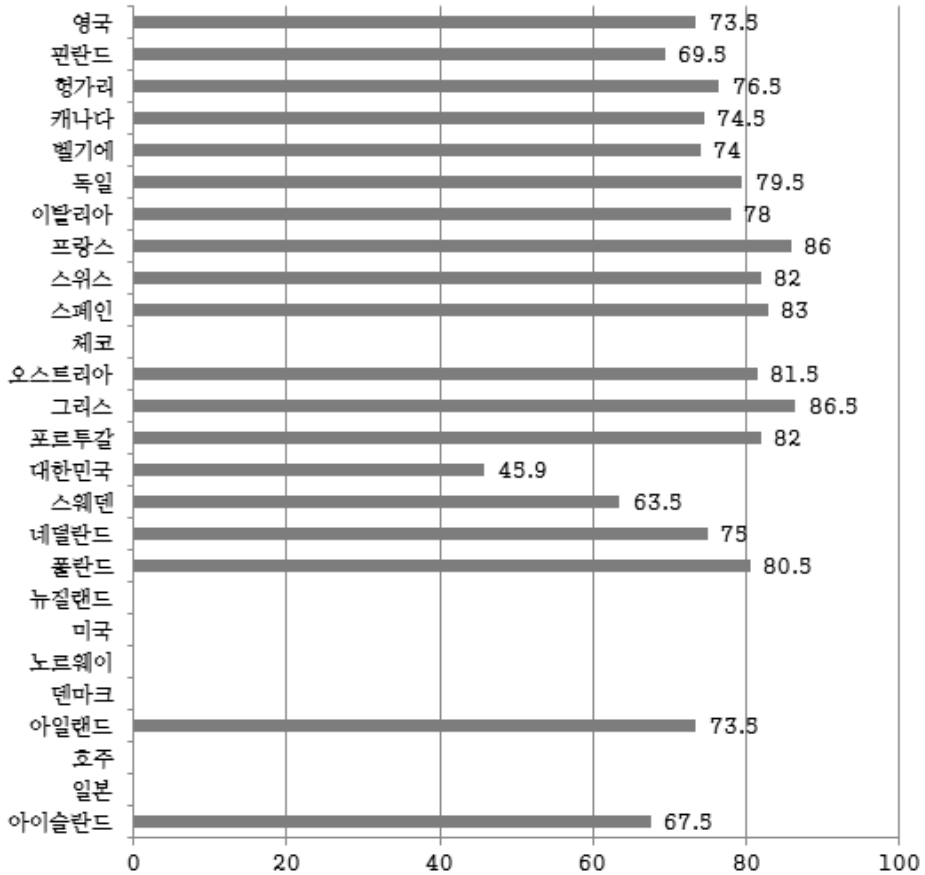
[성관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성관계	24.60	7.21909	1.2	38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45.9%로, OECD 국가평균 75.3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 단위: %

콘돔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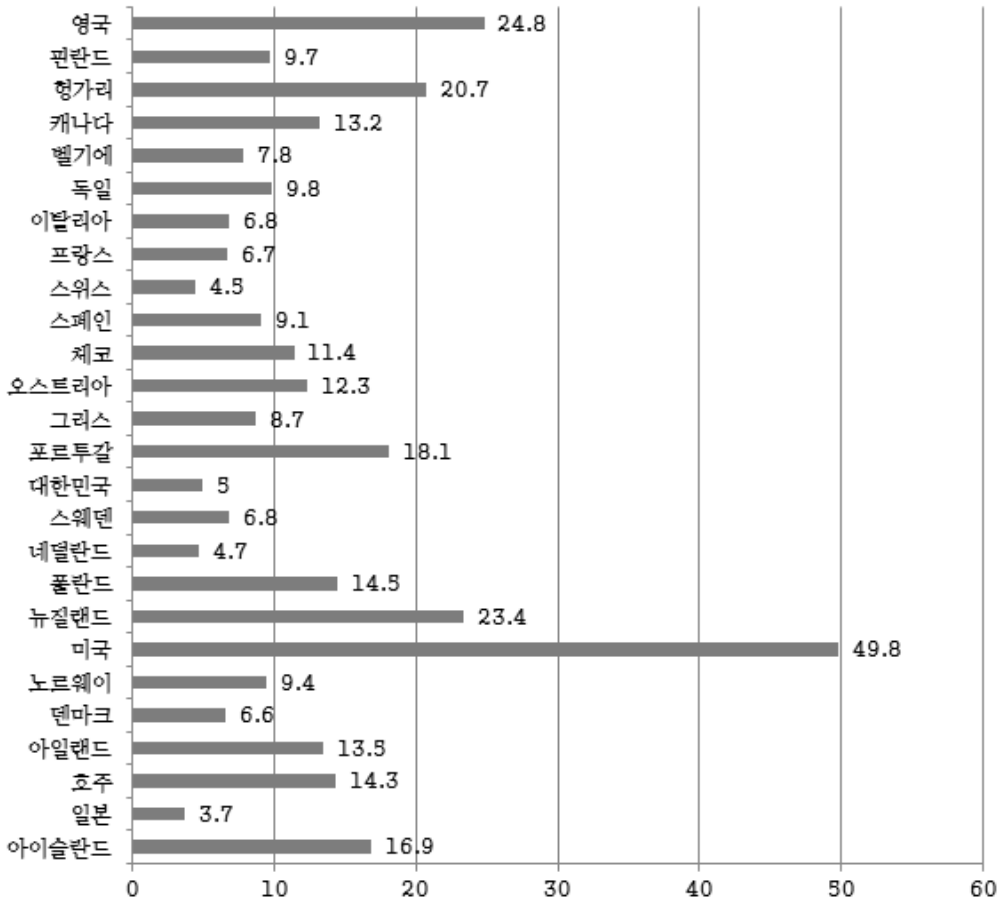
[콘돔사용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콘돔 사용	75.39	9.39172	45.9	86.5

- 한국 십대의 출산비율은 5%로 OECD 국가 평균(12.7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신과 출산] 단위: %

임신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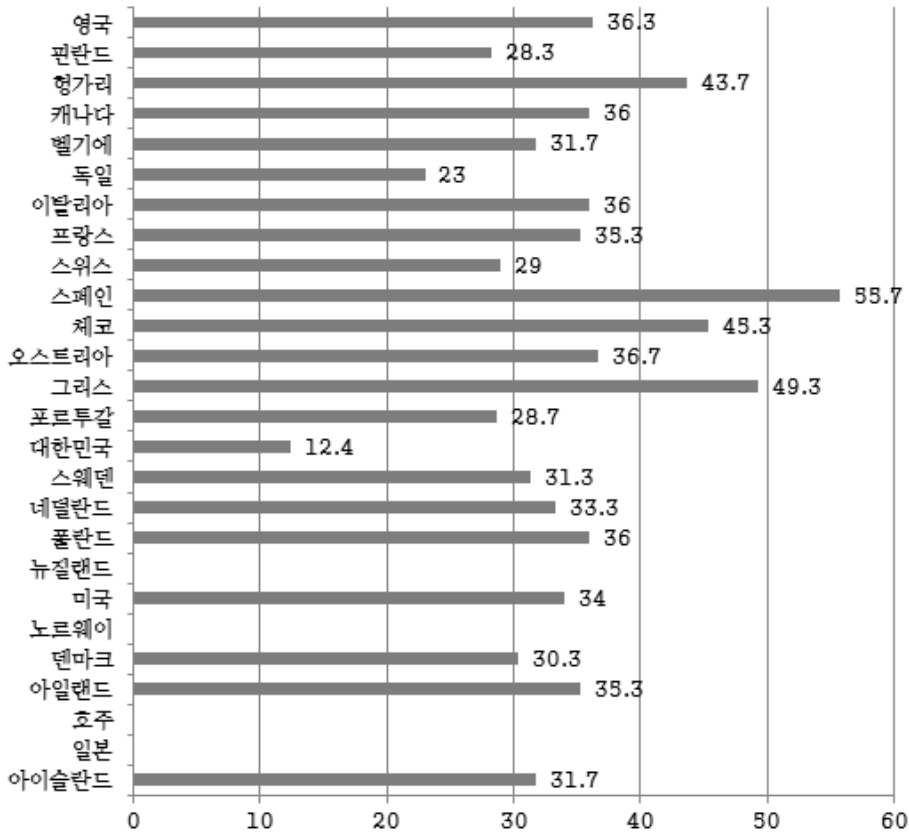
[임신과 출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임신과 출산	12.78	9.49131	3.7	49.8

- 지난 12개월간 싸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2.4%로 OECD 국가 평균(34.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싸움] 단위: %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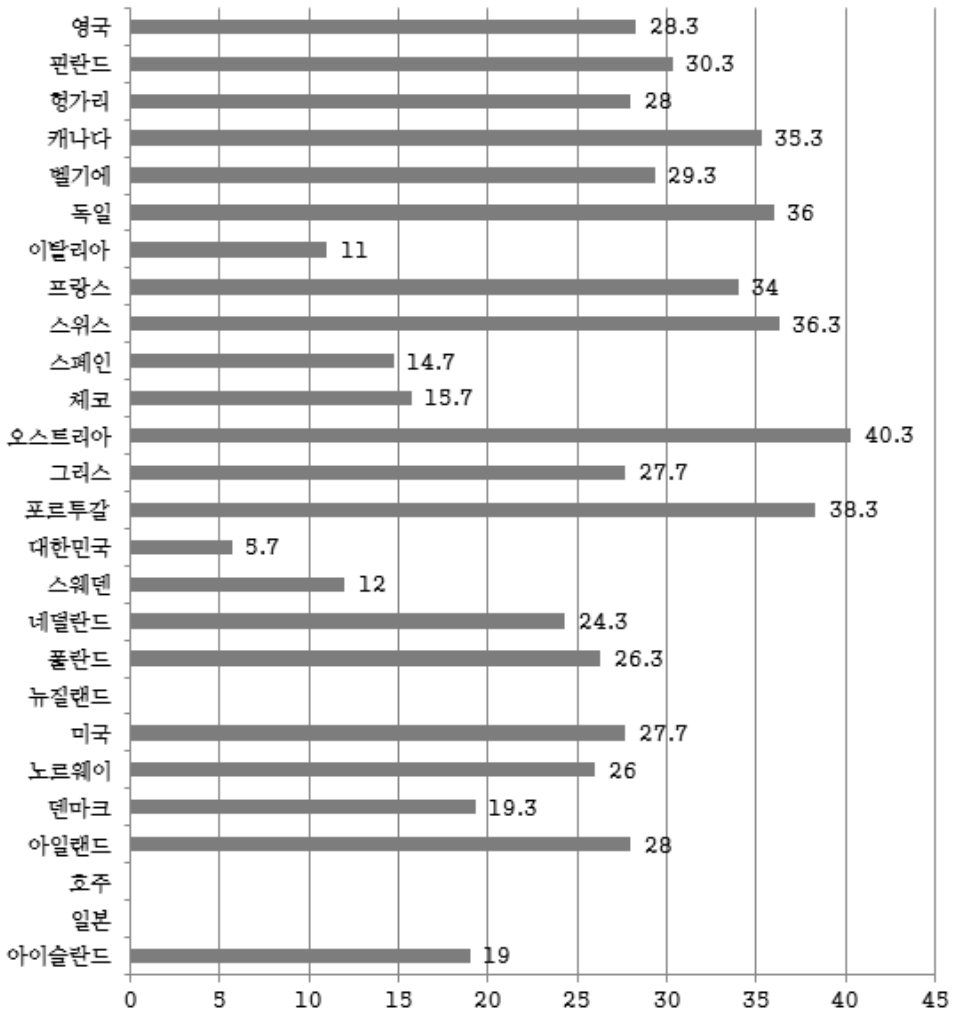
[싸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싸움	34.51	8.87508	12.4	55.7

- 지난 12개월간 왕따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5.7%로, OECD 평균 25.80%보다 크게 낮았다.

[왕따] 단위: %

왕따



[왕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왕따	25.80	9.35091	5.7	40.3

VI.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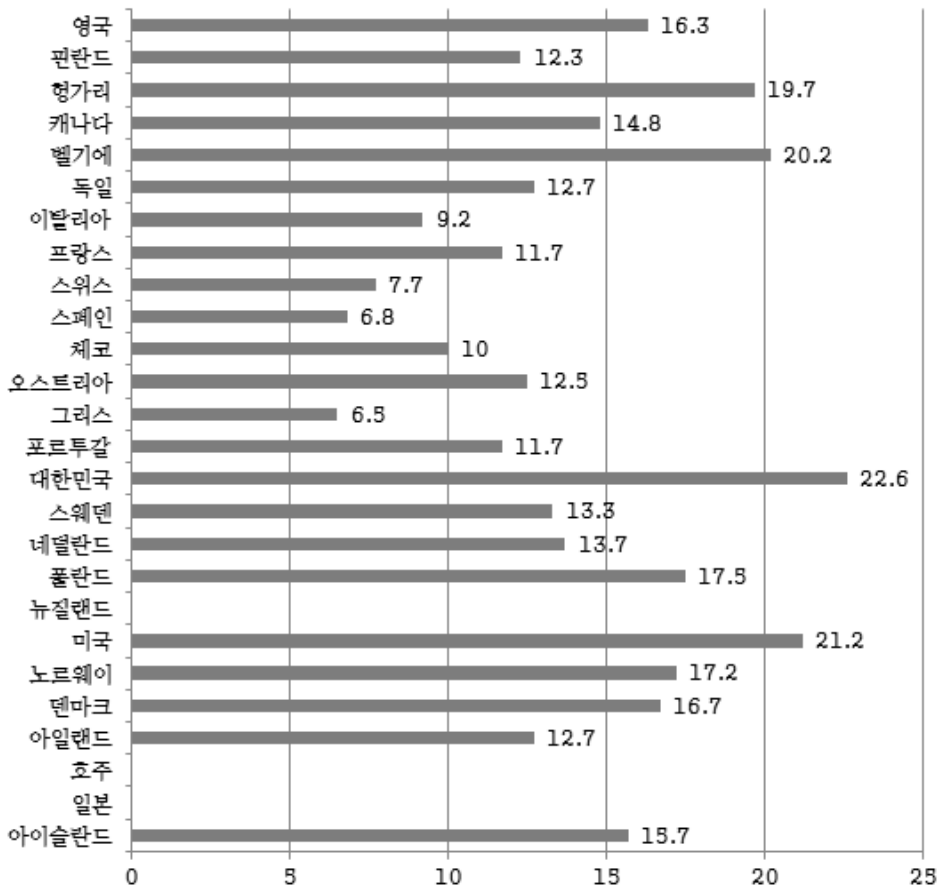
1. 건강

주관적 건강
: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22.6%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단위: %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주관적 건강	14.03	4.48132	6.5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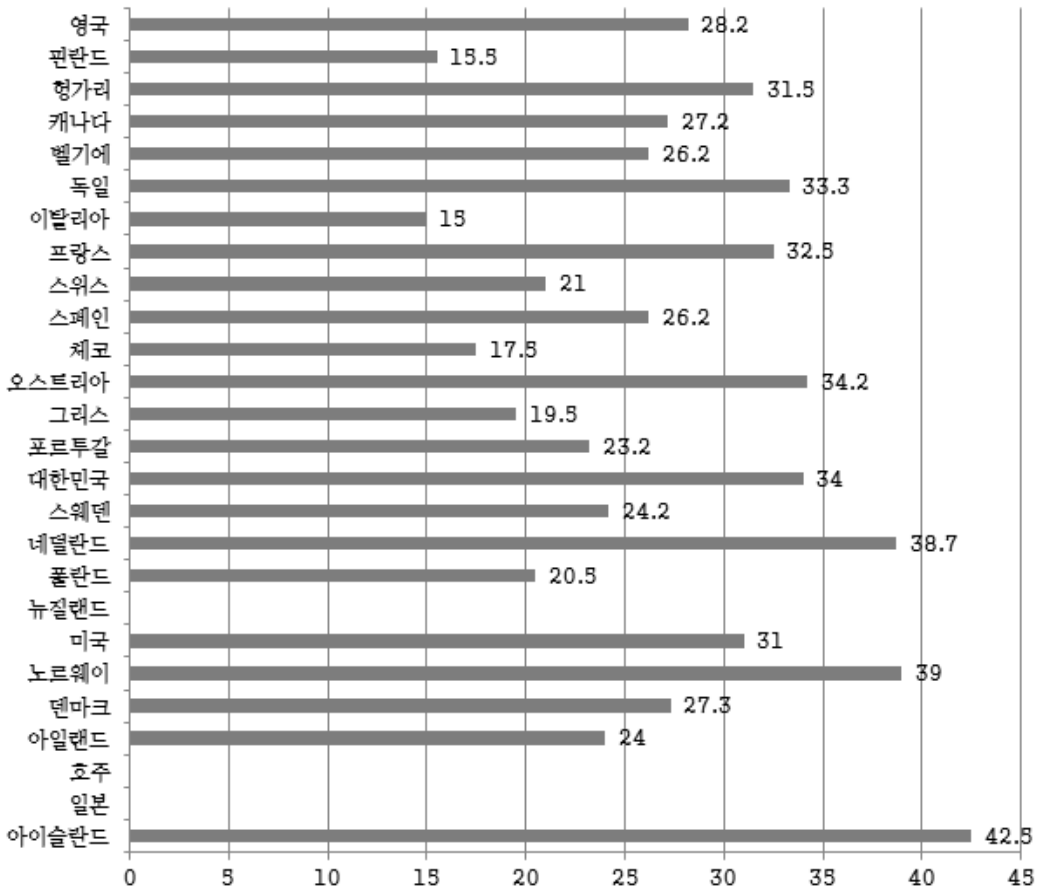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34%로 OECD 국가 평균(27.49%)보다 높았다.

[학교만족] 단위: %

학교만족도



[학교만족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교 만족	27.49	7.56140	15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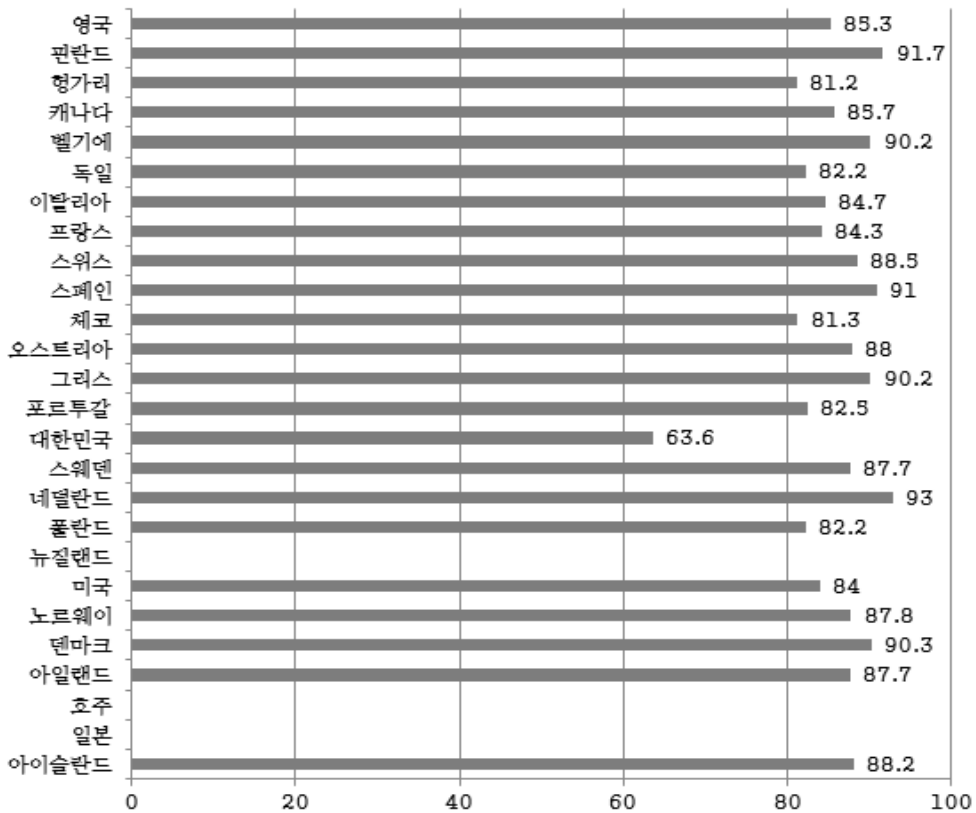
3.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
 부정적 생각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63.6%로, OECD 국가 평균(85.71%)보다 크게 낮았다.

[삶의 만족] 단위: %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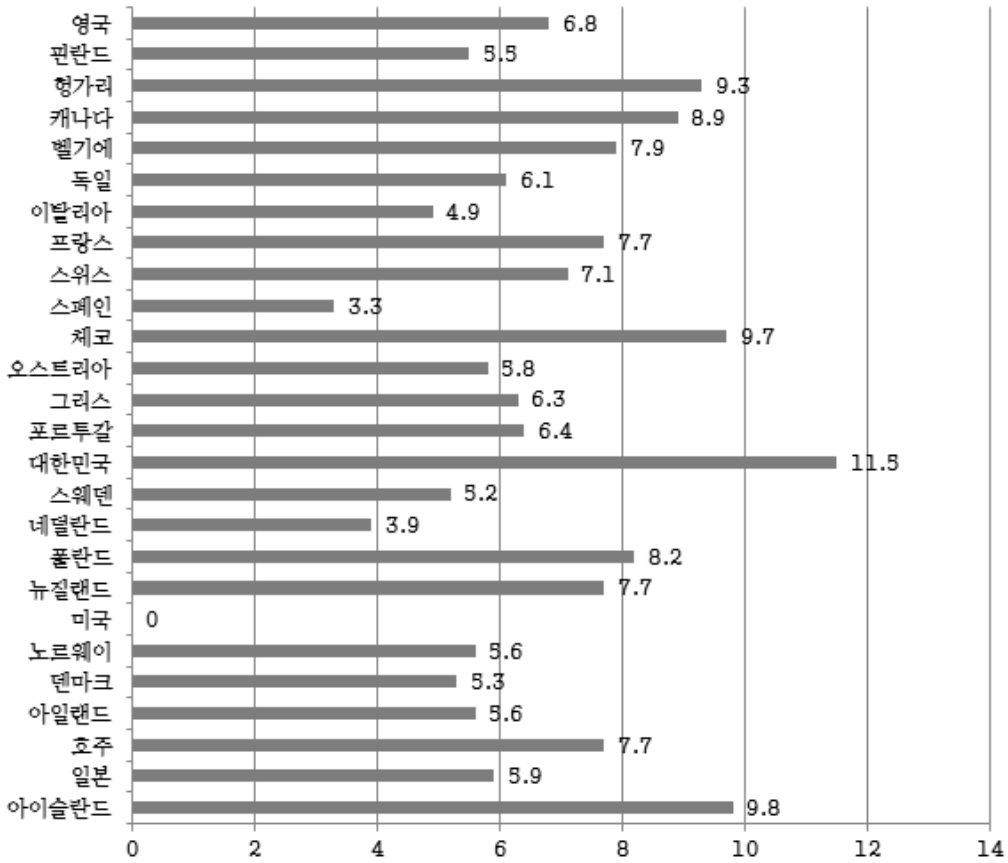
[삶의 만족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삶의 만족	85.71	5.95284	63.6	93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은 한국이 11.5%로, OECD 국가 평균(6.62%)보다 약 2배 높았다.

[소속감] 단위: %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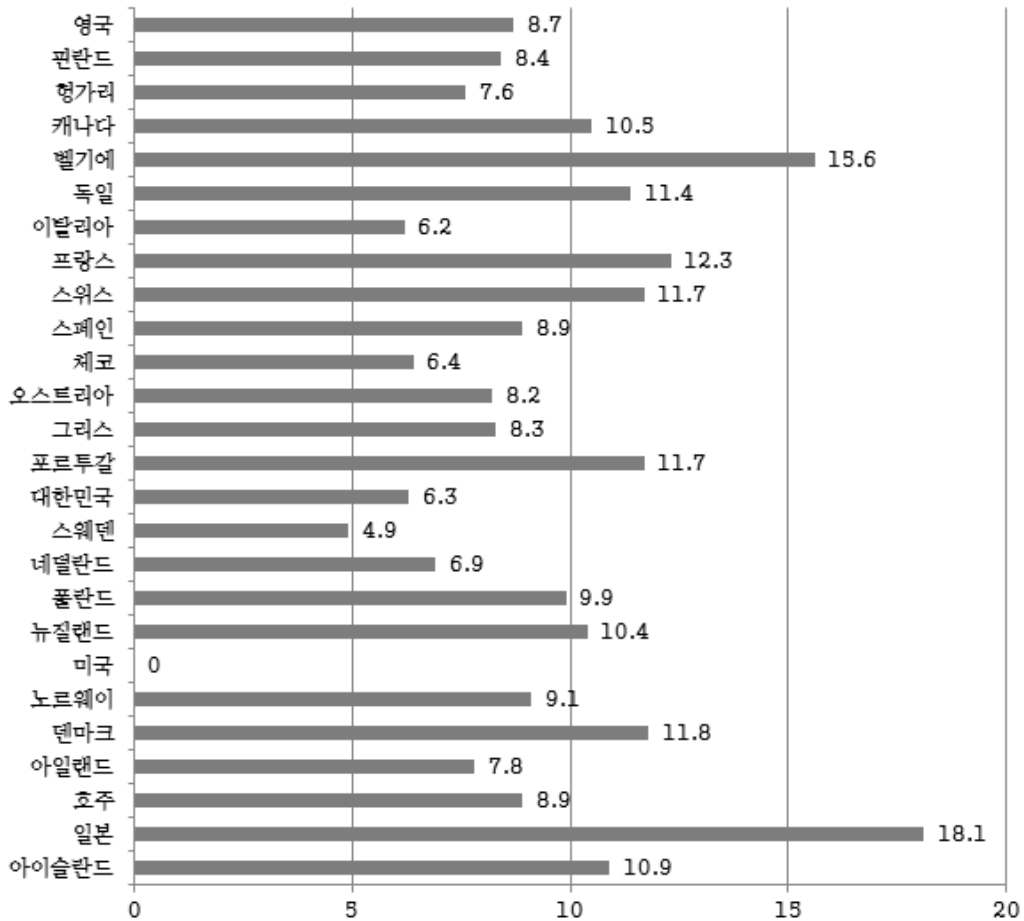
[소속감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6.62	2.34606	0	11.5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이 6.3%로 OECD 국가 평균(9.27%)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어울림] 단위: %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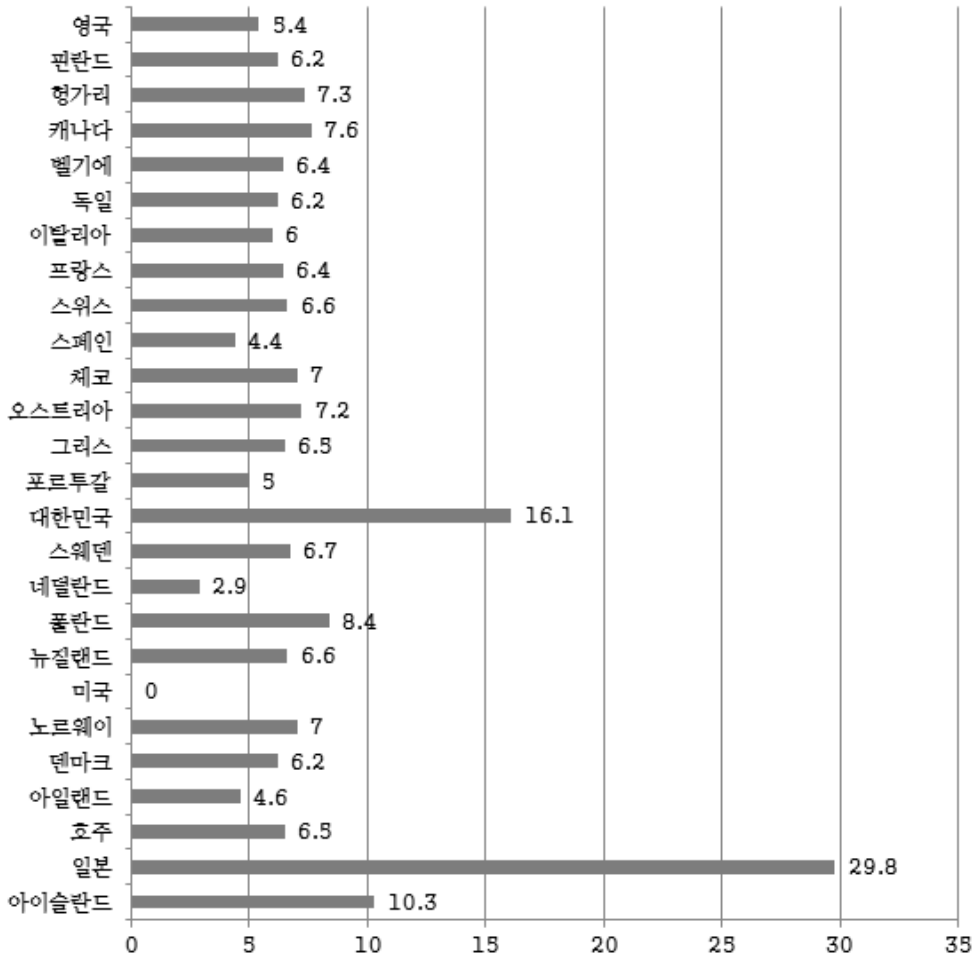
[어울림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9.27	3.47194	0	18.1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6.1%로, OECD 평균(7.4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외로움] 단위: %

외로움



[외로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외로움	7.43	5.29346	0	29.8

VII. 행복지수 분석

- 2012년 OECD 국가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교육 영역’과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각각 133.9와 126.6(OECD국가 평균=100)으로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물질적 행복’과 ‘보건과 안전’ 영역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한 한편,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영역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주관적 행복 영역은 7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최하위국	80.4	77.3	79.5	80.2	81.5	71.4
대한민국	110.1	102.6	133.9	96.7	126.6	71.4
최상위국	119.3	118.2	133.9	115.8	126.6	116.9

영역별 OECD 국가의 행복지수 (평균 = 100)

국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한국	110.1	102.6	133.9	96.7	126.6	71.4
포르투갈	93.0	88.6	104.8	114.9	104.2	100.5
그리스	95.7	105.3	103.6	93.4	93.7	110.9
오스트리아	113.6	85.6	79.5	91.9	98.9	105.6
체코	112.0	105.2	96.1	91.0	81.5	100.7
스페인	107.0	101.9	98.8	107.8	94.6	116.9
스위스		103.0	97.4	107.1	96.8	105.5
프랑스	104.5	104.2	100.6	97.3	97.1	101.5
이탈리아	100.7	102.8	104.2	120.2	92.8	107.2
독일	95.4	104.3	93.7	100.7	101.4	102.1
벨기에	98.3	96.6	108.6	103.1	99.3	86.1
캐나다		85.5	105.4	84.9	99.5	93.7
헝가리	92.0	94.4	94.1	99.4	88.8	89.1
핀란드	119.3	114.4	103.1	95.1	98.2	102.1
영국	93.2	95.1	91.6	86.1	97.1	97.4
아이슬란드		118.0		101.5		97.3
일본	99.9	106.1				
호주		98.5	105.0			
아일랜드		101.4	100.7	103.8	106.3855	104.0
덴마크		94.4	88.1	103.7	114.3	95.5
노르웨이		106.6	88.7	107.6	111.5	100.8
미국	80.4	77.3	101.4	80.2		106.4
뉴질랜드	94.8	85.5	101.9			
폴란드	85.9	97.2	99.2	93.1	89.5	86.5
네덜란드	104.1	107.4	106.8	115.8	107.8	114.1
스웨덴		118.2	92.9	104.7		104.9

제 4 장

학교폭력

경험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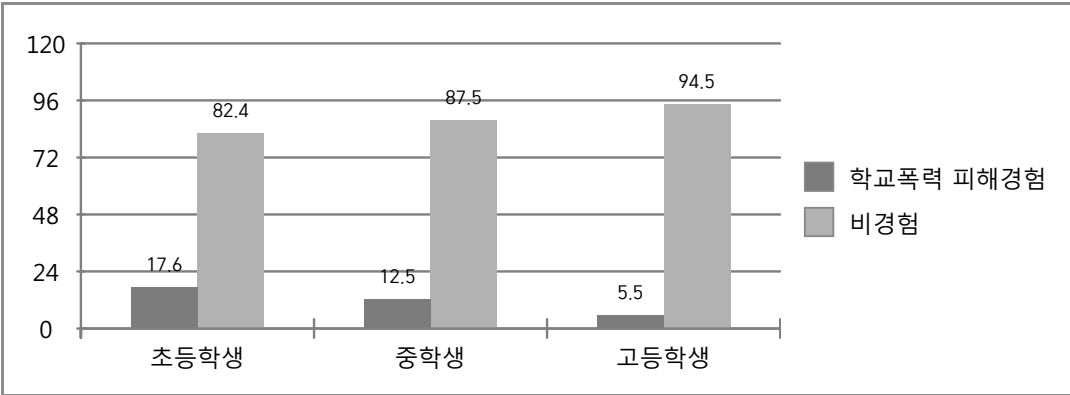


I. 학교폭력 피해경험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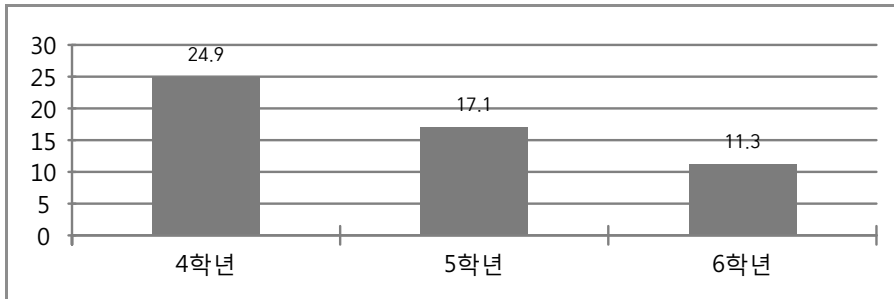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경험 분석에서 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높은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학생(12.5%)이며, 고등학생은 5.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교급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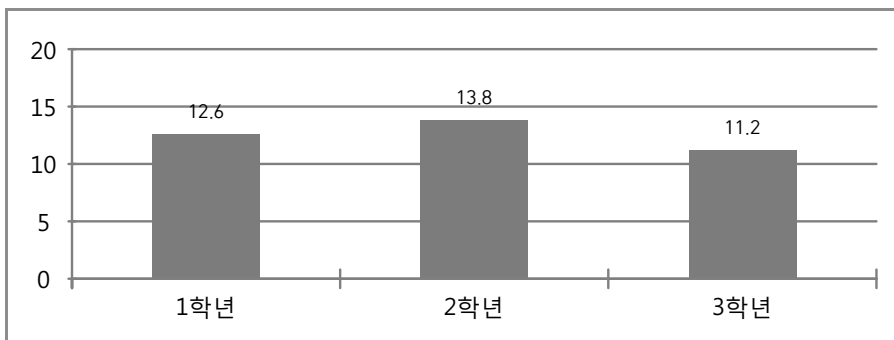
또한, 학년별 분석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학년이 낮을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4학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학년으로 17.1% , 6학년은 11.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초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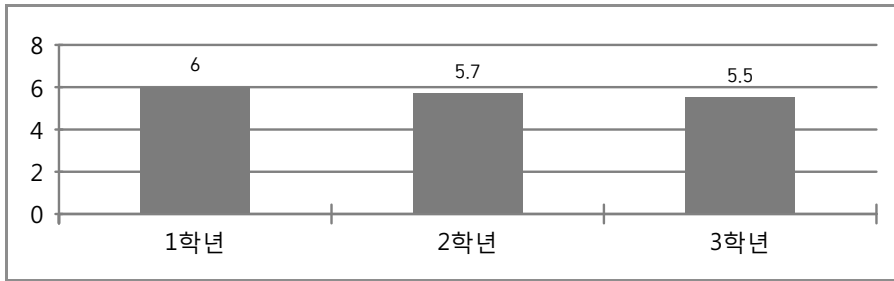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초등학생과는 달리, 학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은 1학년이 12.6%, 2학년 13.8%, 3학년은 11.2% 였다.

중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1학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6%로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은 5.7% 수준이었고, 3학년은 5.5%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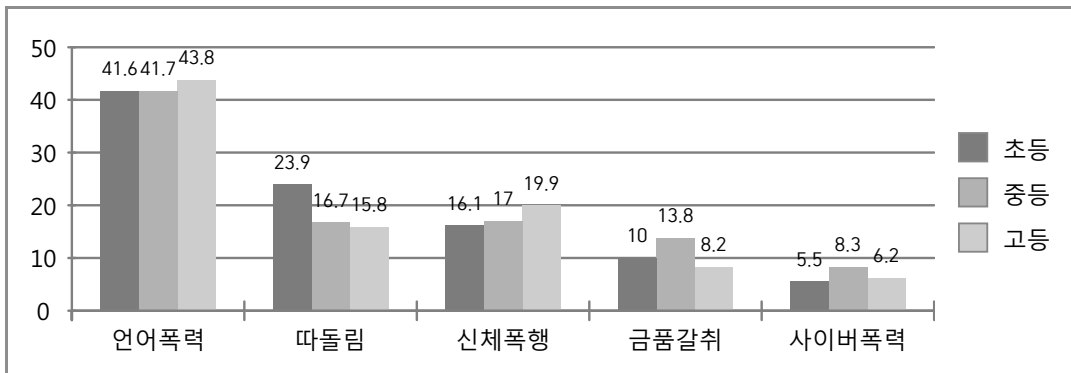
고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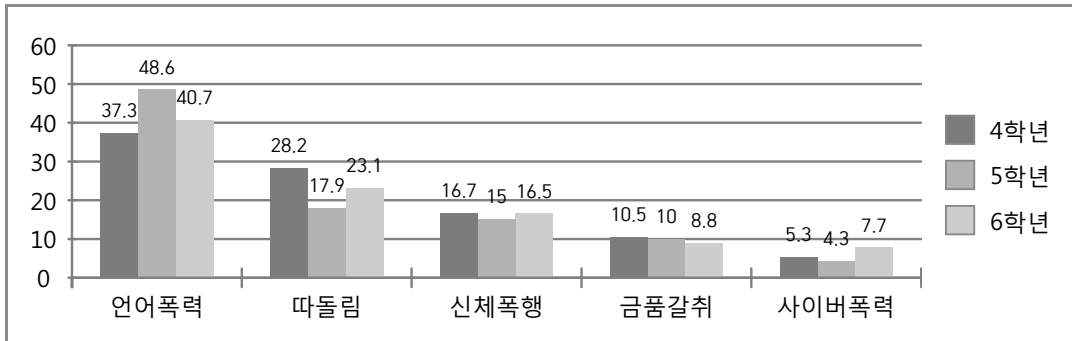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은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행,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순으로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언어폭력, 신체폭행,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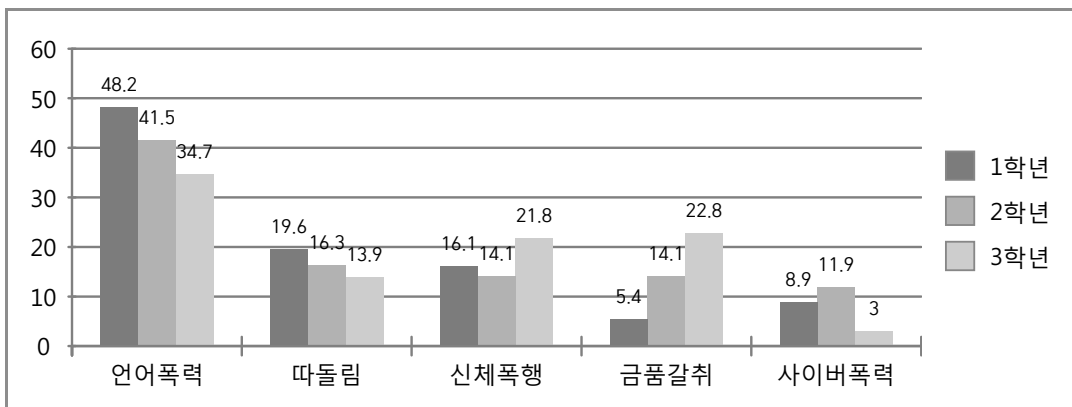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순위가 학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4학년, 5학년, 6학년이 모두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행,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순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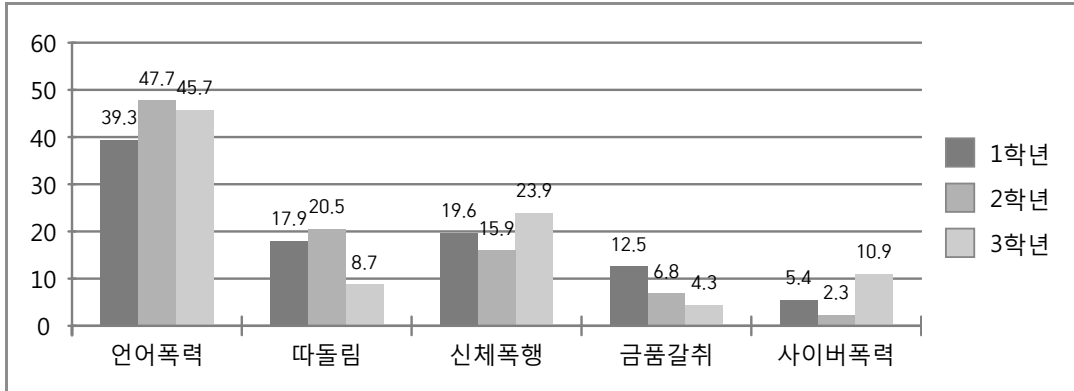
중학생 집단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순위가 학년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금품갈취 순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1학년에서는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행, 사이버 폭력, 금품갈취 순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행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순이었고, 3학년은 언어폭력, 금품갈취, 신체폭행, 따돌림, 사이버폭력 순이었다.

중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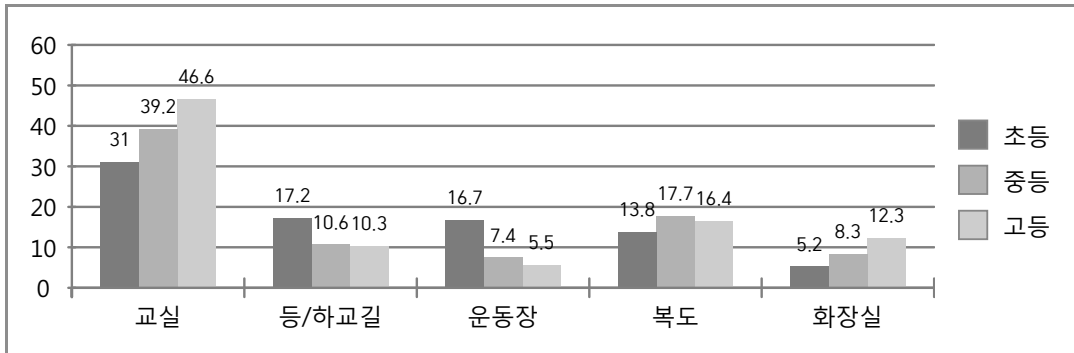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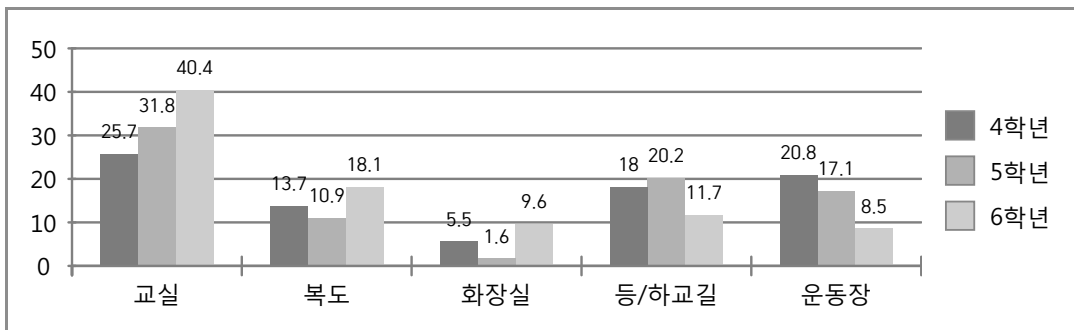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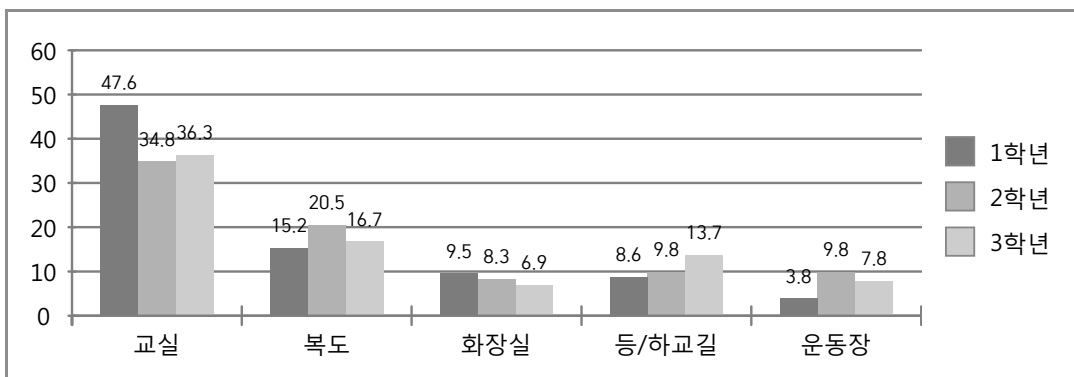
고등학생 집단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 순위를 살펴보면, 신체폭행 순위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신체폭행은 2학년을 제외하면, 고등학생들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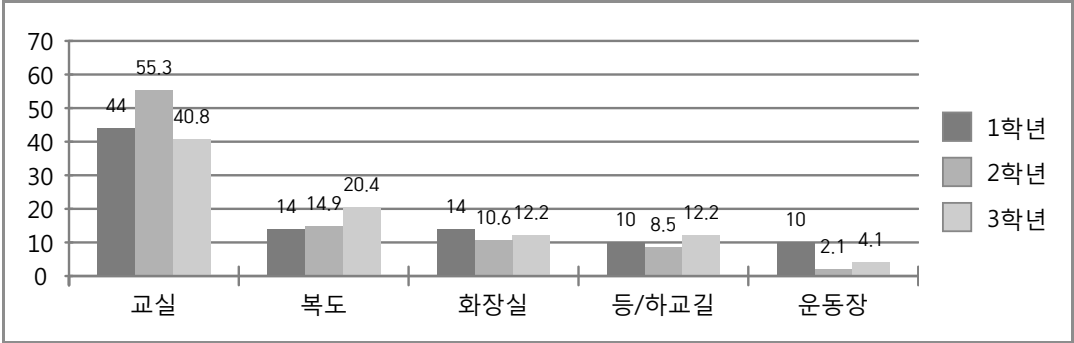


3. 학교폭력 경험 장소

학교폭력은 교급에 상관없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로 교실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등·하교길, 운동장, 복도, 화장실을 들었다. 중학생은 교실, 복도, 등·하교길, 화장실, 운동장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교실, 복도, 화장실, 등·하교길, 운동장 순이었다.

교급별 학교폭력 경험 장소

초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 장소

중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 장소


고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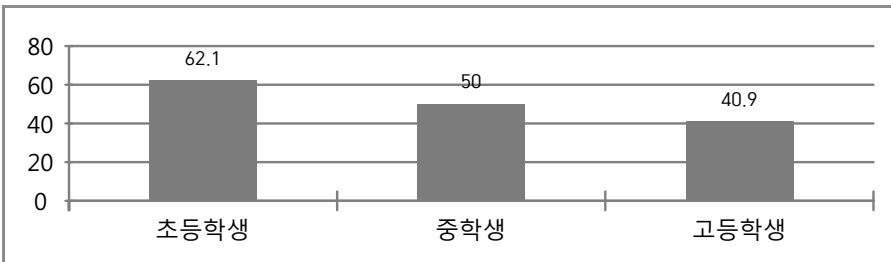


4. 학교폭력 피해경험시 도움요청 여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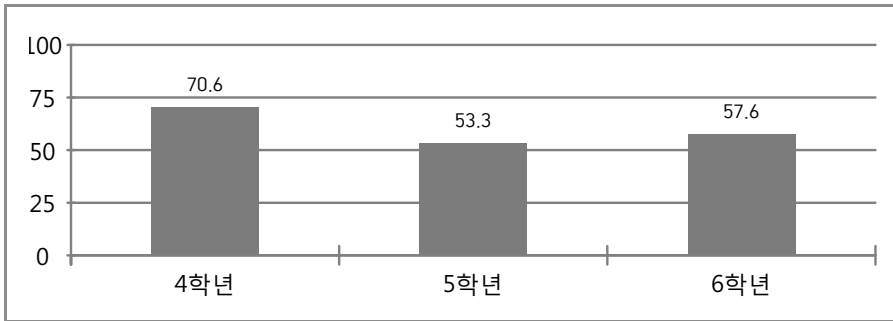
1) 학교폭력 피해경험시 도움요청 여부

학교폭력 피해 경험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62.1%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50%, 고등학생은 40.9%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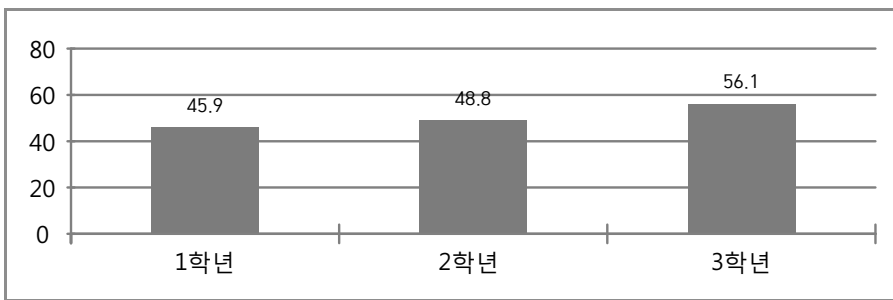
교급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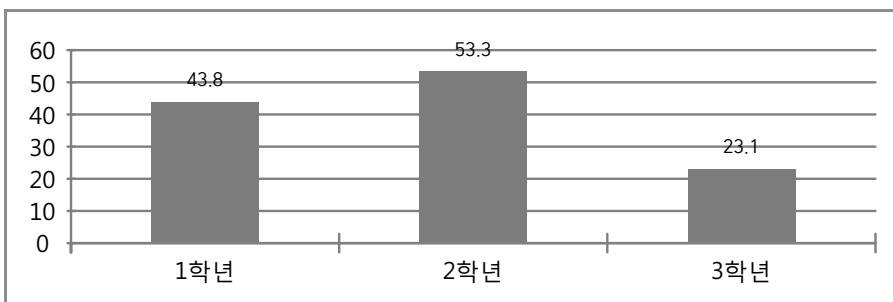
초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비율



중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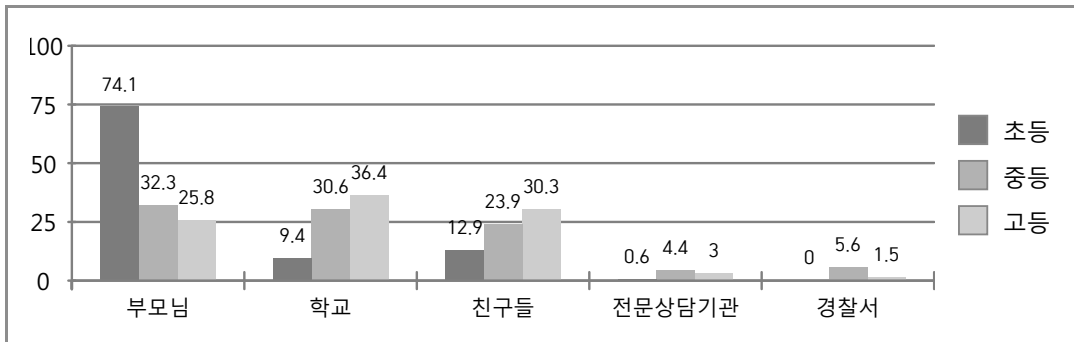
고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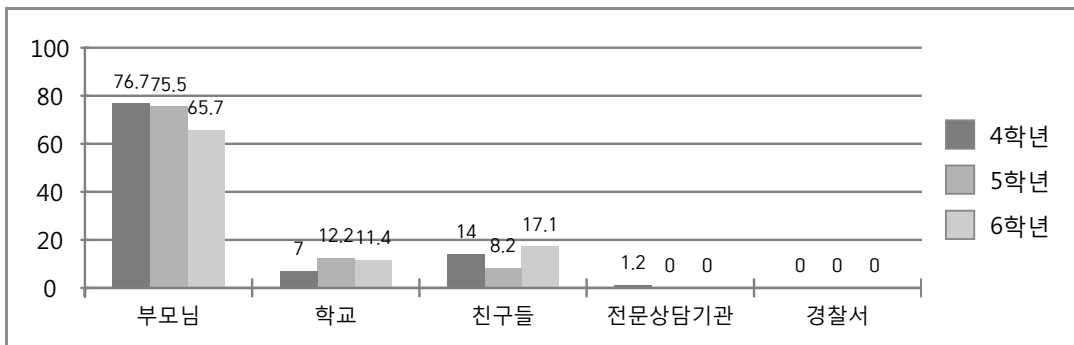
2) 학교폭력 피해경험시 도움요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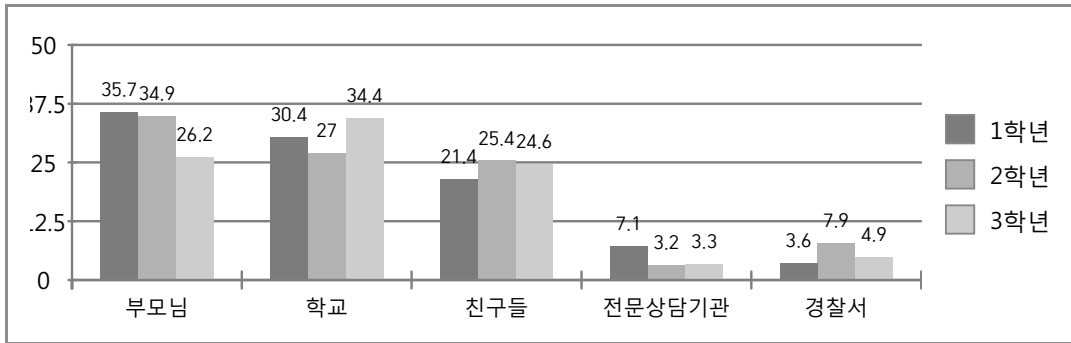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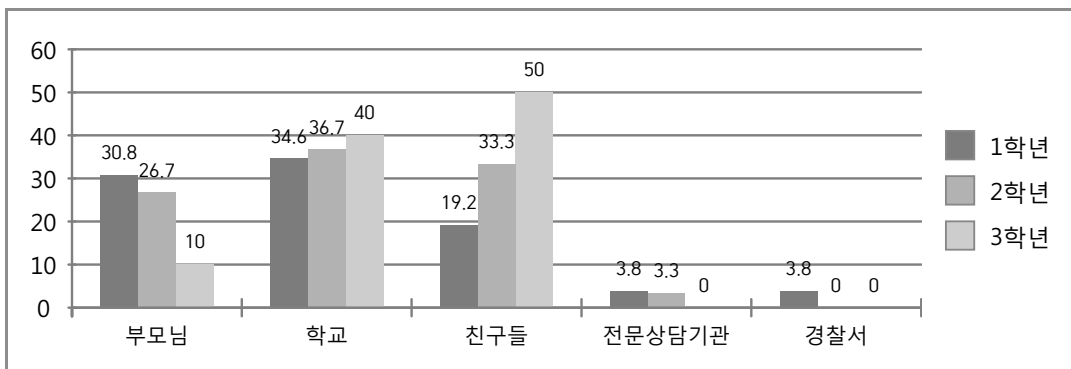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급별로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을 압도적으로 높게 선호한 반면, ‘전문 상담기관에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중학생 집단에서는 ‘부모님께 알린다’와 ‘학교에 알린다’는 응답이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에 알린다는 응답도 약 5.6%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은 ‘학교에 알린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친구들에게 알린다’, ‘부모님께 알린다’ 순이었다.

교급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방법



초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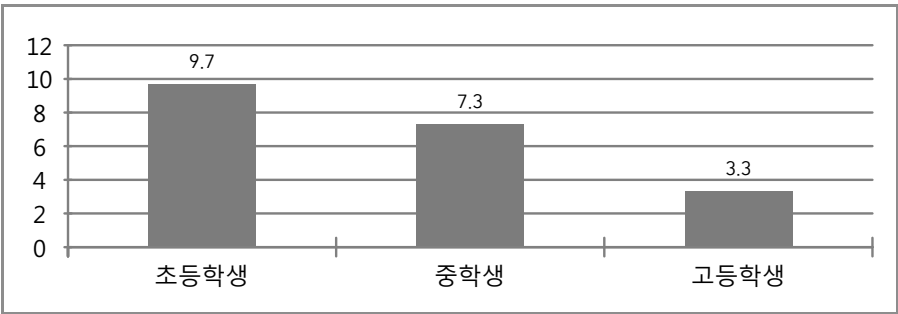


중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방법

고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경험시 도움요청 방법


Ⅱ. 학교폭력 가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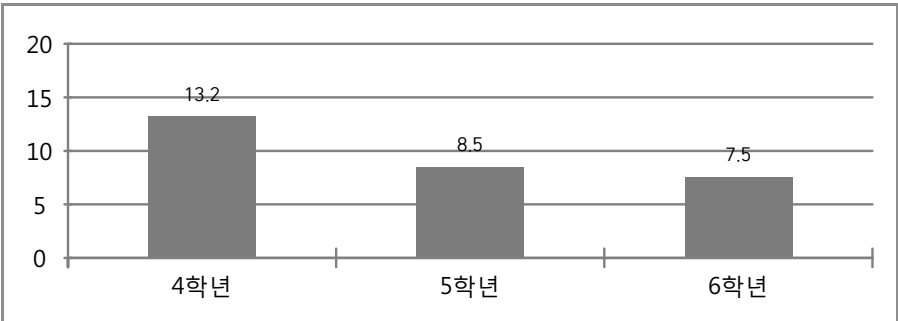
학교폭력 가해경험에서도 교급이 낮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은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가해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약 10명중 1명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은 7.3%, 고등학생은 3.3% 였다.

교급별 학교폭력 가해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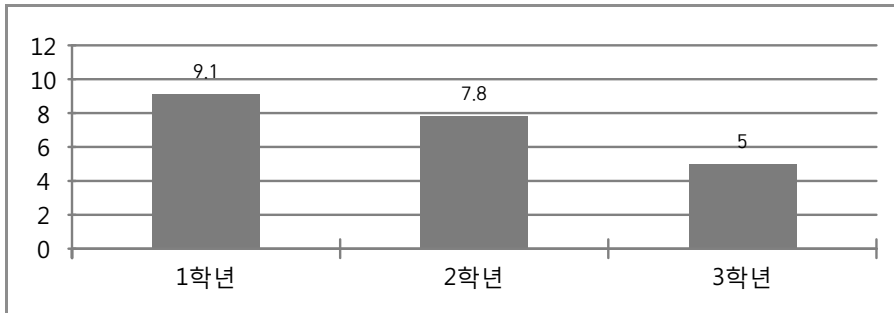
초등학생 분석에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고학년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이 4학년이 1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학년, 6학년 순이었다.

초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가해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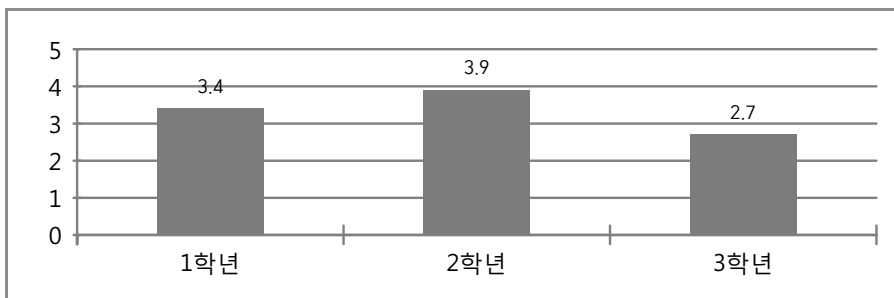


중학생의 경우에도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비율이 낮은 현상이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1학년이 가장 높은 한편, 3학년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가해경험 비율



고등학생 : 학년별 학교폭력 가해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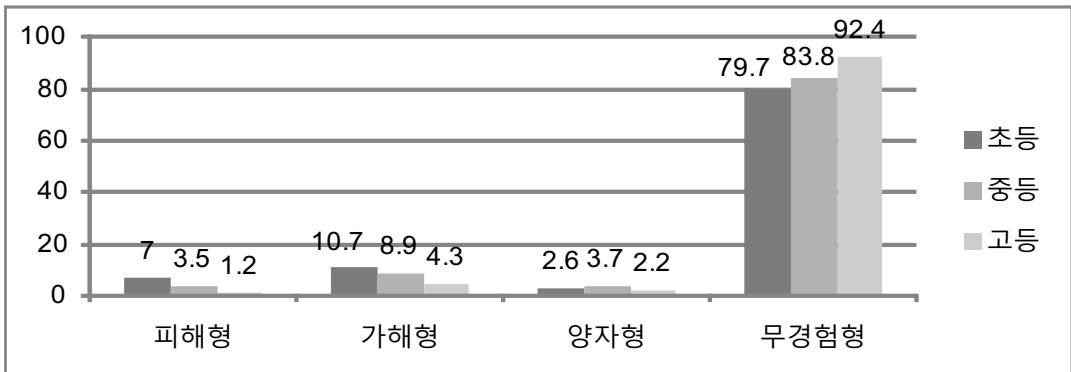


III.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주관적 행복

본 절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유형을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분석했다. 즉, 행복지수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영역 지표로 사용된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이 학교폭력 경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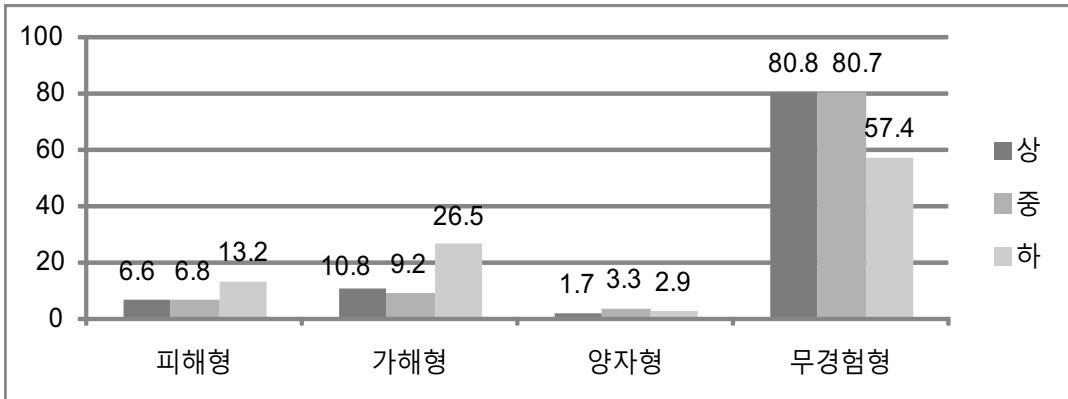
먼저, 학교폭력 경험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무경험형이 교급에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가해형 비율도 피해형보다 높았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 순위에서 초등학생은 무경험형, 가해형, 피해형, 양자형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무경험형, 가해형, 양자형, 피해형 순이었다.

교급별 학교폭력 경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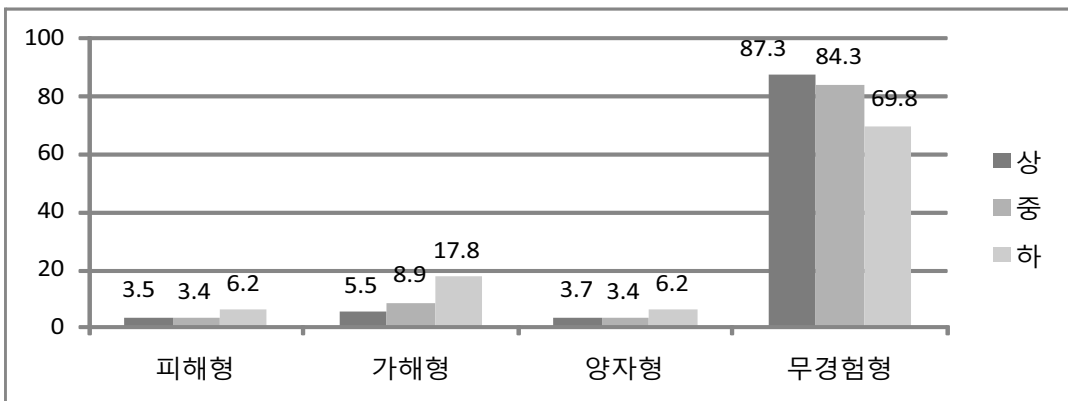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교폭력 경험 유형이 사회계층 및 학교성적에 따라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사회계층 범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 구분 역시 유의했다. 즉, 피해형, 가해형, 양자형 비율은 사회계층 및 학교성적의 하층 범주에서 가장 높았으며, 무경험형 비율은 사회계층 및 학교성적의 상층 범주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 계층별 학교폭력 경험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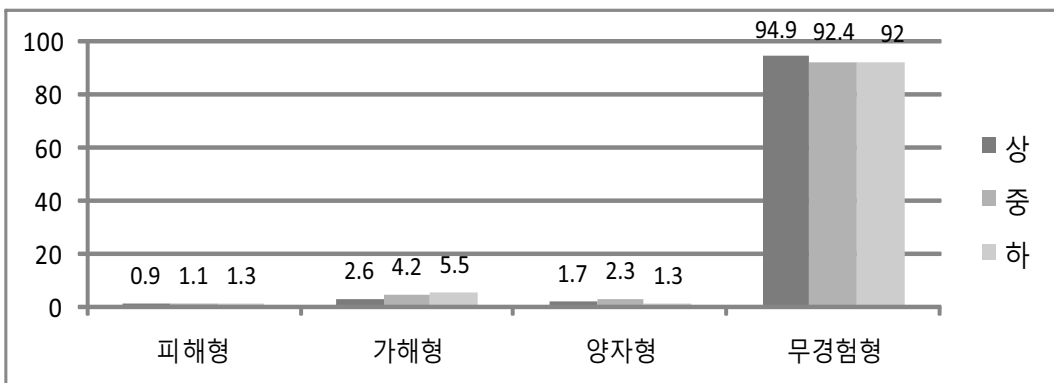
$\chi^2 = 29.478, p = .000$

중학생 : 계층별 학교폭력 경험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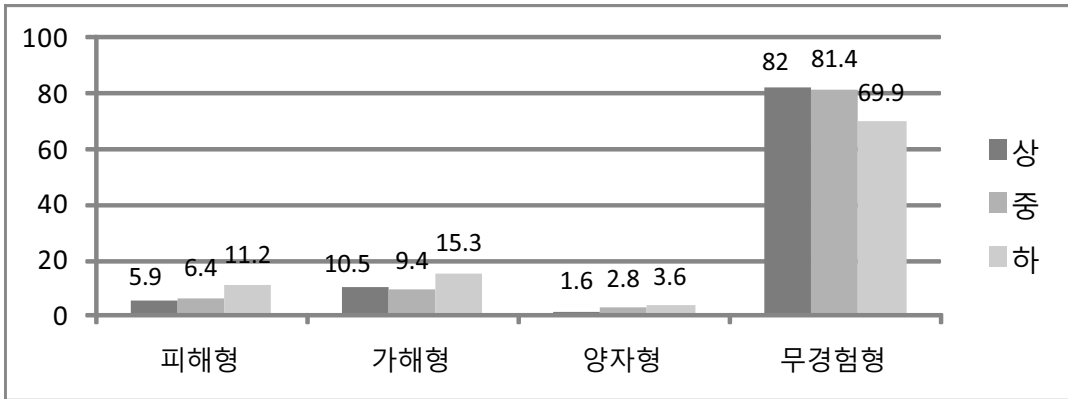
$\chi^2 = 24.832, p = .000$

고등학생 : 계층별 학교폭력 경험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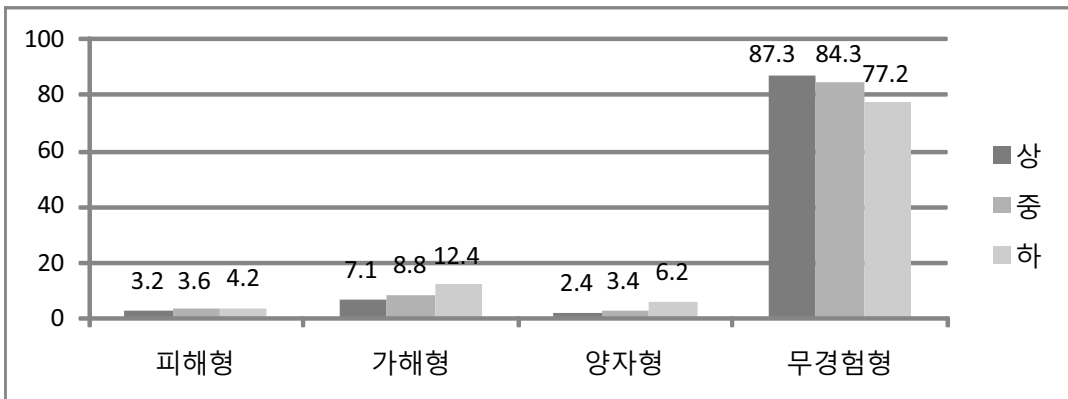
$\chi^2 = 2.855, p = .827$

초등학생 : 학교성적과 학교폭력 경험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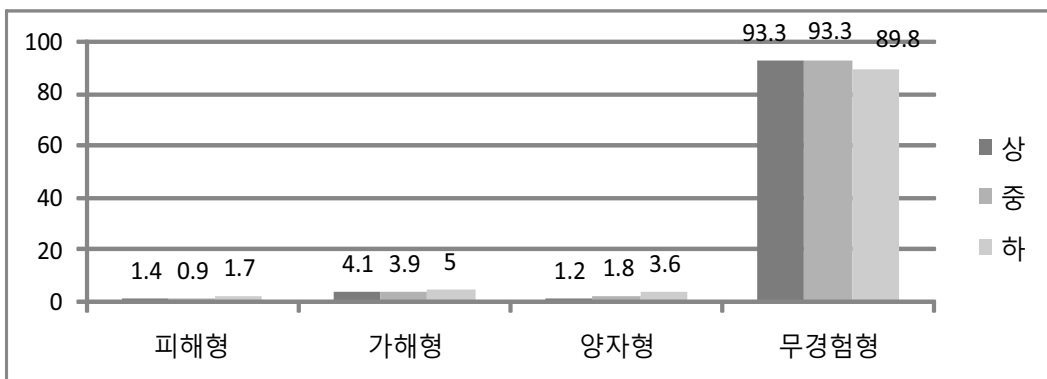
$\chi^2=20.023, p=.003$

중학생 : 학교성적과 학교폭력 경험유형 비율



$\chi^2=16.650, p=.011$

고등학생 학교성적과 학교폭력 경험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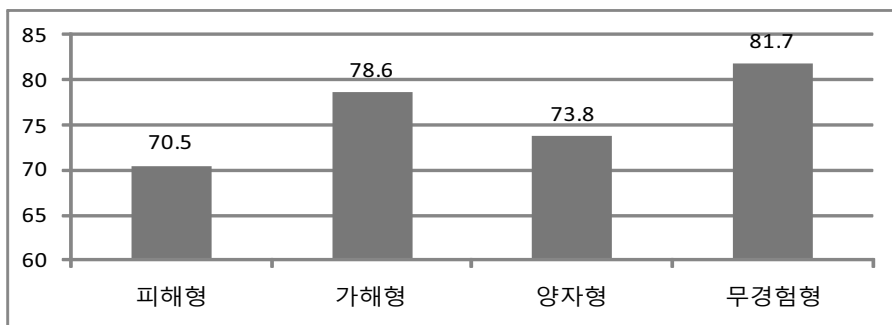


$\chi^2=7.896, p=.246$

1.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 집단은 무경험형, 가해형, 양자형, 피해형 순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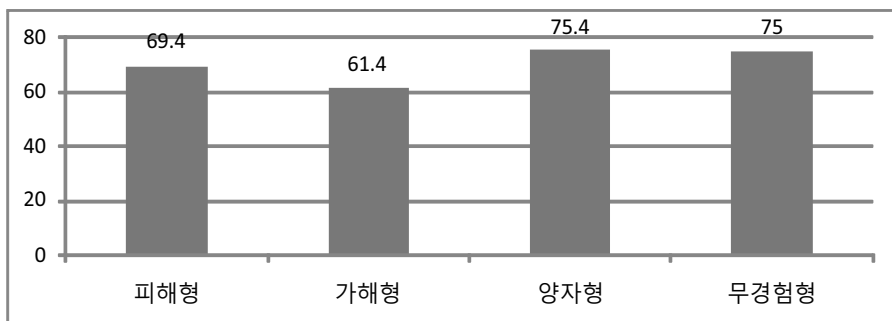
초등학생 :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chi^2 = 9.679, p = .022$

중학생 집단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 무경험형과 양자형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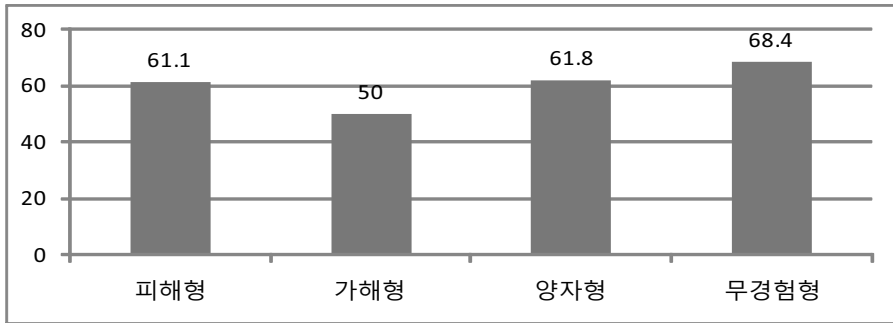
중학생 :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chi^2 = 14.202, p = .003$

고등학생 집단은 무경험형, 양자형, 피해형, 가해형 순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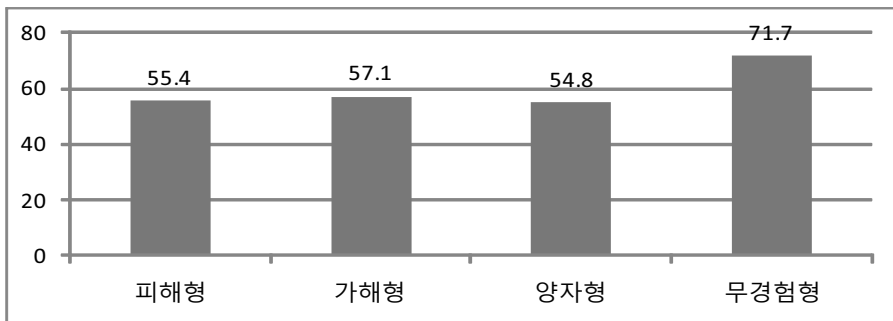


$\chi^2 = 11.137, p = .011$

2.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라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무경험형이 학교생활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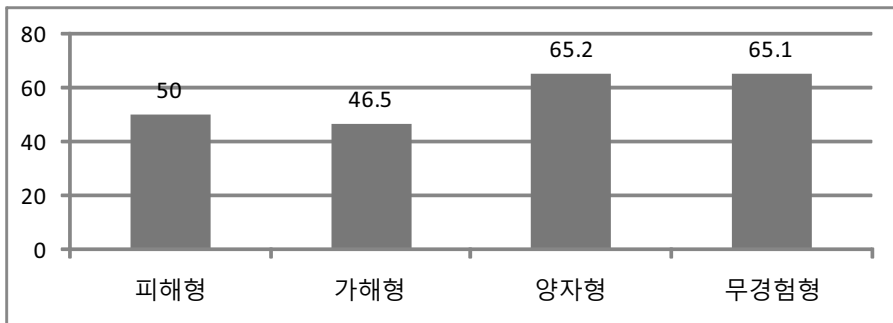
초등학생 :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chi^2 = 28.710, p = .000$

중학생 집단에서는 무경험형과 양자형이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비율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해형의 수치가 피해형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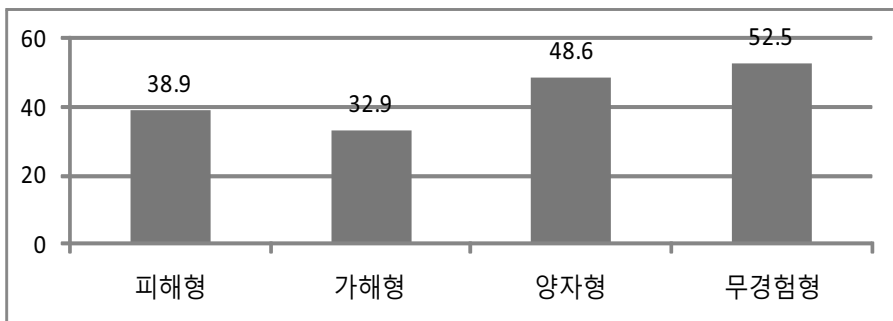
중학생 :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chi^2 = 25.811, p = .000$

고등학생의 경우 무경험형이 학교생활을 좋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양자형, 피해형, 가해형 순이었다.

고등학생 :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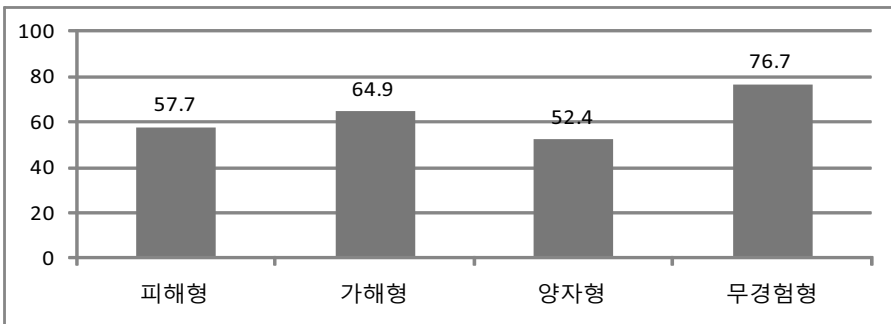


$\chi^2 = 11.551, p = .009$

3.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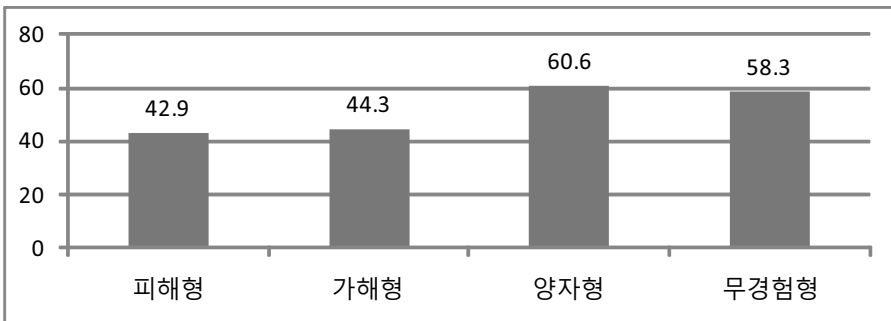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교폭력 경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무경험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가해형, 피해형, 양자형 순이었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에서 양자형과 무경험형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자형이 무경험형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 ‘나의 삶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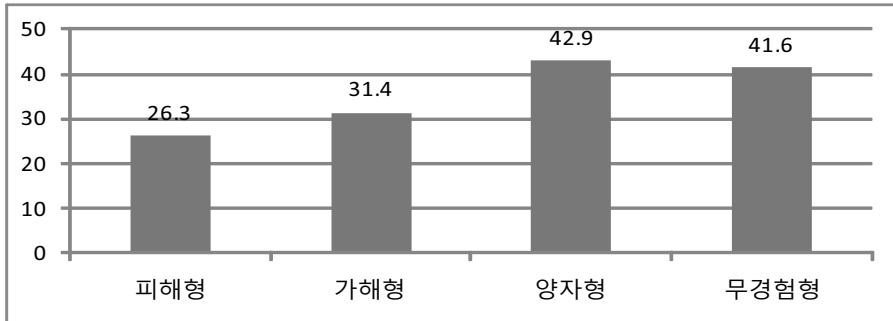
$\chi^2 = 37.144, p = .000$

중학생 : ‘나의 삶에 만족한다’



$\chi^2 = 16.744, p = .001$

고등학생 : '나의 삶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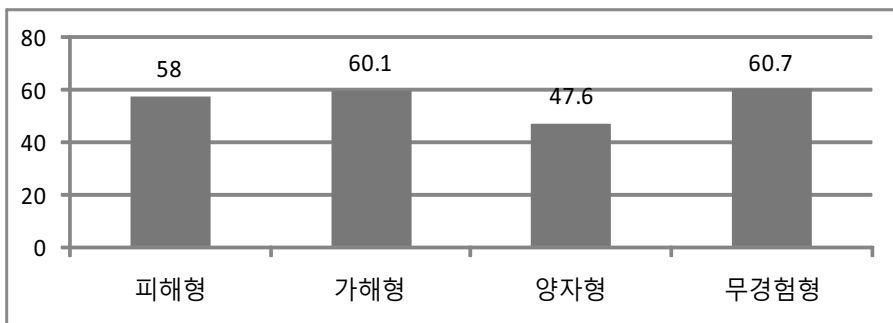


$\chi^2=4.634, p=.201$

4.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단체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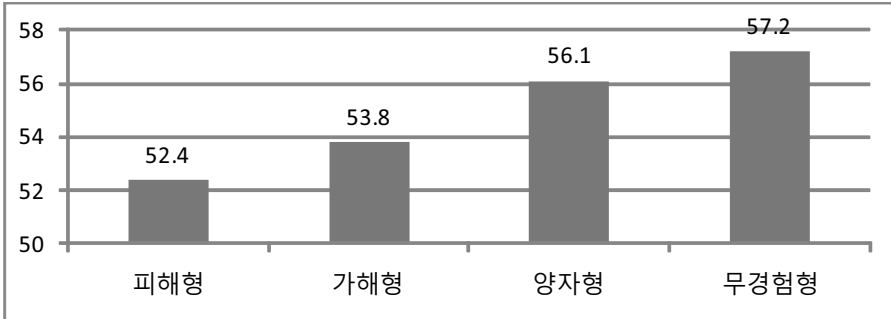
'내가 생활하는 단체에 소속감을 느낀다'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무경험형, 가해형, 피해형 순으로 자신이 생활하는 단체에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무경험형과 양자형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 '내가 생활하는 단체에 소속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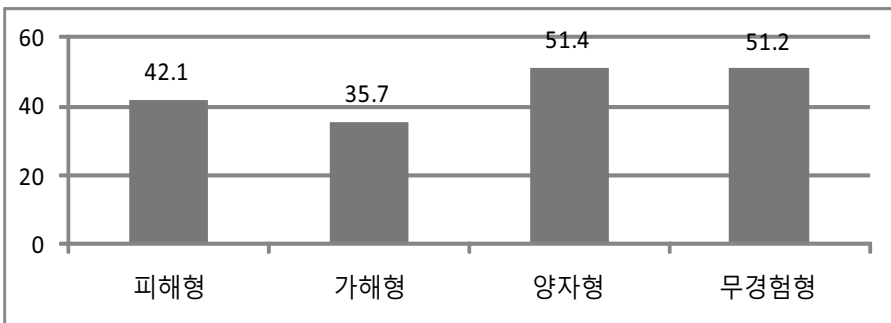
$\chi^2=3.146, p=.370$

중학생 : '내가 생활하는 단체에 소속감을 느낀다'



$\chi^2=1.182, p=.757$

고등학생 : '내가 생활하는 단체에 소속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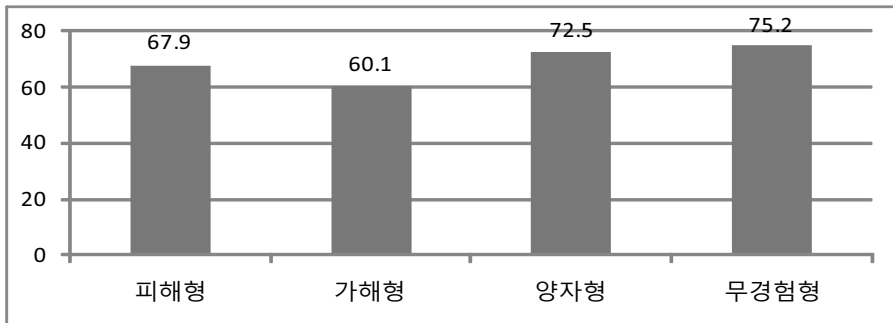


$\chi^2=6.959, p=.073$

5.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주변사람들과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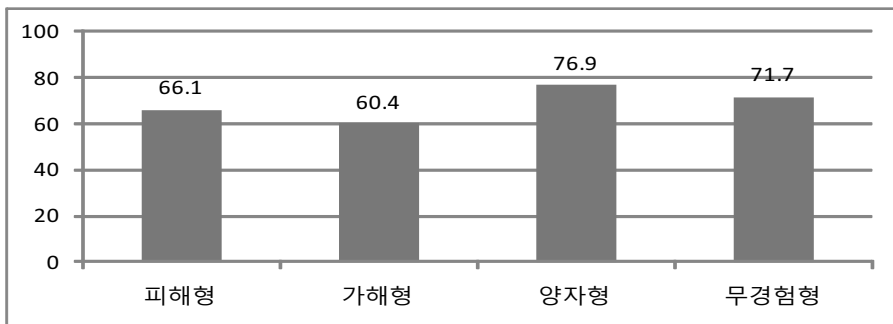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에서는 무경험형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양자형이 각각 76.9%, 77.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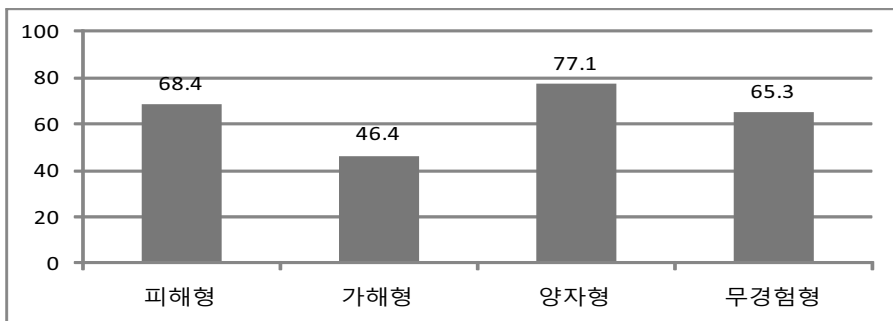
$\chi^2 = 18.628, p = .000$

중학생 :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chi^2 = 10.741, p = .013$

고등학생 :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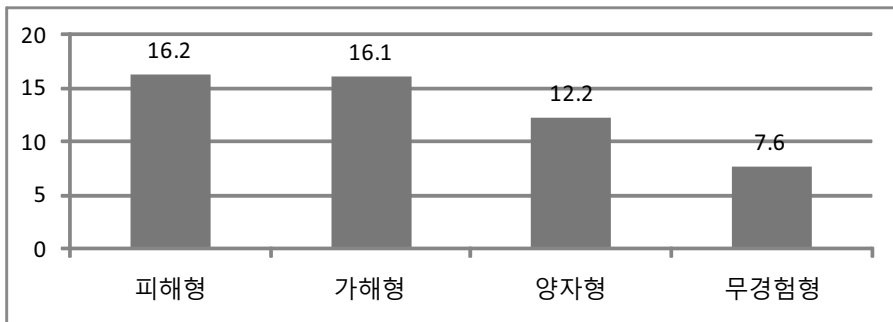


$\chi^2 = 12.907, p = .005$

6.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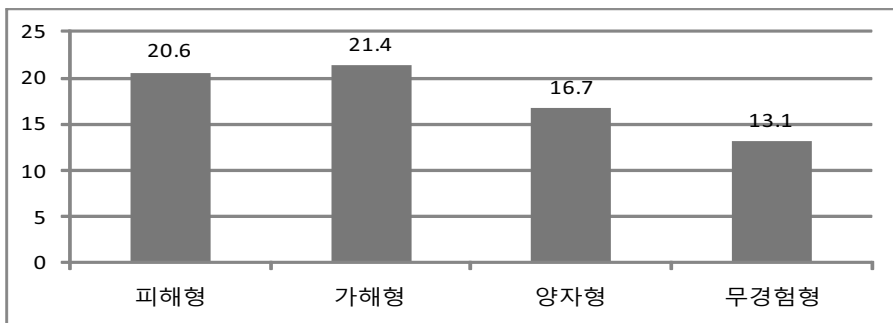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피해형과 가해형이 가장 많이 ‘무척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고등학생은 가해형을 제외하곤, 폭력 경험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생 :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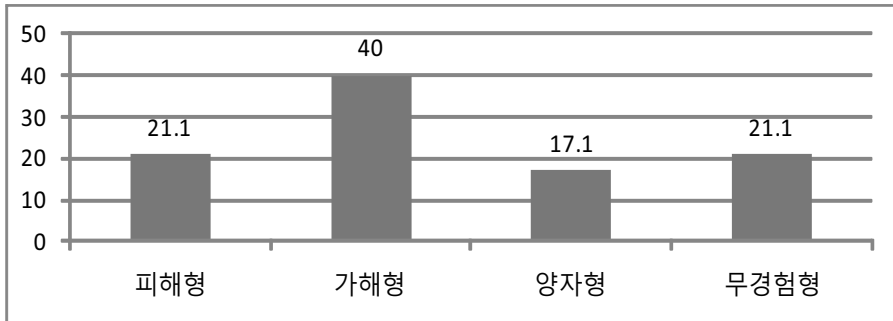
$\chi^2 = 20.252, p = .000$

중학생 :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chi^2 = 10.655, p = .014$

고등학생 :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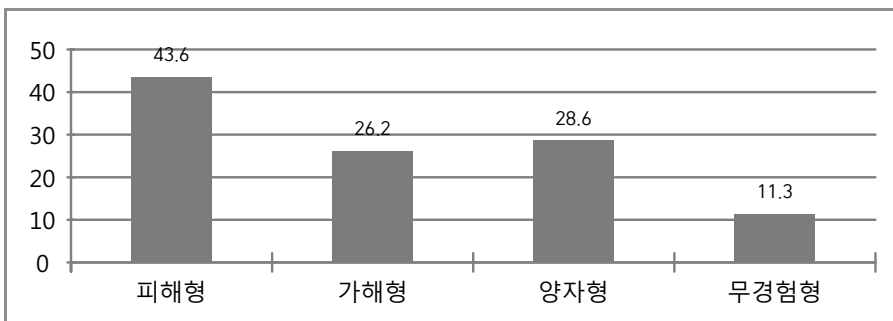
$\chi^2 = 14.486, p = .002$

IV.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가출 및 자살충동

1.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가출충동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가출충동을 느낀 비율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형이 4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양자형, 가해형 순이었으며, 무경험형이 11.3%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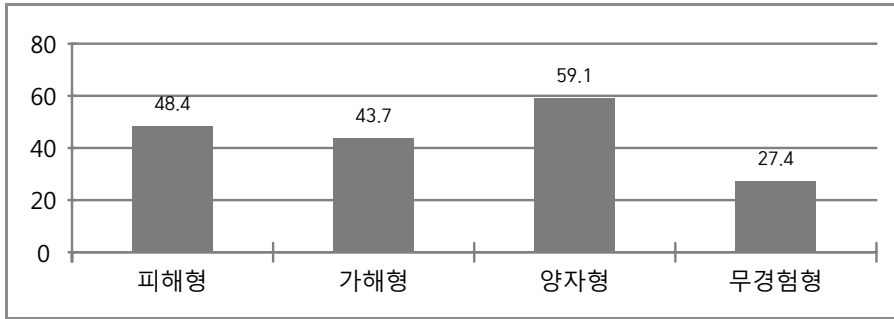
초등학생 :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가출충동



$\chi^2 = 14.486, p = .002$

중학생 집단의 경우 가출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양자형이 5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피해형, 가해형, 무경험형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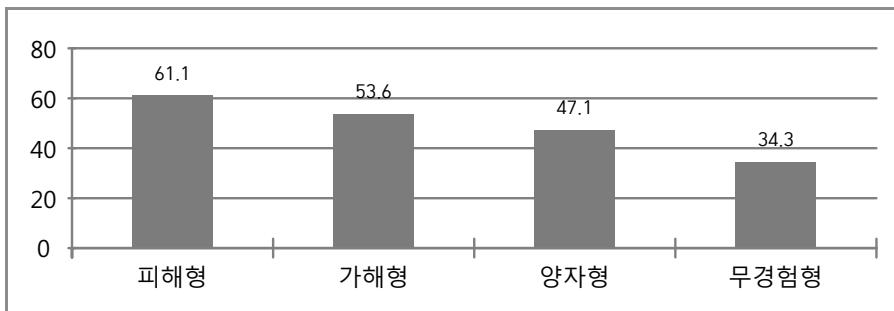
중학생 :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가출충동



$\chi^2 = 54.022, p = .000$

고등학생은 피해형이 가출충동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가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순이었다.

고등학생 :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가출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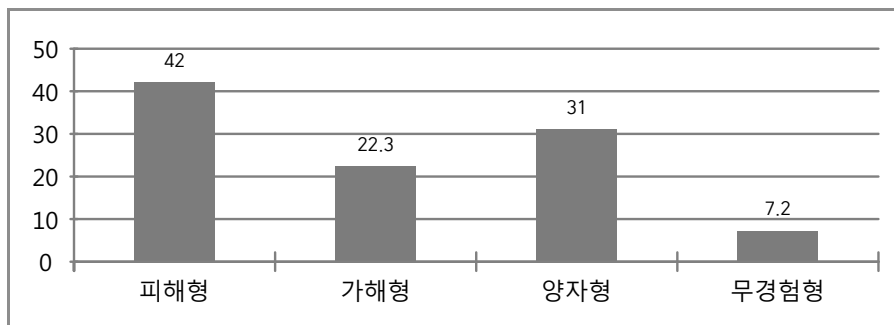


$\chi^2 = 17.894, p = .000$

2.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자살충동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을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형이 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양자형, 가해형 순이었으며, 무경험형이 7.2%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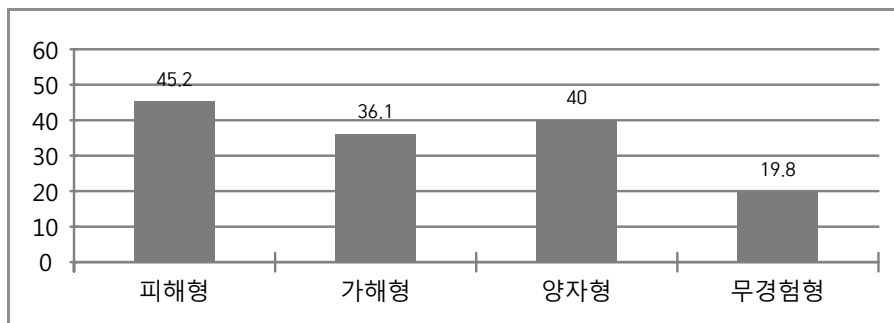
초등학생 :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자살충동



$\chi^2 = 153.896, p = .000$

중학생의 경우에도 피해형이 가장 높은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그 다음은 양자형, 가해형, 무경험형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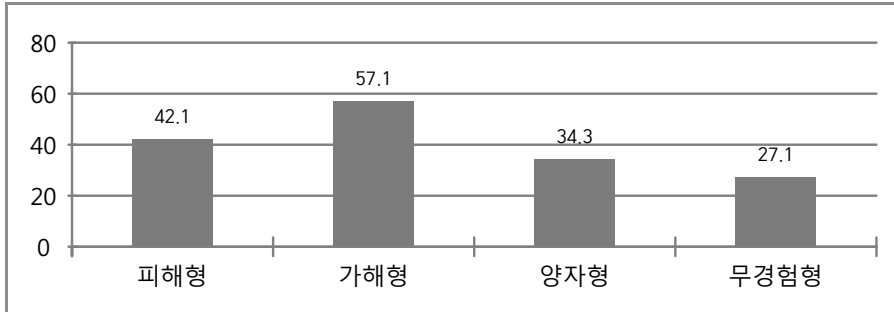
중학생 :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자살충동



$\chi^2 = 51.907, p = .000$

한편, 고등학생은 가해형이 가장 높은 수치의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그 다음은 피해형, 양자형, 무경험형 순이었다. 특히, 무경험형도 27.1%나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 학교폭력 경험 유형과 자살충동



$\chi^2 = 31.636,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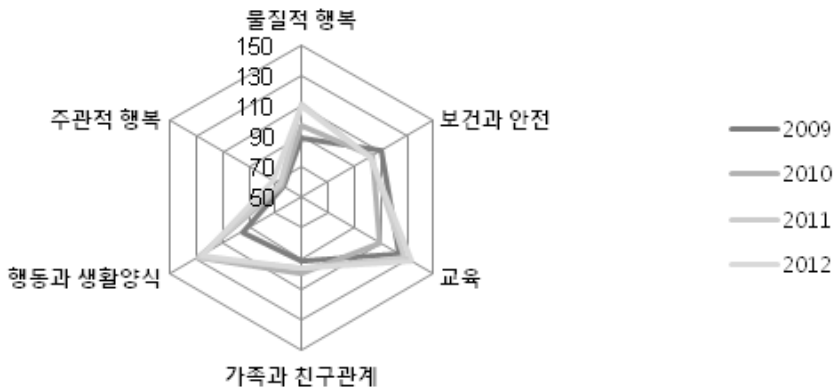
제 5 장
2009년 ~ 2012년
한국 행복지수 변화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물질적 행복, 교육, 친구관계, 보건과 안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으로 측정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영역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였다.

먼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물질적 행복 지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OECD 국가 평균(100)을 밑돌았으나,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OECD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과 안전, 교육 영역 지수는 4년 연속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 지수는 4년 연속 OECD 평균을 약간 밑돌았다. 또한, 주관적 행복영역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점수를 기록했다.

2009-2012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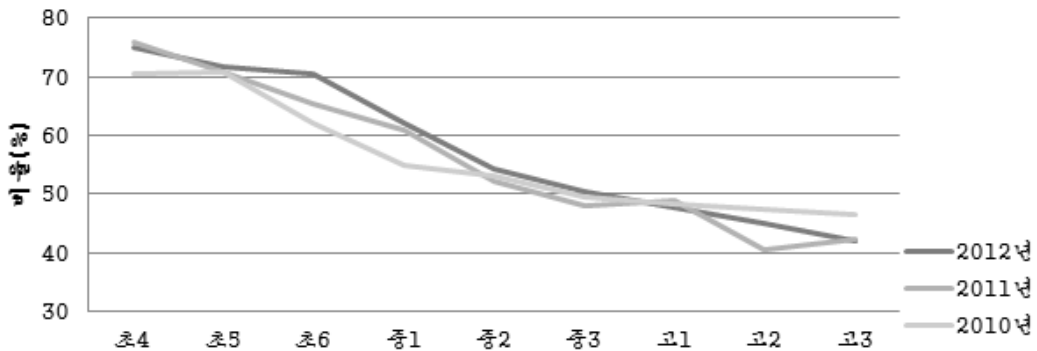


	물질적 행복	보건과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행복
2009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	110.7	102.6	127.8	96.1	129.3	65.98
2012	110.1	102.6	133.9	96.7	126.6	71.4

한편, 2012년 설문조사에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학생 범주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초등학생이 4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4.2%, 고등학생은 17.1% 수준이었으며, 올해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이 48.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26.2%였으며, 고등학생이 17.7%로 가장 낮았다.

또한, ‘주변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2012년 아래 그림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한편, 고등학생에서는 이 비율이 2010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에 비해 행복한 정도 201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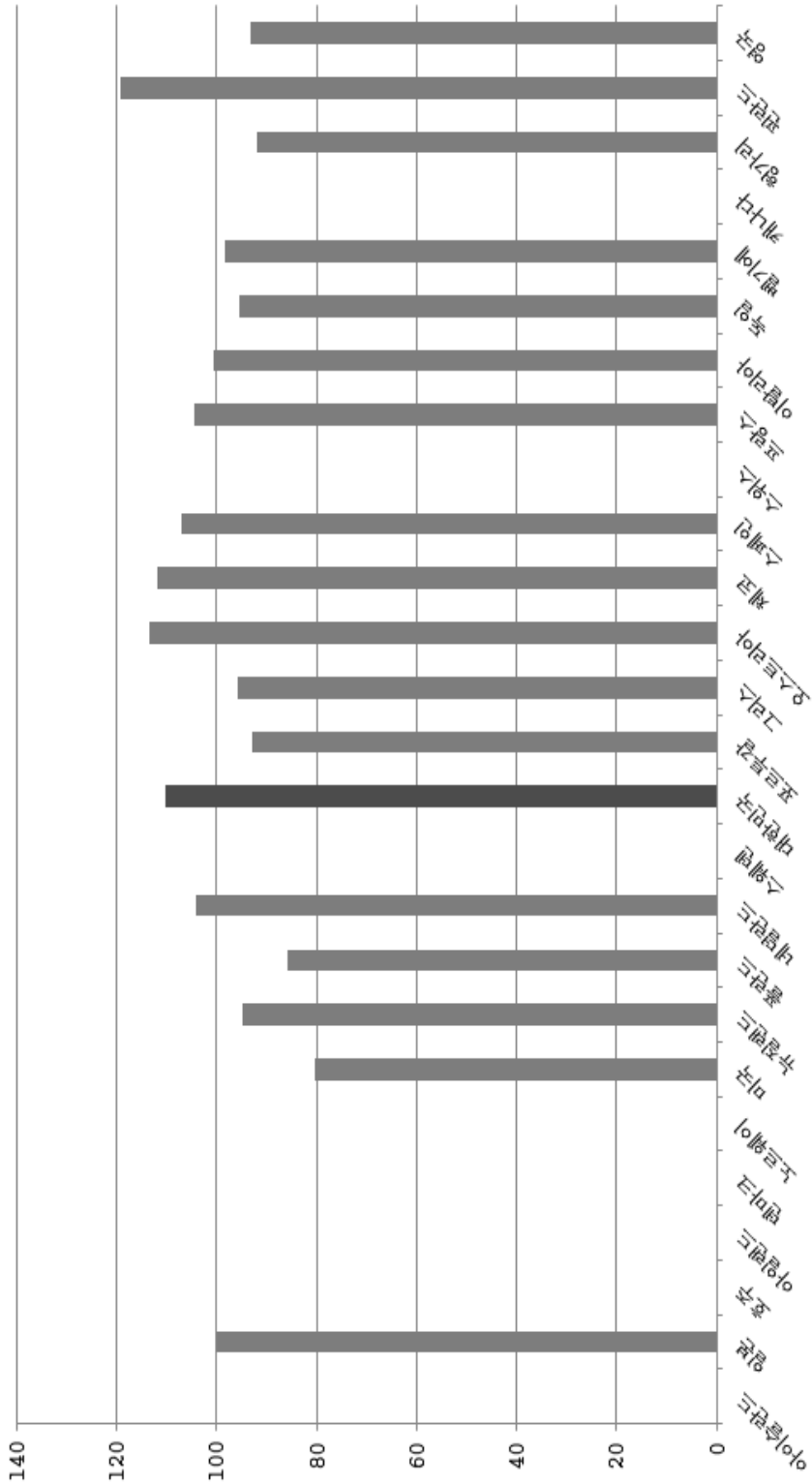


친구들에 비해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약간 행복하다"와 "매우 행복하다" 라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의 2010~2012년 간의 변화

부록 I.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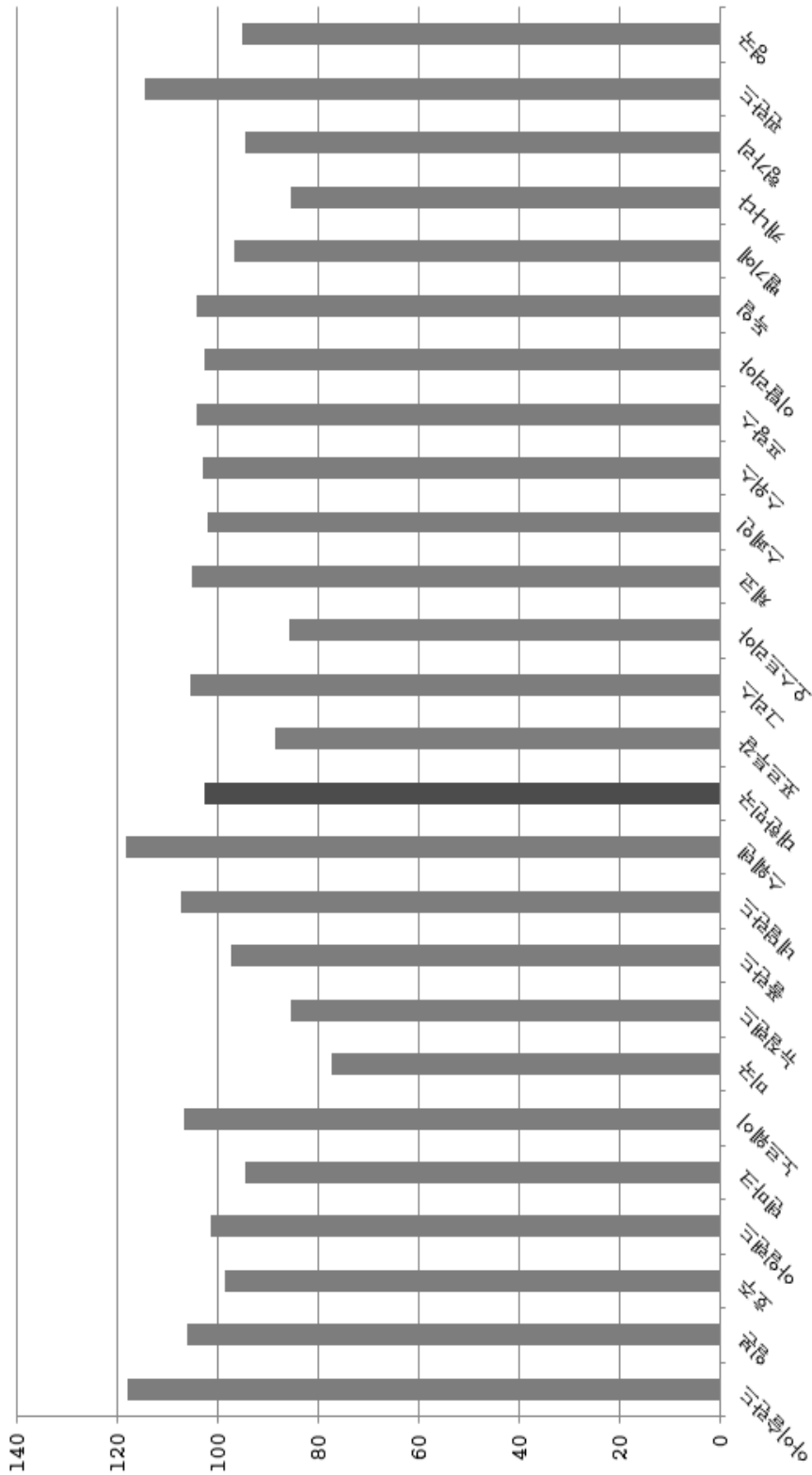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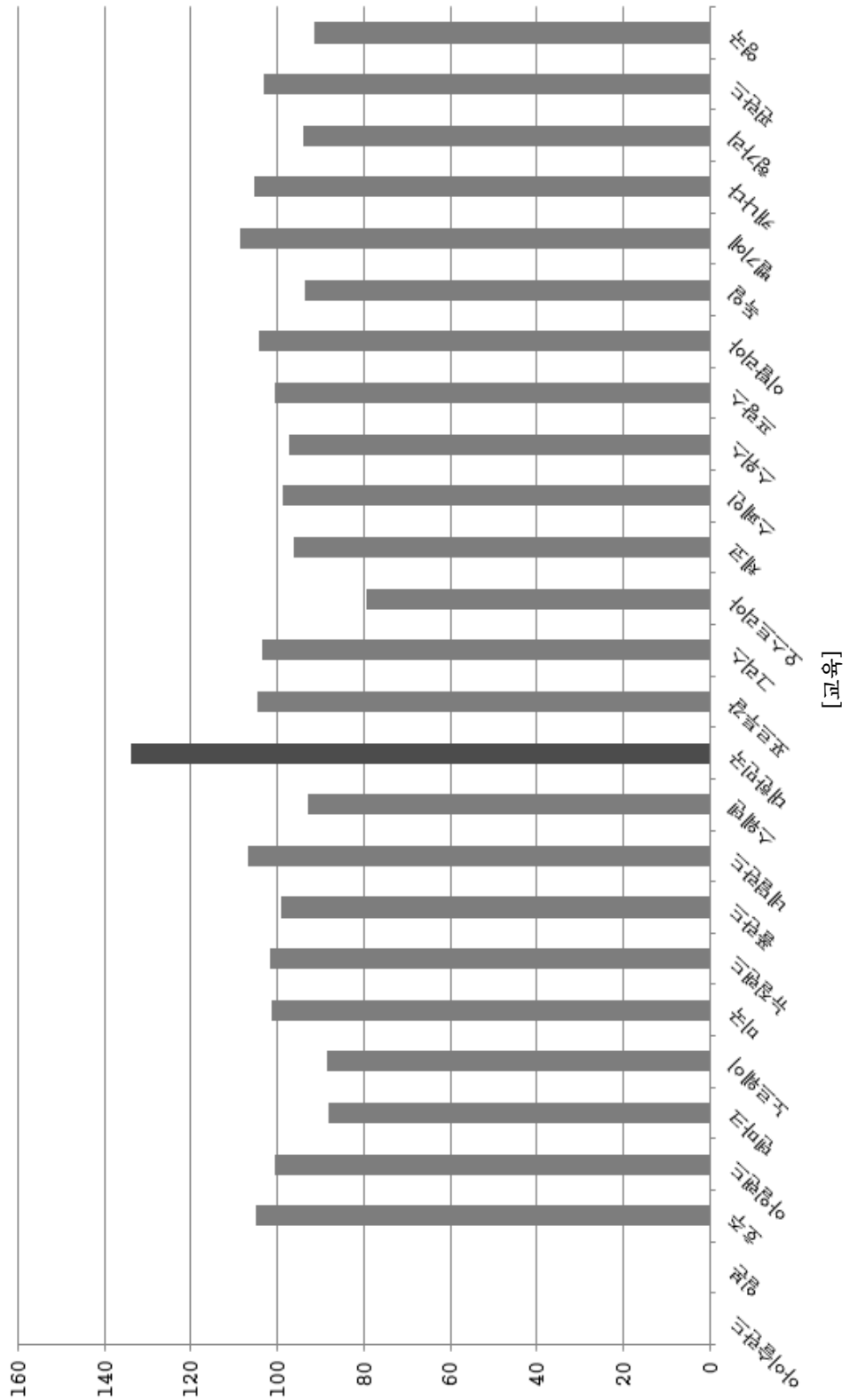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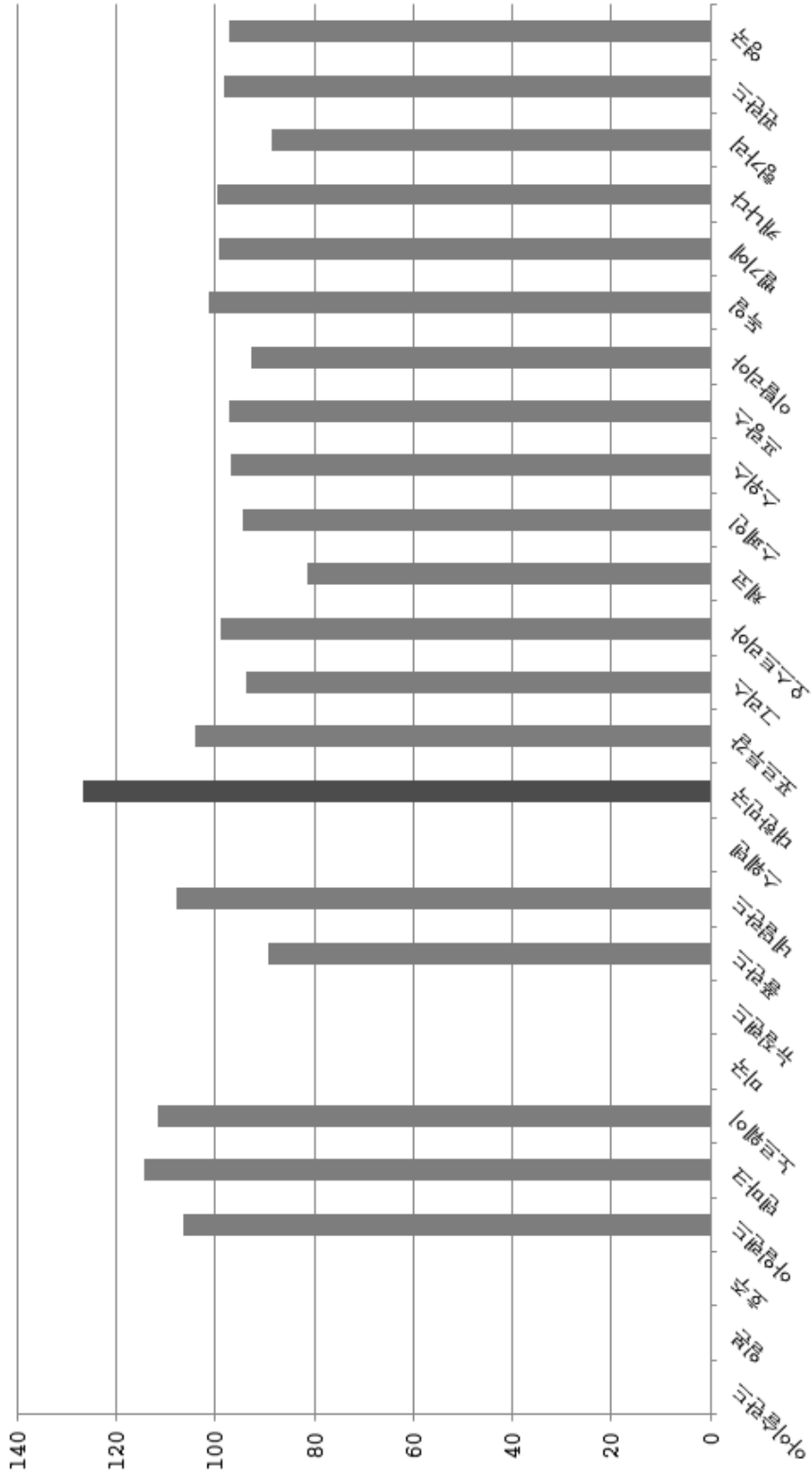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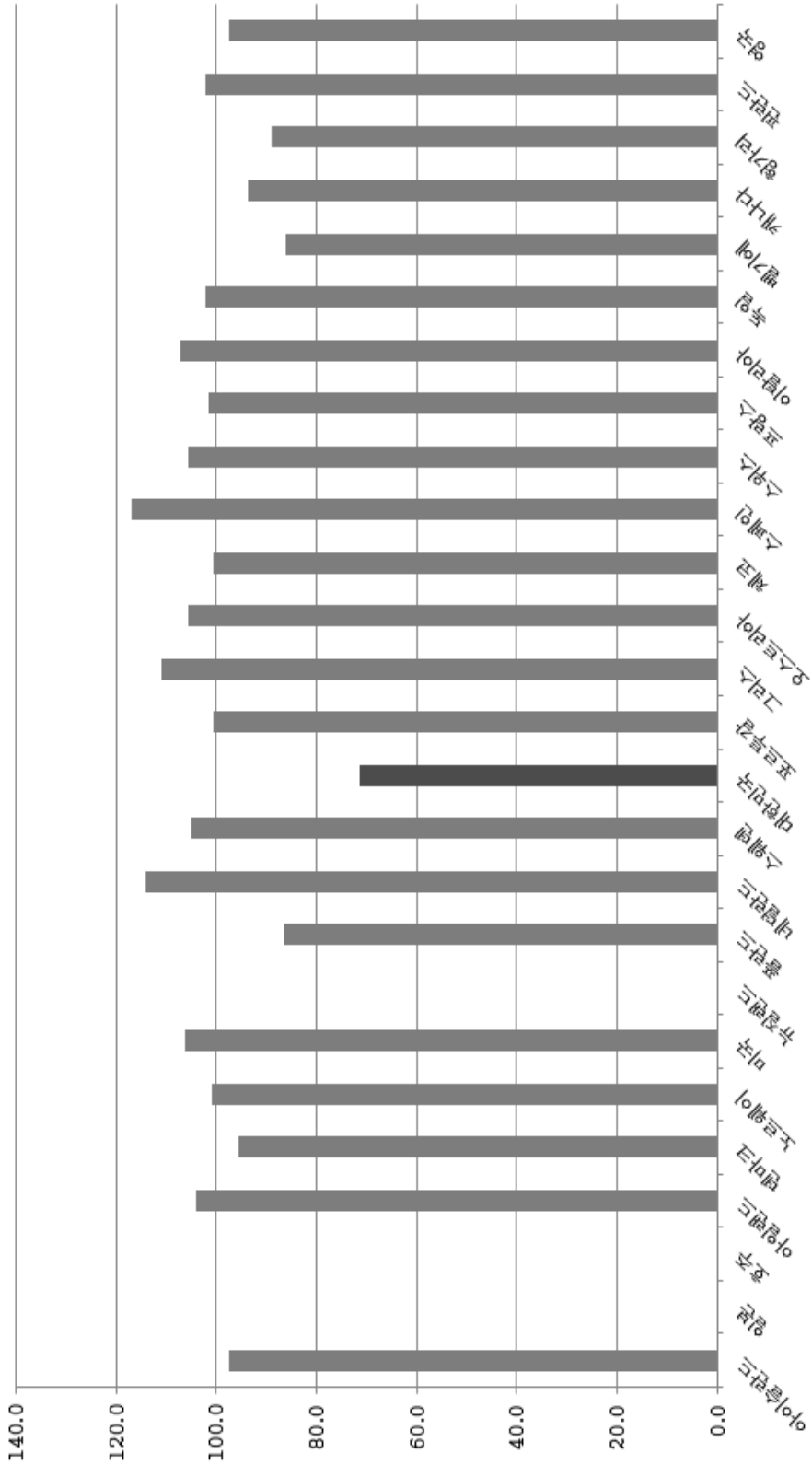


행동과 생활양식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주관적 행복]

부록 II.
지수도출 메뉴얼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또한,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2012년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지표별원점수, 표준점수 그리고 구성요소의 영역별 표준점수³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점수	OECD 평균	구성요소 별 한국 표준점수	영역별 한국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50%이하	0-17세	10.2%	11.6%	102.7	110.1	
		교육여건	15세	1.8%	1.9%	107.2		
	결핍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5.1%	8.9%	103.2		
보건과 안전	미 취업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19세 이하	3.65%	4.34%	102.5	102.6	
		영아 사망률 (출산 1000명 당)	0-12개월	4.7%	3.9%	99.6		
	영아건강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4.8%	6.5%	103.2		
		홍역		93	93.1%			
		소아마비	12-23개월	95	94.8%			
	예방접종증 (질병예방접종여부)	DPT3		94	94.7%			
		사고사	아동 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2.4	23.8%		
		학업성취 (PISA 자료의 표준화 점수; 평균 500)	읽기		539	501.1		120.4
	수학			546	504.7	108.4		
	과학		15세	538	509.3	115.0		
교육	교육참여	학업유지	15-19세	89%	84.7%	110.6	133.9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일자리 세대	15세	15.4%	28.7%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 청소년	15-19세	8.95%	6.5%	116.5		
		가족구조	홀부모기정	11, 13, 15세	11%	14.96%		
	가족과 친구관계	부모관계	의붓가정		2%	9.30%		76.3
			함께 식사하기	15세	54.7%	78.16%		101.5
친구관계		함께 대화하기		43.1%	60.73%			
		친절한 급우관계	11, 13, 15세	69.91%	68.23%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증진행위	아침식사	11, 13, 15세	83.15	65.71%	133.8	126.6	
		과일섭취	13, 15세	60.06	38.66%			
		과체중 (BMI 25이상)	13, 15세	12.1%	14.65%			
	건강위험행위 ⁴	운동 (일 수 평균)	13, 15세	5.9	3.95			
		흡연		2.4%	24.68%			
		음주	11, 13, 15세	10.1%	9.71%	108.1		
마약		0.69%	17.80%					
세스	15세	1.2%	24.60%					
임신과 출산	15-19세(여)	5%	12.78%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 13, 15세	22.6%	14.03%	80.9
	학교생활	학교생활만족	11, 13, 15세	34%	27.49%	79.2
개인행복	삶의 만족	11, 13, 15세	63.6%	85.71%	76.8	
	비소속감	15세	11.5%	6.62%		
	어울림		6.3%	9.27%		
	외로움		16.1%	7.43%		

주관적 행복

개인행복

주관적 불건강

11, 13, 15세

22.6%

14.03%

80.9

71.4

- 3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은 한국에서 유니세프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4 UNICEF의 원지표는 '지난 1주일간'에 한하여 음주에 대한 여부'인데 반해, 본연구 설문지(KCWI)는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율이 과대 측정 되었다.

부록 III.

설문지



hr 현대리서치연구소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초등학생)**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여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가족 및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행복도를 측정하는 조사로 향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학교나 가정 등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되어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 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시오.

조사주관기관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문의 : 김주연 감독원(02-3218-9662)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응답요령

- 1) 객관식 문항의 경우 보기문항에서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오른쪽 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2)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학생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 3) 설문지 중에 (☞ 문8로 이동)과 같은 표시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질문은 건너뛰고 문8로 가서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 4)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명 : _____ 학교		응답칸
SQ1. 성별	1) 남성 2) 여성	
SQ2. 거주지역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 강원도 3) 충청권(대전, 충남·북) 4)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북) 5) 호남권(광주, 전남·북)	
SQ3.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SQ4. 교급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SQ5.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SQ6.	※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은 <input type="checkbox"/> 안에 모두 V 표시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 자기 혼자만의 방 <input type="checkbox"/> 2) 책상 <input type="checkbox"/> 3) 공부방 <input type="checkbox"/> 4) 교육용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5) 인터넷연결 <input type="checkbox"/> 6) 계산기 <input type="checkbox"/> 7) 사전 <input type="checkbox"/> 8) 백과사전류의 책 * 교육용소프트웨어 - 교육용 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CD	

문1. 여러분의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응답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여러분의 집에 '자동차'는 몇 대 있나요?(트럭 포함)

응답칸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응답칸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 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 등을 포함합니다.

문4.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이라고 쓰세요.

	명
--	---

문5.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와는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나요?(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거의 매일 2) 2~3일에 한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2~3주에 한 번 정도 5) 한 달에 한 번 정도 6) 몇 달에 한 번 정도

문5-1.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전화, 문자, 이메일, 채팅 등)

응답칸

- 1) 거의 매일 2) 2~3일에 한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2~3주에 한 번 정도 5) 한 달에 한 번 정도 6) 몇 달에 한 번 정도

문6.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기	1	2	3	4	5

- | | |
|---------------------------------------|-----|
|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응답칸 |
| 2)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
| 3) 나는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 |
| 4) 내 친구들은 나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잘 알고 있다 | |
| 5) 내 친구들은 나의 (지난 학년)학교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 | |
| 6) 나는 내 친구들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잘 알고 있다 | |

문10-3.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나는 사교육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나는 사교육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 사교육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잘 알고 있다	
4) 사교육선생님은 내 친구(들)를 잘 알고 있다	
5) 사교육선생님은 나의 (지난 학년)학교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	

문11.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옵니까?(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오후 4시 이전
- 2) 오후 5시경
- 3) 오후 6시경
- 4) 오후 7시경
- 5) 오후 8시경
- 6) 오후 9시경
- 7) 오후 10시경
- 8) 오후 11시경
- 9) 밤 12시 이후
- 10) 일정치 않다

■ 다음 질문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 주세요.

문12.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여러분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6) 기타 _____

문13. 여러분은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14로 이동**)

문13-1. 최근 1년간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

문13-2. 최근 1년간 나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문13-3. 최근 1년간 어떠한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6) 기타 _____

문17. 아래의 질문은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함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기입란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란에 숫자 "9"를 기입해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2)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얼마나 자주 저녁식사를 하나요?		
4) 아버지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나요?		
5) 어머니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나요?		

문18.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란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에 없다면 '6'으로 표시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는 내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는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는 나의 (지난 학년)학교 선생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는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문19.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란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에 없다면 '6'으로 표시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는 내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는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는 나의 (지난 학년)학교 선생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는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문20.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응답칸

- 1) 전혀 좋지 않다
- 2) 별로 좋지 않다
- 3) 보통이다
- 4) 좋은 편이다
- 5) 매우 좋다
- 6) 해당사항 없음

문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7) 학교를 다닌적 없음

문22.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7) 무직/기타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3. 다음 질문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칸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생활하는 단체(학교, 학원, 동네, 교회/성당/집)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24. 여러분은 다음 보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보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1) 학교생활	응답칸
2) 친구관계	
3) 교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생활 전체	

문25.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매우 행복하다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26.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요?(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집 2) 학교 3) 학원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5) 동아리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 기타 8) 특별히 없다

문27.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칸

- 1) 매우 불행하다 2) 약간 불행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행복하다 5) 매우 행복하다

문28.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건강 2) 돈 3) 성적 향상 4) 친구
5) 이성 친구 6) 화목한 가족 7) 자격증(기술 등) 8) 자유
9) 기타_____

■ 다음 질문은 평소에 학생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9.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응답칸
2) 부모님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1)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응답칸
12)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30. 다음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1) 예	2) 아니오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먹나요?	1) 예	2) 아니오	
3) 지난 1주일 동안 <u>1시간 이상</u>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시간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4) 지난 1주일 동안 <u>1시간 이상</u>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시간 이외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5)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의료기관 :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1) 예	2) 아니오	
6) 최근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7)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8)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1) 예	2) 아니오	
9)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0)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1)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문31.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응답칸

1) 있다

2) 없다 (→ 문32로 이동)

문31-1.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9) 기타_____

문31-2.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응답칸

- 1) 있다 2) 없다

문32.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응답칸

- 1) 있다 2) 없다 (→ **문33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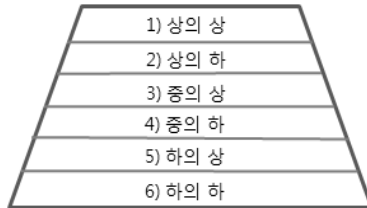
문32-1.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부모님과의 갈등 2) 친구들과 어울려서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5) 친구들과의 갈등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9) 기타_____

문33.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금전적인 부분)

응답칸



문34.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	----	--	---

문35. 주말(학교가지 않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	----	--	---

문36.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cm
--	----

문37.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kg
--	----

문38. 다음 다섯 가지 과목의 성적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 하는 수준	매우 잘 하는 수준	배우지 않음
	1	2	3	4	5	6

	응답칸
1)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5) 과학	

문39.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 | | |
|-------------|-------------|-----------|
| 1) 초졸 | 2) 중졸 | 3) 고졸 |
| 4) 2년제 대학교졸 | 5) 4년제 대학교졸 | 6) 대학원 이상 |

문40.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 |

문41.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주세요.

문42.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주세요.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hr 현대리서치연구소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중·고생)**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여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가족 및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행복도를 측정하는 조사로 향후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학교나 가정 등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되어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 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주시시오.

조사주관기관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문의 : 김주연 감독원(02-3218-9662)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응답요령

- 1) 객관식 문항의 경우 보기문항에서 해당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오른쪽 칸에 번호를 써주세요.
- 2)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학생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 3) 설문지 중에 (☞ 문8로 이동)과 같은 표시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질문은 건너뛰고 문8로 가서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 4)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명 : _____ 학교

	응답칸
SQ1. 성별	1) 남성 2) 여성
SQ2. 거주지역	1)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2) 강원도 3) 충청권(대전, 충남·북) 4)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북) 5) 호남권(광주, 전남·북)
SQ3.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SQ4. 교급	1) 초등학교 2) 중학생 3) 고등학생
SQ5.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SQ6.	※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은 <input type="checkbox"/> 안에 모두 V 표시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 자기 혼자만의 방 <input type="checkbox"/> 2) 책상 <input type="checkbox"/> 3) 공부방 <input type="checkbox"/> 4) 교육용소프트웨어 <input type="checkbox"/> 5) 인터넷연결 <input type="checkbox"/> 6) 계산기 <input type="checkbox"/> 7) 사전 <input type="checkbox"/> 8) 백과사전류의 책 * 교육용소프트웨어 - 교육용 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CD

문1. 여러분의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응답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여러분의 집에 '자동차'는 몇 대 있나요?(트럭 포함)

응답칸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응답칸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 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 등을 포함합니다.

문4.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이라고 쓰세요.

	명
--	---

문5.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와는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나요?(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거의 매일 2) 2~3일에 한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2~3주에 한 번 정도 5) 한 달에 한 번 정도 6) 몇 달에 한 번 정도

문5-1.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전화, 문자, 이메일, 채팅 등)

응답칸

- 1) 거의 매일 2) 2~3일에 한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2~3주에 한 번 정도 5) 한 달에 한 번 정도 6) 몇 달에 한 번 정도

문6.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기	1	2	3	4	5

-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2)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나는 내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4) 내 친구들은 나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잘 알고 있다
 5) 내 친구들은 나의 (지난 학년)학교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
 6) 나는 내 친구들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잘 알고 있다

응답칸

문10-3.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1) 나는 사교육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응답칸
2) 나는 사교육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 사교육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잘 알고 있다	
4) 사교육선생님은 내 친구(들)를 잘 알고 있다	
5) 사교육선생님은 나의 (지난 학년)학교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	

문11.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옵니까?(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오후 4시 이전
- 2) 오후 5시경
- 3) 오후 6시경
- 4) 오후 7시경
- 5) 오후 8시경
- 6) 오후 9시경
- 7) 오후 10시경
- 8) 오후 11시경
- 9) 밤 12시 이후
- 10) 일정치 않다

■ 다음 질문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 주세요.

문12. 다음은 여러 종류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중 여러분 주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 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응답칸

문13. 여러분은 최근 1년간 위와 같은 종류의 학교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14로 이동)

문13-1. 최근 1년간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 번

문13-2. 최근 1년간 나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학교폭력을 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문13-3. 최근 1년간 어떠한 종류의 학교폭력을 당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1) 신체 폭행
- 2) 금품 갈취(돈이나 물건 뺏음)
- 3) 욕, 인신공격 등 언어로 하는 폭력
- 4) 따돌림
- 5) 성 폭력
- 6)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욕설, 협박
- 7) 기타 _____

문17. 아래의 질문은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함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기입란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란에 숫자 "9"를 기입해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2)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얼마나 자주 저녁식사를 하나요?		
4) 아버지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나요?		
5) 어머니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시간을 내나요?		

문18.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란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에 없다면 '6'으로 표시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는 내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는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는 나의 (지난 학년)학교 선생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는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문19.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란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에 없다면 '6'으로 표시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는 내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는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는 나의 (지난 학년)학교 선생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는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문20.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응답칸

- 1) 전혀 좋지 않다 2) 별로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6) 해당사항 없음

문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7) 학교를 다닌적 없음

문22.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3. 다음 질문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을, '그렇지 않다'이면 '2'를, ... , '매우 그렇다'이면 '5'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생활하는 단체(학교, 학원, 동네, 교회/성당/집)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응답칸

문24. 여러분은 다음 보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보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 1) 학교생활
 2) 친구관계
 3) 교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생활 전체

응답칸

문25.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매우 행복하다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5) 모르겠다

문26.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요?(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집 2) 학교 3) 학원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5) 동아리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7) 기타 8) 특별히 없다

문27.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칸

- 1) 매우 불행하다 2) 약간 불행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행복하다 5) 매우 행복하다

문28.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여가 2) 친구 3) 권력 4) 이웃
5) 건강 6) 돈 7) 학력 8) 종교
9) 가족 10) 일 11) 기타 _____

■ 다음 질문은 평소에 학생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9.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응답칸
2) 부모님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30. 다음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1) 예 2) 아니오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먹나요?	1) 예 2) 아니오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시간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입
4)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시간 이외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입
5)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의료기관 :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1) 예 2) 아니오	
6) 최근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7)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8)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1) 예 2) 아니오	
9)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0) 최근 12개월 동안 마약/분드를 흡입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1)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1-1)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였나요?	1) 예 2) 아니오	
11-2) 아이를 갖게 한 적, 혹은 낳은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2) 최근 12개월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13) 최근 12개월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1) 예 2) 아니오	

문31. 가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 | | |
|-------|--|
| 1) 있다 | 2) 없다 (→ 문32로 이동) |
|-------|--|

응답칸

문31-1. 무슨 문제 때문에 가출을 생각했었나요?(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부모님과의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문31-2. 가출을 실행해 본 적이 있나요?

응답칸

- 1) 있다
- 2) 없다

문32.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응답칸

- 1) 있다
- 2) 없다 (→ 문33으로 이동)

문32-1.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었나요?(가장 큰 이유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응답칸

- 1) 부모님과의 갈등
- 2) 친구들과 어울려서
- 3) 학교에서의 폭력 때문에
- 4) 선생님과의 갈등
- 5) 친구들과의 갈등
- 6) 성적 하락
- 7) 주위의 무관심
- 8)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9) 기타 _____

문33.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금전적인 부분)

응답칸



문34. 주중(학교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시간 [] 분

문35. 주말(학교가지 않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시간 [] 분

문36.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 cm

문37.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 kg

문38. 2011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은?

반 전체인원 명 중 등

문39.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응답칸

- 1) 초졸
- 2) 중졸
- 3) 고졸
- 4) 2년제 대학교졸
- 5) 4년제 대학교졸
- 6) 대학원 이상

문40.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응답칸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7) 무직/기타

문41.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주세요.

문42.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주세요.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는 향후 저희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해주실 패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패널로서 조사에 참여하시면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로 활동하시길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적어주신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input type="text"/>	연락처(휴대폰)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	사는 곳	_____시·도 _____구·시·군